

# 2020년 한국초등교육학회 학술대회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lementary Education



## 미래형 수업시대, 초등교육의 전망과 과제

2020. 11. 28(토) 10:00~16:00

### 초대의 글

한국초등교육학회 회원님들 그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로 인해 학회 사업이 많이 축소되다보니 여러 회원님들과 뵈지 못해 오래된 듯합니다. 이에 늦은 가을날 '비대면 원격수업 시대, 초등교육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2020 연차학술대회에 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 19 상황이 가져온 급속한 교육의 변화에 우리 초등교육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코로나 19 이후 초등교육의 전망에 관한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학술대회가 열리는 11월에도 코로나 19의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 예상되어 이번 학술대회는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록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논의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 회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초등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학술대회 날 뵈기를 고대하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2020년 11월

한국초등교육학회장 이환기

### ■ 세부계획

- 일시: 2020년 11월 28일(토) 10:00 ~ 16:00
- 진행 및 참여 방식: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웨비나  
\* 사전참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 사전참가 신청 기간: 11월 20일(금)까지 구글 설문지로 신청

- 사전참가 신청 방법 <https://forms.gle/87VD6sCB9gKqexr48>



## PROGRAM

1부	09:30~10:00	웹 접속 준비	
	10:00~10:10	개회사: 이환기(회장, 춘천교대)	1부 사회: 조상연 (총무이사, 춘천교대)
	10:10~10:40	<b>기획주제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초등교육의 전망과 과제</b> ○ 발표: 박남기(부회장, 광주교육대학교) ○ 토론: 박상완(부산교육대학교)	
	11:00~11:30	<b>기획주제2: 비대면 원격수업 시대의 초등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b> ○ 발표: 추광재(부회장, 강원 횡성초등학교) ○ 토론: 신태중(서울 개화초)	
		점심 및 휴식	
2부	14:10~14:40	<b>기획주제3: 코로나 19가 드러낸 교육불평등의 실태와 과제</b> ○ 발표: 박미희(경기도교육정보원) ○ 토론: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2부 사회: 박철희 (학술이사, 경인교대)
	14:50~15:20	<b>기획주제4: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초등교육과정 운영 사례 및 과제</b> ○ 발표: 김세영(경기 곡정초등학교) ○ 토론: 이윤미(전북 이리동산초)	
	15:30~16:00	<b>종합토의</b> ○ 좌장: 박승배(수석부회장, 전주교대)	

# 2020년 한국초등교육학회 학술대회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lementary Education

K  
S  
E  
M

## Contents

발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새 패러다임 탐색 - 박남기(광주교육대학교 교수).....	3
토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새 패러다임 탐색에 관한 토론 - 박상완(부산교육대학교 교수).....	35
발표	비대면 원격수업 시대, 초등교사의 전문성 - 추광재(강원 횡성초등학교 교사).....	47
토론	비대면 원격수업시대의 generalist - 신태중(서울개화초등학교).....	63
발표	코로나19가 드러낸 교육 불평등 실태와 과제 - 박미희(경기도교육연구원 전문연구원).....	71
토론	코로나19가 드러낸 교육 불평등 실태와 과제에 대한 토론 -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03
발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초등교육과정 운영 사례 및 과제 - 김세영(경기 곡정초등학교 교사).....	109
토론	전면적 원격수업 도입의 성과와 한계 - 이윤미(전북 이리동산초 교사).....	143

# 2020

## 한국초등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새 패러다임 탐색

박 남 기 |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2020 KSSEE Annual Conference  
2020 한국초등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새 패러다임 탐색

박남기(광주교육대학교 교수)

### I. 서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까?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은 무엇일까?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교육계에서는 혼합학습(블렌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이나 혼합 수업(hybrid instruction)이 뉴노멀(새 기준, 새 표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렇게 될까,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할까? 과연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

코로나 19 이전에는 대면교육은 문제점만 부각되고 원격 온라인교육의 경우는 가능성이 과대포장 되었었다. 그러나 갑자기 실시된 온라인교육 대실험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다. 향후 우리교육이 유사한 상황에 잘 대응해가기 위해서는 이 실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사전 설계 없이 매일매일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이 실험의 상세한 진행 경과, 매일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 주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결정을 실행한 결과 나타난 산출과 부작용, 되돌아보아 아쉬운 점과 시사점 등을 국책연구기관과 개인 연구자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해가야 한다. 이 과정 중에 쌓이고 있는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미래 대응 시스템 구축안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언론 보도, 유관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민간교육기관 등의 역할과 대응 방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어서 이번 온라인교육 대실험 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온라인학습 약자 문제를 별도로 분석하여 교육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교육 매체이면서 수단이 되고 있는 에듀테크의 가능성과 한계를 바탕으로 에듀테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탐색해본다. 이러한 제반 분석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할 바람직한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바람직한 교육 패러다임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환경 등등의 큰 틀을 체계적으로 분

석하고, 동시에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집단과 개인들의 대응과 적응 양태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큰 흐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시했던 ‘4차 산업혁명기 교육개혁의 새 패러다임’ (박남기, 2017)과 달리 이 논문은 코로나 19 실험으로 얻은 결과에 초점을 맞춰 미래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패러다임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 II. 우리 교육계의 대응 분석 및 시사점<sup>1)</sup>

### 1. 학교의 역할과 대응

코로나19는 학교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집에 발이 묶인 학생 수는 15억 여명(전 세계 학생의 87%)이다.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 학습 흥미를 갖지 못하는 학생, 그리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오프라인 학교 교육에 대한 실망이 커져가고 있었다. 이는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 학교 무용론으로까지 이어졌었다. 대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교육, 인공지능 학습조교나 멘토가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자기 학습력을 키워줌으로써 개인 맞춤형 개별화 학습이 가능한 교육 등등 에듀테크 기반 교육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었다. 그런데 전면적인 온라인 교육을 시도하면서 그러한 에듀테크가 아직은 갈 길이 멀고,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으며, 특히 교육약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온라인 교육을 위한 준비가 덜된 탓도 있지만 코로나19 교육 대실험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학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직은 있음을 보여주었다.

빌 게이츠는 코로나가 불러올 사회 변화를 말하면서 “대부분의 업무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교육은 대면이 필요하다. 친구 사귀기, 어울려 놀기 등 학교에서 물리적으로 행해지는 사회 활동은 절대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종일 틀어박혀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를 보니, 학교가 공부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주는 곳이란 걸 절감하게 됐다.”, “아이는 엄마 잔소리에 과묵히 학교를 그리워하고, 엄마는 학교 급식이 주는 소중함을 알게 됐다. 아이도, 학부모도 학교를 사랑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등등의 학부모 이야기는 학부모 관점의 학교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김미리, 2020.04.18.).

물론 그렇다고 하여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학교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학교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도 깨닫게 됨에 따라 추후 학교 교육은 이 양자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번 실험은 오프라인 등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다시 온다면 그때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고, 학교가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각 학교는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에 다가올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등교할 수 없을 때의 시나리오,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할 경우의 시나리오, 온라인 학습 약자를 위한 시나리오 등등 상황과 대상별 시나리오를 만들어둘 필요도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교육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의 공공 부문과 지역사회와 학부모 등이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해줄 때 학교가 재난 상황 속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정리·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의 실험을 토대로 재난 상황에서 학교가 챙겨야 할 핵심 사항을 열거하자면 온라인 등교 상황에서도 학습 효율성만이 아니라 전인교육 방향 마련, 학생과의 지속적인 소통 방법 마련 및 온라인 소통 역량 강화, 온라인 학습 약자의 학습 지원책 마련,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급식시스템, 교직원의 스트레스 및 건강관리 등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중 열악한 근무조건과 과로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보여준 헌신과 희생은 전국민을 감동시켰다. 감염병 재난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도 흔들릴 수 있다.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재난 초기에 국가와 사회가 필요한 지원을 제때 하지 못하더라도 학생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학교와 교사가 맡아야 할 핵심 역할이다. 재난 상황에서는 각 주체들이 자신이 최전선이고, 자신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할 때 사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당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학교 차원의 재난 상황 대비 교육 시나리오를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포함한 학교 자치기구가 감염병 등의 국가 재난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1) 이 내용은 박남기(2020.07)의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교육 주체별 대응 방안’을 수정·보완한 것임.

## 2. 교사의 역할과 대응

### 가. 재택 온라인교육 시기 (담임)교사의 역할 변화

온라인 교육 시기에 교사의 핵심 역할은 오프라인 수업을 대체할 수업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 또는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만일 이것이 핵심역할이라면 교사보다 훨씬 나은 수업을 하는 최고의 교사들이 세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교사가 별로 필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번 온라인교육 대실험 결과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교육에서 인간 교사의 역할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교사의 역할이 단순히 교과내용 학습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덕체를 포함한 전인교육이 되도록 돕는 것임도 부각되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을 비롯한 온라인학습 약자와 취약계층 자녀에게는 인간 교사와 학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참교육학부모회의 서울지부장은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 등교 시기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담임선생님들께서 아이에게 전화라도 한 번 해주시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모 신문 기사에 보면 온라인 개학이 이뤄진 뒤 남매의 교사들의 수업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서 종종 자녀 수업을 함께 듣는다는 고2·중3 두 자녀를 둔 이모(48·서울 양천구)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전민희, 2020.05.19.). 이씨에 따르면 “첫째 담임은 매일 아침 출석체크 안 하는 학생에게 모닝콜을 해주고 틈틈이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만, 둘째 담임은 연락조차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기사는 재난 상황에서 온라인교육이 시행될 때 교사에 대한 학부모 기대 특성을 잘 보여준다. 많은 선생님들이 전화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혹은 다음의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학교와 교사는 온라인 교실을 만들고, 그 교실을 통해 또는 문자와 이메일,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과 1대1 관계를 맺으며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학생의 학습, 생활, 건강을 챙기는 역할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소통과 챙김이 국가재난으로 인해 온라인등교가 지속되는 시기에 교사가 해야 할 핵심 역할의 하나이다. 물론 오프라인등교 시기에도 이러한 노력은 병행되어야 한다.

학생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것이 학부모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다. 한 선생님이 소통을 위해 학부모에게 보냈던 편지글에서 선생님들의 소통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글에서 보는 것처럼 선생님들끼리 서로 벤치마킹하며 역량을 키워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휴업 연장과 온라인 개학 관련 대국민발표를 했고, OO도의 최OO샘은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느라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온라인 편지를 썼습니다. OO샘 글이 좋아서 글을 내방식대로 다듬고 약간 살을 붙여서 15분 만에 우리반 부모님들께 드리는 글을 완성했습니다. 마침 오늘 매년 해오던 학급 부모밴드를 만들어서 첫인사글로 아래 글을 올렸네요. OO샘 덕분에 힘 받아 이렇게 또 한걸음 내딛습니다.

OO초 6학년 0반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바쁘고 힘든 날을 보내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가정과 일터에서 가족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매일 애쓰시는 부모님들의 등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라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어제 3차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70년 교육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난관들로 인해 이겨내기 쉽지 않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우왕좌왕 하지 않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다함께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교육부, 교육청과 협력하며 차분히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추가적인 개학연기로 온라인 학급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학생의 건강 확인, 출석체크, e학습터 가입과 참여 독려, 학생 단톡방 운영 및 개별적인 학습 피드백 제공, 학부모님과의 지속적인 소통 등 여러가지를 시도했습니다만, 마음만 앞서고 미숙한 부분도 있어서 긴 휴업기간 중에 있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을 오히려 힘들게 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학습 과제에 열심히 참여하고 인증샷을 보내는 아이들과 수고가 많으시다면 감사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반 부모님들의 응원 덕분에 저는 더욱 열심히 우리반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이라는 처음 가보는 일 길도 지금처럼 우리부모님들이 계속 협조해주시고 따뜻한 응원을 해주신다면 우리 6학년 4반은 충분히 이겨내고 더 놀랍게 성장할 것입니다.

혹시나 학급운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온라인 개학 준비와 운영에 관해 제안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학급 부모밴드를 통해서 온라인 학급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부모님들과 폭넓게 소통하면서 멋진 6학년 4반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모쪼록 환절기에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개인 페이스북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온라인 재택 학습 기간에는 학생 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그러하지만 이 시기에는 특히 부모들이 교사의 지원 하에 자녀교육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교사가 부모교육자의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견되면 그 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모가 취약계층이어서, 혹은 무관심해서 자녀를 방치하는 경우가 발견되면 학교, 지역사회, 교육청과 함께 그 학생을 돌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실험을 바탕으로 파악된 온라인 등교 시의 교사 역할을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청은 교사들이 해당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사들은 새로운 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길러가야 할 것이다.

온라인 개학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된 것이 온라인학습 약자의 학습 격차 심화 문제이다. 온라인학습 약자 문제는 교사 주도 하에 학교, 지역사회, 교육청, 학부모단체가 힘을 모아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교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파악하고, 각각의 학생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온라인학습 약자 문제 해결책은 별도로 논의하겠다.

#### 나. 취약계층 학생의 생활 챙기기

온라인교육 시기의 교사 역할 중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취약계층 학생의 생활 챙기기 이다. 등교 시에는 매일 살펴보면서 학생의 생활과 건강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식사 챙겨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재택 “온라인 수업에서 교사는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이 오프라인에서 잘 돌아가게 관리하고 온라인에 집중하게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예컨대 온라인으로 사회 교과서 셋째 줄을 읽어주는 것보다 학교에 못 오게 된 극빈층 아이들이 굶지 않게 밥을 챙겨주고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 (김미리, 2020.04.18.)라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디지털 교육 전문가 이수인 대표의 이야기는 등교하지 못하고 재택 온라인학습을 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자녀를 위해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이번의 경우에는 등교 개학을 하지 못한 채 곧바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 탓에 교사와 학생들이 만난 적이 없고,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 상

황이 그리하여 교사들이 취약계층 학생들을 제대로 챙기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상당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일일이 온라인을 통해 혹은 오프라인으로 가정방문을 하여 학생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기도 했다. 온라인 수업 준비로 바쁘겠지만 이 시기의 담임교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취약계층 학생들의 삶을 챙기는 것임을 기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이번 교육대실험을 토대로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자체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은 스스로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피고, 나아가 학교의 도움이 필요한 것, 혹은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등을 살펴 학교장과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 다. 교사의 온라인교육 역량 강화

교사 인식과 역량 측면에서 보면 필요성이나 효과성은 인식하면서도 두려움으로 온라인 시스템 사용을 주저하던 선생님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시스템 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그 가능성과 한계를 깨닫고, 나아가 대면 교육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아이디어를 얻어가고 있다.

이 과정 중에 이미 동기화되어 있는 학생들은 인터넷 학교에 탑재되어 있는 콘텐츠를 통해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음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교사의 핵심 역할은 학습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포함한 학습 약자들을 돕는 것임이 더 뚜렷해졌다. 이번의 경험은 개인 교사가 제작·제공하는 교육용 콘텐츠보다 훨씬 뛰어난 콘텐츠가 많다는 것이 드러남으로써 온라인 등교 시기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등교 시기에도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 라. 재택학습 강점 활용 프로그램 준비

전염성이 극히 높은 코로나 19의 특성에 비춰볼 때 치료제나 예방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등교했다가도 감염자 증가로 인해 다시 재택 수업으로 전환하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인류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국경 폐쇄나 자택 격리 등의 대인 접촉 축소,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 등의 바이러스 예방 등 원시적인 대응 이외에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이 코로나19 사태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국가 재난 위기는 향후에도 반복될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교육 조건이다. 그렇다면 재택 학습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집에서만 가능한 활동을 학습활동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눈만 뜨면 아이들이 학교에 갔던 상황에는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기회나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할 기회가 적다. 아이들이 가사일 도울 기회를 갖기 어렵고, 엄마와 함께 식사 준비나 요리를 할 기회를 가질 수도 없다. 종일 학교나 학원을 전전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학습이나 자기 관리력을 기를 기회가 없다.” 등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그렇다면 재택 학습 기간은 그동안 아침 일찍 등교하느라 놓쳤던 많은 것들을 직접 해보며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교사들이 학습 활동을 계획할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잘 연결시키면 학생들은 삶과 교육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삶이 곧 배움의 과정임을 깨달으며 배움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2020.05.14)가 교육부와 함께 2020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실시한 ‘온라인 개학’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4.7%의 부모가 온라인 개학에 만족하는 이유로 ‘가족이 함께 공부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을 들었다.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온라인 재택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1)가사활동을 학습활동으로

세탁·청소·요리하는 방법이 포함된 실과 과목은 재택 수업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핀란드의 원격수업 사례를 소개하는 이길호(2020)에 따르면 “8학년 Eelis Löfgren은 코로나 긴급 상황에서 빵과 아메리칸 팬케이크, 죽 요리, 오믈렛 튀김을 만들었다. 7학년 Luukas Matihaldi는 손과 기계로 세탁물을 씻고 햄 파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동영상으로 찍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한다.” 아마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이미 유사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요즘 아이들은 집에서 호텔 투숙객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집안일을 돕기는커녕 빨랫감을 방구석 아무 곳이나 던져놓고, 욕실바닥의 머리카락도 치우지 않으며, 자기 방도 전혀 정리하지 않는다. 그동안에는 아이들 등교 후 엄마들이 호텔 청소부처럼 모든 것을 정리해주었다. 선생님들이 이번 온라인 등교 기간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그동안 교육시키지 못했던 것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배움과 삶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깨달으며 배운 것을 곧바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될 것이다.

가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글로 쓰게 하는 것은 국어과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르친 청소와 세탁법을 활용하여 집안 전체 청소, 가족들의 옷 세탁 등을 하게 하면 힘들고 싫다는 생각과 더불어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가사 활동을 하면서 어머니의 노고를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가사노동과 성 역할 및 성 평등에 대해 자료를 찾고 프로젝트를 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정에서의 활동 중에서 교육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많다.

#### 2) 재택 학습 상황 활용 교육

재택 학습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예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하면서도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표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르도록 시켰다. 재택 학습의 경우에는 온라인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아닐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매일매일의 시간표를 재구성하고 이에 따라 학습하게 하고, 잘 안된다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 차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 혼자서 해내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학습도우미 혹은 방문 학습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도움을 줄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요새 학생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자기관리력을 길러줄 수도 있을 것이다.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학습에 있어서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학생들은 성장해갈 것이다.

#### 3) 재택 학습 환경 강점 찾아보기

모처럼 주어진 재택 학습 기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보살핌을 받는 수동적인 가족 일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 “여러분이 재택 학습을 함으로써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한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요? 가정에서 바람직한 자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에게 학교란 어떤 의미인가요? 등등의 질문을 제공하고 답을 찾아가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 그러면 학생들은 가족의 의미, 학교의 의미를 새롭게 찾고, 자신의 역할도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면 학생들 스스로 재택 학습을 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자신과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와 교사는 온라인학습의 문제점에 압도되지 말고 발상전환을 통해 재택 학습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축적함으로써 다가올 국가 재난 위기 상황에서의 교육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3. 학부모의 역할과 대응

#### 가. 온라인 개학 만족도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2020.05.14)는 교육부와 함께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8일간 ‘온라인 개학’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부모 580명을 포함해 일반국민 1,099명이 참여한 온라인 개학 만족도 조사 결과, 학부모의 61.2%가 만족한

다고 응답했다. 초등학교 학부모 66.5%, 중학교 3학년 학부모 45.1%,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 37.5%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학교 급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부모 중 81.1%가 그 이유로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이기 때문'을 들었다. '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하기 때문'이란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가족이 함께 공부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4.7%였다. 설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학부모들의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만족도는 극히 낮다. 만족 이유의 하나로 '가족이 함께 공부하는 것'을 든 것은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별도로 다루겠다.

온라인 개학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적절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 60%로 가장 높았고 '교육 콘텐츠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 27.7%,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 5.6%로 나타났다. 그 외에 '저학년·맞벌이 학부모 부담 과중', '학교의 관심 정도에 따라 교육 편차 발생', '서버·접속 불안정', '과도한 컴퓨터·스마트폰 사용' 등이 있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제시한 온라인 개학 개선 의견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 간 편차와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 또는 각 교육청이 주관해 학생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학년별 공통 콘텐츠를 개발해 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3학년 우선 등교', '요일별 등교(학년별 중간점검)', '교사-학생 양방향 소통(원활한 질의·응답) 방안 마련' 등의 개선 의견이 주를 이뤘다. 중·고등학교 3학년 우선 등교를 원하는 주된 이유로 '학력 격차 발생'을 가장 많이 꼽았는데 이는 학교와 달리 학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집안 형편에 따라 그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불안감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사교육기관이 온라인학습 약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기관이 부재한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온라인학습 약자의 학습을 지원하는 공간과 인력을 제공한다면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만은 크게 줄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번 기회에 온라인교육 플랫폼을 강화하고 향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어린이 온라인교육 강국으로 거듭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제안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원격교육체제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녀교육 관련 학부모의 역할

학부모의 관점을 대변하는 조직의 하나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교육학부모회)가 있다. 참교육학부모회(2020.04.01.)는 교육부가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자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지원체계를 촘촘히 마련하라'는 취지의 논평을 발표했다. 교육부 제안한 것은 1) 교육개혁의 과제로 제시되었던 수업시수 감축, 학급당 학생 수 감소, 과목 수 감소, 학습난이도 낮추기 등 과감한 교육개혁을 실현하는 계기로 삼을 것, 2) 마을 안에 소규모 돌봄 체계를 구축할 것, 3) 온라인학습 환경 차이를 철저히 점검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4) 학대·방임·장애 아동 등등 사회적 돌봄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철저한 점검 시스템을 갖출 것, 5) 교육 3주체인 학부모, 학생, 교사의 원활한 소통 체계를 구축할 것 등이다.

교육부가 등교 개학을 발표하자 참교육학부모회(2020.05.06.)가 다시 논평을 냈다. 교육 당국에 대한 제안의 핵심은 1) 온라인학습체계를 안정되게 구축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 2) 수업과 급식 등 교육활동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역지침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 3)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에 적합한 방역 대책을 세울 것, 4)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등 획기적인 수업시수 조정 방안을 제시할 것 등이다. 이 논평에도 교육당국에 대한 제안만 있을 뿐 학부모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온라인 개학과 관련하여 참교육학부모회가 교육부에 제안한 것은 국가가 위기 대응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잘 담겨 있다. 이 제안은 위기 대응 교육 시스템 구축에 의미 있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있다. 교육 3 주체의 하나로서 자신들은 위기 대응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떤 역할을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코로나19 방역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각 개인이었듯이 국가의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가정과 학부모이다. 차제에 학부모 단체는 재난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국가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 단체가 나서서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소외되는 아이들이 급증할 것이고, 많은 학부모들은 각자도생하게 될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가 제안한 '마을 안의 소규모 돌봄 체계 구축'의 주체는 마을 단위 학부모단체여야 한다. 동 단체 제안의 핵심은 국가가 나서서 '학부모가 마을



과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 체계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새로이 구축' 하고, '학부모는 집 가까운 곳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동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소규모 돌봄 체계' 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마을 단위의 학부모 단체여야 할 것이다. 재난 대응을 위해 마을단위 민방위군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동하듯이,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학부모 단체들이 주도하여 마을단위 소규모 돌봄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재난 대비 긴급 소규모 돌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지속적으로 반복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훈련은 긴급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평상시의 자녀 공동 교육에도 기여할 것이다. 시스템을 갖추는 데, 그리고 평소 훈련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훈련비용이나 소정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등교 개학에 대해 논평에서도 참교육학부모회는 “수업과 급식 등 교육활동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역지침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한다.” 등의 요청만 할 뿐 위기상황에서 학부모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학부모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등교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급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맞춰 급식실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 기준에 맞추려면 전체 학생 급식 시간이 2배 이상으로 길어진다. 그리고 활동성이 강한 초중고생들의 특성상 급식실로 이동하면서, 급식실에서 식사를 할 때,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국가가 제시한 기준을 지키기가 어렵다. 등교 개학으로 인한 감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초등학교 저학년만이 아니라 3교시만 혹은 4교시까지 마치고 식사하지 않고 귀가 조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면서도 점심은 학교가 책임져주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완전무상급에 익숙해진 결과일 것이다. 평소 등교시 스위스는 점심시간이 두 시간이나 된다. 점심시간이 되면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도록 아이들을 돌려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녀 점심을 챙겨주기 어려운 맞벌이 부모들은 품앗이 형태로 혹은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엄마들에게 부탁하는 방식으로 점심을 해결한다고 한다. 뉴질랜드는 과거 우리나라처럼 모든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하고 등교한다.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 위기 상황에서 등교를 해야 할 때에는 학생들의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학부모 단체가 주체적으로 급식 중단을 요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다만 가정 형편상 점심을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도 재난 위기 상황에서 부모의 교육 주체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학부모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점심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가 진정한 교육주체로

서의 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때에만 재난 상황에서의 교육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될 것이다. 시민정신의 핵심은 사회적 책임과 참여이다(박남기, 2018: 176-179). 국가나 사회 혹은 다른 주체에게 요구만 하는 것은 민주시민단체가 아니라 이익단체에 불과하다. 이익단체도 넓은 의미에서는 일종의 시민단체이지만 교육의 한 주체로서의 학부모단체는 이익단체를 넘어서 사회 발전의 한 주체로서 직접 기여하는 좁은 의미의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 4. 학생의 역할과 대응

##### 가. 대응책 마련 과정에 학생 참여 기회 확보

온라인개학, 등교개학 시행 과정에 학생들의 목소리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위기 상황이기에 대응책을 마련할 때 학생들의 목소리까지 들을 겨를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야만 감염병 재난 위기 상황에서의 교육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마련 과정에서 학생들을 배제하는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핵심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듣고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 교육청, 학교, 학급 차원에 모두 적용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겠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학생 참여 주장은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 바탕이 되는 것은 학교자치제도 확립이다.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는 심지어 투표권을 갖고 있는 학생도 많다. 최소한 고등학생 학생회가 전국단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대표를 통해서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정부와 교육청은 대책 마련 과정에 학생을 참여시킬 것이다. 고등학생 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차체에 전국고등학생연합회를 구성하고, 자신들과 직결된 정책 결정과정에는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참여하면 학생들이 결정된 대책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 대신 그러한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며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따르게 될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관련대책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여시키고, 그 회의록을 온라인 실시간 공개로 진행하면서 학생대표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 나. 온라인학습 피드백 시스템 구축 및 역량 강화

온라인학습 비중은 코로나19 이후보다 훨씬 높아지게 될 것이다. 온라인수업을 하는 교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온라인학습을 하는 학생들도 힘들다. 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인강보다 훨씬 재미없는 수업, 유튜브 동영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질 낮은 동영상 등 불만이 아주 클 것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사가 그러한 정도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이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교사들의 온라인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모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대학에서는 강의평가제가 정착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온라인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요청사항 등을 일반화한 후 전체 교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교가 이를 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전국고등학생연합회 네트워크가 나서서라도 그러한 활동을 전개해볼직하다. 이러한 시도는 온라인교육의 질을 높이고,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온라인학습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을 지속하려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 나아가 젊음의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한 제반 노력은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때, 그리고 학습과 성장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결실로 이어지게 된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학습자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는 학습자로 거듭나는 것이 감염병 위기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 방안이다.

#### 5. 민간 교육기관의 역할과 대응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질 높은 교육을 지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 주도가 아니라 관과 민간이 협력하는 민관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재난 위기 상황에서 민간기업의 참여와 협력이 없었더라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교육 실시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번을 계기로 다양한 민간 온라인교육 플랫폼이 공교육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박기은, 2020.04.23.)

온라인 재택 학습의 경우 교사가 모든 학생들을 다 관리하기 어렵다보니 사설학원들이 오전 9시부터 학교 정규수업 시간표에 맞춰 공부를 도와주는 ‘온라인 개학 관리반’을 운영하고 있다(김주연, 2020.04.23.). 온라인학습 효율성 차원에서 본다면 사교육기관의 기여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사교육기관은

없어져야 할 기관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다.

위에서 말한 에듀테크 산업도 일종의 사교육기관이다. 사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느껴지다가도 에듀테크 기관 혹은 에듀테크 기업이라고 하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용어가 가지고 있는 마술이다. 양자의 차이는 기존의 사교육기관은 대인 강의 위주였다면, 하이테크 기업은 AI를 비롯한 다양한 하이테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교육 활동을 돕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향후에는 공교육만이 아니라 사교육도 에듀테크 기반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될 것이다.

한준상(2005)은 사교육이 국가의 교육력 제고에 보탬이 되는 ‘민’ 주도 교육 혹은 ‘민간교육’으로 바라 봐야함을 역설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사교육은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지나 강력한 규제가 불가능하다. 갑작스런 온라인교육 전면 실시 상황에서도 에듀테크 기업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사교육기관도 오프라인 교육 공백을 메꾸는 데 기여를 했다.

교육에서는 공교육이 개인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사교육 변장의 한 이유가 되고 있다. 보편 교육을 제공하는 관 주도 교육의 특성으로 인해 공교육은 개인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힘들다. 더욱이 위기 상황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가 더욱 어렵다. 민간교육의 변화 적응력, 나아가 위기 대응능력은 관 주도 교육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 공교육이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 특히 온라인학습 약자 교육 부분을 사교육기관이 분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예산을 마련한다면 위기 상황에서 소외된 집단을 줄이며 교육의 질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대상 설문 결과, 온라인 등교기간동안 강제 휴원 등 학원에 대한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9.6%에 이를 정도로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오창민, 2020.05.20.).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계층간 교육격차 심화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의 경우처럼 온라인교육 약자들의 교육방치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이 문제를 모두 공교육 기관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사교육기관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즉, 온라인학습기간 동안 온라인학습 약자들에게 사교육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면 사교육은 오히려 온라인교육으로 인한 학습 격차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사교육을 단순히 사회악으로 규정하거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교육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 차제에 사교육이 평상시에만이 아니라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교육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박남기, 2020.03).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한국형 원격교육 정책자문단에 에듀테크 기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것처럼 국가 재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위기관리단을 구성할 때에는 사교육기관 대표를 참석시켜 이들의 위기대응 역량, 시설, 인력을 국가가 흡수·활용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현실의 상황과 사교육의 교육력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사교육이라는 부정적인 표현 대신 민간교육으로 용어와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사교육이 평상시와 위기시의 국가교육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관련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II. 온라인학습 약자 대책

‘온라인학습 약자’라는 용어는 필자가 만든 용어이다. 이번 온라인 교육대실험 결과 가장 부각된 것이 온라인학습 약자 문제이다. 여기서는 온라인학습 약자 개념과 범위, 온라인학습 약자 방치 상황, 그리고 이 학생들을 도울 방안을 별도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온라인학습 약자 개념

이번 실험을 통해 크게 부각된 것이 온라인학습 약자 문제이다. 교통약자는 일반 교통 시설과 체계에서는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따라서 추가 시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한다. 온라인 학습 약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학습 프로그램과 지원 시스템 하에서는 제대로 학습하기 어려운 학생들, 그래서 추가 시설과 기기,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의미한다. 이들을 특별히 배려하지 않으면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다른 학생들과의 학습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된다.

온라인학습 약자라고 하면 보통은 재택 온라인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인터넷과 기기 그리고 공간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 시설과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떠올리게 된다. 온라인 학습 약자의 개념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설비와 기기만이 아니라 온라인 학습을 지원할 학습도우미(부모) 존재 여부이다. 이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 자녀들은 온라인학습 약자에 속한다.

원격으로 진행되는 온라인수업과 학습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려면 인적 물적 여건 구비는 필요조건이다. 이에 더해 온라인 수업을 받는 학생 변인이 온라인수업 특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충분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온라인학습 약자는 앞에서 말한 여건 미비 학생들만이 아니라 혼자서 학습이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교육 대상자 및 특수교육 경계선 학생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 학습동기와 집중력 및 자기 관리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포함된다.

온라인 원격 학습 상황에서는 교사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들의 학습 결손 문제가 더 심화된다. 온라인 수업 대실험 결과 학업 수준에서 중위권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김영수·강려원, 2020.09.18.; 이덕영, 2020.10.10; 이유진, 2020.07.08; 전승엽·김정후, 2020.08.22.)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이러한 원격 온라인 학습 약자들이 방치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온라인학습의 특성

비대면 온라인학습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탈피를 비롯한 여러 강점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특성, 학습의 특성, 에듀테크 기술 수준,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실시간 수업에 대한 투자 수준 등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학습의 효과를 믿으며 추진해왔던 사람들도 그 한계를 느껴서 비대면 온라인학습이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교사와 함께 하는 대면학습이 병행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혼합학습(blended learning)을 주창하고 있다. 공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연령대의 학생들이 하루 종일 조그마한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혼자서 집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혹자는 학교가 여지껏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길러주지 못한 탓이라며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길러주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한다. 물론 온라인 학습 역량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길러주면 조금은 더 낫겠지만 성인인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즉 자기 통제와 집중의 한계를 가진 인간의 특성에 비춰보면 이는 타당한 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만든 오락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가 어렵다. 그런데 속성상 재미있기 힘든 학습 프로그램을 저예산, 저인력으로 제작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 3. 온라인학습 약자 방치 부작용

2021년 수능 6월 모의평가 결과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영역에서 중위권의 규모가 줄고 하위권이 늘어나며 학력 양극화가 극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지민, 2020.07.28.). 중학교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크게 늘어났으며, 교사들에 따르면 원격 수업 이후 등교한 학생들 중에서 제대로 학습을 해온 학생들의 비율도 아주 낮다(곽수근·최원국, 2020.07.29.).

우리 정부는 우선 급하게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모두 관련 기기들

을 대여했다. 대여가 완료된 이후에도 교육청 단위 지원 태세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김도용, 2020.04.09.). 그런데 오프라인 학습에서 온라인학습으로 전환되면 디지털 기기와 접근이라는 물리적 환경 격차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의 관심과 온라인교육 지원 역량이라는 심리적·가정적 격차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교육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각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온라인교육 강화는 교육적·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

온라인 수업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학습 역량이나 흥미도가 낮은 학생들을 온라인 수업에 적극적 참여시키는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장애를 비롯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게서는 학습 효율성 문제가 더 심각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학생들은 온라인학습 시 학습도우미가 필요하므로 부모, 선생님, 그리고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학습 효율성 확보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집단이 있다.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저소득맞벌이 가정 등의 취약계층 자녀이다.

학습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 기간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만의 결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수학을 비롯한 여러 과목은 전 단계 내용을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학습이 어렵다. 온라인학습 효율성 제고 방안과 방치학생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하지 않으면 배울 내용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학생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프라인 개학을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가르친 내용을 다시 가르쳐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 결손을 경험한 학생들은 대면 개학 이후에도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는 이들의 학습 흥미도 저하로 이어져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온라인학습 효율성과 방치학생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학습 관련 데이터 연구자들에게 공개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공공기관이 관련 연구를 발주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학습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습이 일정기간 진행된 이후에는 기초학력검사를 절대평가 형태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개인 정보는 당사자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만 알도록 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이를 파악하여 그 데이터에 근거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 4. 온라인학습 문제점 완화 방안 모색

##### 가. 지역사회의 역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온라인 학습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부모의 관심과 온라인교육 지원 역량이라는 심리적·가정적 격차이다. 원격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각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원격 온라인교육 강화는 교육적·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 온라인교육에서는 오프라인 교육에서보다도 더 섬세하게 학습 약자를 배려하고 투자해야 한다.

원격교육 상황에서 학교가 이들을 모두 챙길 수는 없다. 국가, 교육청, 학교, 학부모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까지 함께 나서서 미래 시민인 이들의 학습과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등교가 어려운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학습 및 생활지도 방문 도우미 제도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온라인 학습 약자들의 학습 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부모의 아침과 오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손실은 국가가 보전해주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소규모 온라인 학습 방을 다수 설치하고, 여기에도 접근이 어려운 온라인 학습 약자에게는 교육 상품권을 주어 인근 학원교사의 도움이라도 받도록 할 필요도 있다. 바이러스 퇴치에 정부와 온 사회가 나서듯이 원격교육 지속으로 인해 발생할 학습 효율성 저하와 방치 아동 문제 해결에도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 나. 학교와 교사의 대응

각 학교는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 차원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등교할 수 없을 때의 시나리오,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번갈아 가면서 해야 할 경우의 시나리오, 온라인학습 약자를 위한 시나리오 등등 상황과 대상별 시나리오를 만들어둘 필요도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교육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의 공공 부문과 지역사회와 학부모 등이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해줄 때 학교가 재난 상황 속에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정리·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의 실험을 토대로 재난 상황에서 학교가 챙겨야 할 핵심 사항으로 드러난 것은 온라인 등교 상황에서의 학습 효율성만이 아니라 전인교육 방향 마련, 학생과의 지속적인 소통 방법 마련 및 온라인 소통 역량 강화, 온라인학습 약자의 학습 지원책 마련,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급식시스템 마련 등이다. 한 발 더 나아가 학교 부적응 및 이탈 학생 증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선생님과 학부모의

방치로 인해 온라인 등교 기간동안 늦잠을 자고, 학습을 소홀히 하는 습관을 갖게 된 학생들은 등교 개학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것이고, 최악의 경우 학교 부적응 학생,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학생만이 아니라 교직원의 스트레스 및 건강관리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학생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것이 학부모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다.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온라인 재택 학습 기간에는 학생 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그러하지만 이 시기에는 특히 부모들이 교사의 지원 하에 자녀교육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교사가 부모교육자의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견되면 그 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모가 취약계층이어서, 혹은 무관심해서 자녀를 방치하는 경우가 발견되면 학교, 지역사회, 교육청과 함께 그 학생을 돌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 IV. 에듀테크와 교육의 방향

##### 1. 미래형 교육의 사례

미래형 수업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호주의 '캔버라 그램머 스쿨'(Canberra Grammar School)에서 혼합현실(MR) 기기 '홀로렌즈'를 활용하여 생물·화학·물리·수학 수업에 활용한 예가 그것이다(성시운·윤석만·박해리, 2018). 이 외에도 세계 우수 학교에선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증강교실에서의 실감형 교육을 시키고 있다. 2013년 스웨덴의 한 학교에서는 컴퓨터 게임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했다. 마인크래프트(minecraft)라는 게임을 활용하여 도시설계, 환경문제 처리방법, 미래 설계 방법 등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Minecraft.net). 학생들은 게임을 즐기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이라고 하는데 학습 효과가 아주 크다고 한다(게이미피케이션). 이를 활용하는 학교도 증가하고 있다.

유튜브를 활용한 교육도 크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인천의 박경현 선생님은 자기 반 학생들과 함께 '꼬마 TV'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총 조회수 1000만 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교육적 효과가 크다. 금연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게 깨달으며 바른 습관을 형성해가고 있다(유정희, 2019).

최근 AI 교육 프로그램도 증가하고 있다. 국내 에듀테크(edu-tech) 기업인 클래스팅, 대교, 그리고 EBS 등이 제공하는 수학, 영어 AI 프로그램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향후 AI 교육 프로그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외에도 사례는 많은데 아직까지는 학교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 2. 에듀테크 기반 교육의 한계

인간 교사와 에듀테크가 결합되면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배워야 할 것을 즐겁게 배우며 행복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르치는 사람들도 보람을 느끼며 가르치는 기쁨을 더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와 달리 신기술이 교육에 널리 접목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갑작스럽게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면서 신기술이 널리 접목되지 못하는 이유, 신기술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신기술을 교육과 접목시키기 위한 에듀테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새롭게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에는 인간 교사가 무능하여 학생들이 학습 동기를 상실하거나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며 신기술을 활용하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온라인 학습을 시키려고 보니 다른 측면이 드러났다. 에듀테크를 활용하더라도 그러한 학생들을 배움의 세계로 이끌려면 인간 교사가 곁에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 예가 보여주는 것처럼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교육이 성공하려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 가. AI(인공지능)와 IA(Intelligence Amplification, 지능증폭)

AI 발전에 따라 교육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다. 그러나 자칫 제3차 AI 빙하기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1956년에 AI와 함께 대두된 개념으로 IA(Intelligence Amplification, 지능증폭)가 있다.<sup>2)</sup> IA는 자연어 도구, 이미지 처리 도구 등을 통해 인간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은 IA 장치이다. 우리가 주차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사방 카메라, 차가 다른 물체 근접시 울리는 경보시스템 등은 IA 시스템이다. 반면에 스스로 알아서 좁은 공간에 주차하는 시스템은 AI이다.

AI가 인간과 독립된 시스템이라면 IA는 '인간의 지능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의

2) 지능 증폭은 보조 지능(assistive intelligence), 증강 지능(augmented intelligence), 인지 증강(cognitive augmentation) 또는 기계 증강 지능(machine-augmented intelligence)으로도 알려져 있다(Techopedia. Intelligence Amplification).

사결정, 다양한 기능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AI가 훨씬 더 발달된 시스템이다. 그런데 AI가 혼자 주차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일으키면 억울하지 않을까? AI의 도움을 받되 결정과 실행은 인간이 할 경우에는 인간의 역량까지 더해지지만 AI에만 의존하려고 할 경우에는 AI보다 뛰어난 HI(Human Intelligence)의 스위치를 꺼놓는 셈이 된다. 의료계의 경우에도 아직은 AI를 진단과 치료 방향 판단을 위한 보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최종 판단은 인간이 한다. 동시에 다양한 IA 장치의 도움을 받아 인간 의사의 역량을 크게 높이고 있다.

#### 나. 교육에서 IA 개념을 소환하는 이유

이미 오래된 IA라는 개념을 다시 소환하는 첫째 이유는 AI 기반 개별화 학습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분야 AI 기반 프로그램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어느 하나의 특정 기능에서는 AI가 인간교사보다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AI에 주로 의존하며 교육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많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인간교사의 고유 역할 및 AI의 대체 한계이다. AI가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자연어를 사용해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소통하는 단계로 진화한 것을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 한다. 이 수준으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학습 동기 유발, 지식전달이 아닌 고급역량 육성,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비롯한 전인교육 등의 복합적이고 복잡한 교육활동에서는 AI가 인간교사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에듀테크 상황에서는 인간교사를 뒷전으로 밀어내는 전략보다는 인간교사가 AI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에듀테크 발전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 만이 아니라 인간중심주의에도 더 부합한다. AI 기반 교육을 맹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교사의 교육 역량과 학생의 학습 역량을 키우게 할 것인가, 즉 에듀테크가 IA 역할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때 교사와 학생의 에듀테크의 활용도와 친숙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에듀테크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의 하나이다.

에듀테크를 통해 만들어진 것들은 교사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들이다. 인간교사는 AI나 에듀테크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이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역량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깨닫고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아가 자신의 교육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IA 시스템이나 기기가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이를 개발하도록 에듀테크에 요구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할 때 AI가 인간

교사를 대체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교사가 AI를 보조교사로 활용하며 자신의 역량을 증폭시키고, 자신도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 3. 섬세한 인간 친화적 에듀테크

에듀테크를 발전시켜갈 때 먼저 고민할 것이 있다. 학습활동 차원에서는 학생 특성에 대한 가정, 교육활동 차원에서는 교육자의 역할과 특성에 대한 가정이 바로 그것이다. 강한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어떠한 학습 장애 요인과 마주하더라도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오히려 이를 디딤돌 삼아 자신을 발전시켜갈 수 있다. 학생들이 오감을 활용하여 학습하도록 돕는 에듀테크는 동기화된 학생들이 더 높은 배움의 세계로 날아오르도록 돕는 날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움에 대한 열의가 전혀 없거나 기피하는 학생들이다. 이들을 위해서 에듀테크가 해야 할 역할과 에듀테크 프로그램의 방향은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 AI가 학습에 무관심하거나 학습을 거부하는 학생들이 배움에 관심을 갖고, 궁극적으로 배움의 열정을 갖도록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아직도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AI를 비롯한 다양한 에듀테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간 교사가 이러한 역할을 할 때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인간 교사와 협업하며 그들을 돕는 방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교사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접근한다면 교사들은 굳이 이를 사용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인간 뇌의 시냅시스 형성을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기 전까지 즉, 학습할 내용을 뇌에 직접 다운로드를 할 수 있기 전까지는 에듀테크의 핵심 역할이 인간의 본성과 뇌 학습 원리를 바탕으로 학습자와 교육자를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가령 게임 프로그램이 인간 뇌의 중독적 특성을 활용하여 학생을 사로잡듯이 학습 프로그램을 비롯한 AI 튜터도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호기심과 배움의 기쁨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배움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에 중독되도록 이끄는 방향으로 에듀테크가 발전해야 한다.

에듀테크는 학습자가 즐거움 속에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돕고, 교육자가 학습자를 배움의 세계로 이끌 때 느끼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학습자와 교육자 친화적이고, 배움과 가르침의 수고를 덜어주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기쁨까지 느끼도록 할 때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한 발 더 다가올 것이다.

#### 4. 현실의 필요에 부응하는 에듀테크

에듀테크를 활용한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려면 우선 현실의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 가령 고급역량 평가를 위해서는 구술이나 논술형 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비용과 더불어 평가 결과의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 확보 때문에 모두가 민감한 고부담 시험(예: 대입 관련 시험)에서는 이를 제대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AI가 자연언어를 제대로 처리하고 평가할 역량을 갖춘다면 평가 관련 문제는 쉽게 해결되겠지만 앞으로도 한동안을 기다려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듀테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딥 러닝과 자연어 처리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학습 성과를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행위 자체도 분석하고, 관련 빅데이터를 축적·활용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보 검색 및 상호 작용 지원 프로그램, 학습동기 유발을 비롯한 학습 원리에 부합하는 개인 맞춤형 교육용 소프트웨어, 학습자와 교수자를 돕는 정교화된 피드백 시스템, 인공지능 튜터 개발도 필요하다. 에듀테크가 잘 발달한다면 학습자의 수준과 진도에 맞는 내용 제공, 데이터 분석 기반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 에듀테크가 열정적인 학생만이 아니라 학습 흥미가 부족한 학생이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도울 수 있으려면 에듀테크 전문가들이 교육학, 심리학, 철학, 뇌과학, 뇌기반 학습 전문가들과 함께 융복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 에듀테크가 만들 환상적인 가르침과 배움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꿈꾸는 교육과 학습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 V. 스말로그교육

#### 1. 교육 새 패러다임 등장의 필요성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학교 교육도 온라인 비대면이 뉴노멀이 되어야 할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은 그것이 아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인간의 특성, 교육의 특성, 그리고 에듀테크의 현주소 등에 적합한 바람직한 교육 뉴노멀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 바람직한 뉴노멀은 혼합학습이나 혼합수업이 아닌 스말로그교육이 되어야 한다.

스말로그교육이라는 용어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육과 전통의 대면 아날로그식 교육을 조합한 용어이다. ‘스마트교육’은 이명박정부 때 스마트 폰에 사용되던 ‘스마트’라는 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만든 신조어이다. 스마트(SMART)는

Self-directed(자기주도), Motivated(학습흥미), Adaptive(수준과 적성), Resource Enriched(풍부한 자료), Technical Embedded(정보기술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스말로그교육에서 말하는 스마트교육은 이명박 정부의 의미를 포함하지만 그 핵심은 스마트 기기, 다양한 앱을 포함한 첨단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교육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온라인교육 혹은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스말로그(smart+ analogue) 교육 필요성이 강조되었지만(박남기·임수진, 2015)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행에 옮긴 교사들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많은 교사들이 온라인 시스템 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깨닫게 되었다. 아울러 대면 교육 상황에서 에듀테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었다. 짧지만 집약적인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교사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교육을 병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학습을 체험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스말로그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더 커질 것이다.

#### 2. 스말로그교육과 혼합학습 및 혼합수업과의 관계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유사 용어와의 관계를 밝혀보는 것이다.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혼합학습(블렌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은 2000년 후반 온라인교육 주창자들이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개념이다(김현섭, 2020). 즉,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원격의 온라인교육을 주축으로 하되, 원격 온라인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거기에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을 더하는 의미로 사용된 개념이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등교(대면)와 재택학습(비대면)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도 외형상으로 보면 일종의 혼합학습이다. 혼합학습을 주창했던 사람들은 이 방식이 대면교육만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고 했지만 코로나 19 상황에서 강제로 실시된 실험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학습효과는 크게 떨어졌다. 그 이유의 하나는 이러한 혼용 등교 방법은 원래 혼합학습을 주창했던 사람들이 생각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혼합학습이 효과가 있기 위한 전제조건 즉, 학습자의 강한 학습동기, 이를 설계하고 이끌 유능한 교사, 기대하는 수준의 콘텐츠 등의 요건이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사용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수업(Hybrid Instruction)도 온라인 수업을 위주로 하면서 오프라인 수업을 보완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혼합학습은 학습자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고, 하이브리드 수업은 가르치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 개념일

뿐 지향하는 바는 같다. 이 둘 다 디지털 비대면을 중심으로 하면서 대면 수업과 학습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비대면 초점형 수업과 학습을 일컫는 용어이다.

스말로그교육은 학교와 인간교사가 주도하는 전통의 대면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서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첨단 에듀테크 활용을 최대화하는 대면 초점형 교육이라는 점에서 혼합수업 혹은 학습과 차이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면과 비대면이 물리적으로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되겠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교육 주체는 인간교사임을 강조하는 개념이 스말로그교육이다.

### 3. 스말로그교육 개념 범위

혼합수업 및 학습은 디지털 원격 수업 및 학습 매체 활용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면 스말로그교육은 매체 활용을 포함하여 미래사회 교육의 큰 틀 전체를 염두에 둔 개념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매체 차원에서는 대면 중심 첨단 에듀테크 융합형 교육을 의미한다.

학생의 특성과 교육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미래에도 초중등교육은 오프라인 학교에서 매일 학생들을 직접 만나 가르치는 선생님을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학교와 교실은 홀로렌즈 등을 활용한 증강현실, 나아가 다양한 첨단 에듀테크 시설을 갖춘 학습 공간이 되어야 하고, 교사는 온라인 플랫폼과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며 학생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스말로그형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되, 교사의 조력 하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오전의 모습이다.

오후에는 학교 밖의 학교, 교실 밖의 교실 즉, 지역사회의 다양한 센터에서 동아리 활동, 삶의 기술 체득활동, 진로 탐색 활동, 직업체험 등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스말로그교육이 지향하는 바이다. 이러한 변화가 성공한다면 학생들은 기존 학교와 선생님이 지도하는 아날로그 교육의 강점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시에 첨단 에듀테크와 지역사회 다양한 센터 활용 교육까지 함께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만드는 것, 그것이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다.

### 4. 스말로그교육과 미래사회 적합성

박남기와 임수진(2015: 387-389)이 제안하는 스말로그교육의 전제는 “그 대상을 미성숙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존중받는 한 ‘개인’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미래의 아이들이 개별화된 학습자 중심, 지식 중심, 학생의 수준을 파악하여 수준에 맞는 수업 설계를 통한 평가중심, 바깥세상과의 연계성과 규범을 중시하는 공동체 중심의 교실 환경에서 학습하게 될 것이다. 스말로그교육의 한 부분인 ‘스말로그 학급경영’은 이러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의사소통 시스템 혁신과 새로운 학급문화 형성’을 지향하는데 이는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형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다.

“스말로그 학급경영 개념의 도입은 비록 스마트교육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은 면대면 만남 속에서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는 활동이라는 대전제에 부합한다. 나아가 스마트교육과 스마트 학급경영의 한계를 이유로 들어 강하게 거부감을 표하는 현장 교사들의 거부감을 줄이게 될 것이다.” 라고 박남기와 임수진은 주장하고 있다.

## V. 결론

이 논문은 코로나 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진행된 온라인 원격교육 상황 속에서 관련집단의 역할과 대응 방향, 온라인 학습 약자 문제, 에듀테크의 가능성과 한계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한 바람직한 교육 패러다임 탐색을 시도했다. 미래 사회 흐름을 읽고자 하는 이유는 거기에 부합하고자 함이 아니다. 가능하면 노력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만들기 위함이다. 나타날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그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오늘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밝히기 위함이다. 교육 새패러다임 탐색은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 모습을 그려보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 논문이 우리 교육계의 그러한 노력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인터비즈.  
<https://m.blog.naver.com/businessinsight/220985989340>
- 곽수근·최원국(2020.07.29.). 주1회 등교 수업에... 구구단이 위태롭다. 조선일보.  
<https://bit.ly/34rtbF4>
- 국민권익위원회(2020.05.14.). ‘온라인 개학’ 학부모 만족도 학년별로 큰 차이.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김도용(2020.04.09.). 교육부·17개 교육청에 상황실...비상운영체제 운영.  
<https://bit.ly/2W6XH1e>
- 김미리(2020.04.18.). 학교가 멈추니 학교가 보였다. 조선일보.  
<https://bit.ly/3bJThnD>
- 김영수·장려원(2020.09.18.). [뉴스큐] 보육도 학력도 ‘코로나 양극화’...저학년일수록 심각 우려. YTN.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181641337584](https://www.ytn.co.kr/_ln/0103_202009181641337584)
- 김주연(2020.04.23.). EBS 밖에 없는 아이, 과제도 관리받는 아이.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23010003>
- 김현섭(2020.05.25.). [에듀인 제안] 한국형 블렌디드 러닝 모델을 찾아라. 에듀인뉴스.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521>
- 박기은(2020.04.23.). 한국형 원격교육을 위한 민간 퍼블릭 클라우드 플랫폼의 역할. 한국형 원격교육 정책자문단 1차 회의 자료. 교육부.
- 박남기(2017.03). 제4차 산업혁명기 교육개혁의 새 패러다임 탐색. 교육학연구, 55(1), 213-242.
- 박남기(2018). 실력의 배신. 경기도: 쌤앤파커스.
- 박남기(2020.03). 국가교육력과 사교육. 한국행동과학연구소 편, 한국의 교육력 (221-277). 경기도: 학지사.
- 박남기(2020.05). 재택학습 활성화와 에듀테크의 인간친화적 진화. 유필립·박남기 외 4인, 포스트 코로나. 서울: 한빛비즈.
- 박남기(2020.07).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교육 주체별 대응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3호. <https://bit.ly/3i5ihbs>
- 박남기·임수진(2015). 스마트 학급경영의 개념과 방향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32(1), 371-394.
- 성시윤·윤석만·박해리(2018.10.03.). [교실의 종말] 호주 교실 한복판에 심장 뛰고 달이 돈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015227>
- 오창민(2020.05.20.). 소득 낮을수록 학교 의존도 높아...교육 넘어 돌봄 고민할 때. 경향신문. <https://bit.ly/2ygRQhR>

- 유정희(2019.01.03.). 학생들과 소통하는 유튜버 선생님... ‘꼬마 TV’ 화제.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261123>
- 이길호(2020.04.13.). 또 하나의 기회, 해외에선 ‘원격수업’ 어떻게 하고 있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bit.ly/2VNjPyF>
- 이덕영(2020.10.10.). ‘그냥 듣기만’ 원격수업에 사라진 중간...학력 양극화.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36949\\_32524.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36949_32524.html)
- 이유진(2020.07.08.). 원격수업 속 ‘교육 양극화’...중위권 성적 추락.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52702.html>
- 이지민(2020.07.28.). 코로나 수능, ‘성적 중산층’ 붕괴 우려...중위권 규모 줄고 학력 양극화 심화. EDUJIN.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36>
- 전민희(2020.05.19.). 베테랑도 원격수업 낯선데...학부모 평가 단두대에 선 교사들. 중앙일보. <https://bit.ly/3ldxNo4>
- 전승엽·김정후(2020.08.22.). [이슈 컷] ‘일등과 꼴찌만 있다’...코로나로 심화하는 교육 양극화.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21058600797?input=1195m>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2020.04.01.).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을 접하며. 참학논평.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2020.05.06.). 교육부의 등교수업 발표에 대하여. 참학논평.
- 한준상(2005). 국가과외. 서울: 학지사.
- Minecraft.net. <https://www.minecraft.net/ko-kr/>

2020

한국초등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토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새 패러다임 탐색에 관한 토론

박상완 |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2020 KSSEE Annual Conference  
2020 한국초등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새 패러다임 탐색에 관한 토론』

- 교육의 새 패러다임은 언제나 요구되어 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무엇을 더 새롭게 요구하는가? 새 패러다임은 기존의 것과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

박상완(부산교육대학교 교수)

### I. 서

언제나 논쟁적인 주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시의적절하게 제시하는 박남기 교수님의 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새 패러다임 탐색』을 먼저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영예를 누리게 된 점에 감사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담론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이 글의 제목은 글에서 다루게 될 내용의 범위와 혁신성을 짐작하게 한다.

발표문 제목을 받아보고 든 생각을 부제로 달았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돌이켜보면, 늘 격동의 시대였고 늘 위기(의식)에 가득 차 있었으며 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제4차 산업혁명이 변화 담론의 주요 화두였다.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늘 받고 있는 학교는, 명목상으로는 사회 변화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또 언제나 바뀌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마이클 풀란(M. Fullan) 교수의 『교육변화의 새로운 의미(The New Meaning of Educational Change)』가 1982년 처음 출간된 이후 2016년 제5판이 나온 것을 보면, 그리고 학교/교육 개선, 변화에 관한 문헌들이 넘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교육/학교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는 늘 진행형이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학교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는 과거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학교가 문을 열지도 못하는 상황, 발표자의 표현에 의하면 “온라인교육 대실험”을 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지면서 일부 전문가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관료, 일반인들도 학교와 교사의 역할을 새로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학교, 공교육 체제가 동시에 직면한 과제라는 점이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듯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인 것처럼 온라인교육에서도 세계를 앞서가자, 온라인교육 강국으로 거듭나자는 주장이 헛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발표자가 제안하듯이 “온라인교육 대실험”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고 학교 현장의 전문가, 연구자, 정부가 함께 미래 교육시스템, 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모색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새 패러다임 탐색』은 이러한 담론을 위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다양한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박남기 교수님의 글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이 글에서 제안하는 새 패러다임은 기존의 것과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글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제시한 연구논문은 아니다. 이 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새 패러다임에 대한 발표자의 주장을 담은 글로 그 주장이 가정하고 있는 전제나 주장 자체의 타당성은 하나하나가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토론은 통상적인 연구논문에 대한 토론에서 하듯, 연구가설의 적절성,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의 정합성,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타당성, 엄밀성, 이론적·실천적 가치 등을 다루기보다 발표자의 글에서 좀 더 분명히 되어야 할 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아 토론해야 할 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 전에 토론자의 소임인 발표문을 요약·정리하여, 발표문을 처음 읽는 독자들이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다.

## II.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새 패러다임 탐색』의 이해

### 1. 발표문에서 제시한 주요 질문

발표문의 주요 질문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고 첫 문장에서도 제시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까? 바람직한 교육의 모습은 무엇일까?” 큰 질문이다. 발표자가 한정하지는 않았지만 발표문의 내용상 이 질문에서 교육은 학교교육, 좀 더 넓게 보면 대학교육을 포함한다. 이 질문은 학생을 교육하는 그리고 우리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기해볼만한 질문이다. 동시에 그만큼 풀어나가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다.

### 2. 발표문의 구성과 주요 내용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발표문은 II. 우리 교육계의 대응 분석 및 시사점, III. 온라인학습 약자 대책, IV. 에듀테크와 교육의 방향, V. 스말로그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소한 “스말로그교육”(디지털 기반 스마트교육+전통의 대면 아날로그교육)이 발표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다. 스말로그교육은 “학교와 선생님이 지도하는 아날로그 교육의 강점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시에 첨단 에듀테크와 지역사회 다양한 센터 활용 교육까지 함께 경험하는 새로운 차원의 교육”(p.26)을 말한다. 종래 혼합학습(블렌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 하이브리드 수업(Hybrid Instruction)이 디지털 비대면을 중심으로 하면서 대면 수업과 학습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비대면 초점형 수업과 학습”이라면, 스말로그교육은 “전통의 대면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서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첨단 에듀테크 활용을 최대화하는 대면 초점형 교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발표자가 제시하는 스말로그교육에서 특징적인 점은 오전 교육과 오후 교육을 구분하여, 오전에는 학교, 교실에서 “교사의 조력 하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고,” 오후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센터에서 동아리 활동, 삶의 기술 체득활동, 진로 탐색 활동, 직업체험 등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사회 센터의 설치 주체, 센터의 운영 방식과 가능성,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의미있는 학습과 경험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지, 오전 교육과 오후 교육의 연계,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방식의 교육의 가치와 목적에 대한 논의 등은 생략되어 있다.

II. 우리 교육계의 대응 분석 및 시사점에서는 교육주체를 5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요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1) 학교의 역할과 대응 ((정부, 교육청) 교장이 해야 할 역할 제시), (2) 교사의 역할과 대응 (재택 온라인교육 시기 (담임)교사의 역할, 취약계층 학생의 생활 챙기기, 온라인교육 역량 강화, 재택학습 강점 활용한 프로그램 준비), (3) 학부모의 역할과 대응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녀교육 관련 학부모의 역할 [학부모가 주체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촉구]), (4) 학생의 역할과 대응 (교육 대응책 마련 과정에 학생 참여 기회 확보, 온라인학습 피드백 시스템 구축), (5) 민간 교육기관의 역할과 대응 ([사교육기관의 역할 강화])이다. 특히 민간 교육기관의 역할은 발표자와 가장 견해 차이를 보이는 주장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토론문의 주 내용은 발표문의 II장에 관한 것이므로 다음 절에서 보다 상세하게 제시한다.

III. 온라인학습 약자 대책. 발표자는 온라인 교육대실험에서 가장 부각된 것이 온라인학습 약자 문제라는 점에서 별도의 절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1) 온라인학습 약자 개념, (2) 온라인학습의 특성, (3) 온라인학습 약자 방지 부작용, (4) 온라인학습 문제점 완화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학습 약자는 발표자가 만든 용어로 “온라인학습 프로그램과 지원 시스템 하에서는 제대로 학습하기 어려운” 학생을 말한다. 주요 결론은 학교 혼자 온라인약자를 챙길 수 없으므로 정부, 시민단체, 지역사회, 학원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제기는 적절하지만 II장의 (5) 민간 교육기관의 역할과 대응과 마찬가지로 일부 주장은 논란이 될 수 있다.

IV. 에듀테크와 교육의 방향은 (1) 미래형 교육의 사례: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증강교실에서의 실감형 교육,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유튜브, AI 교육 프로그램 활용, (2) 에듀테크 기반 교육의 한계: AI(인공지능)와 IA(Intelligence Amplification, 지능증폭 개념의 구분, 교육에서 IA 개념을 소환하는 이유 (AI 프로그램의 발달이 아직 미흡하고 인간교사의 고유 역할 및 AI의 대체 한계 때문), (3) 섬세한 인간 친화적 에듀테크, (4) 현실의 필요에 부응하는 에듀테크 등을 제시하고 있다. IV장에서는 교육에서 에듀테크 활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교사의 고유 역할이 있으므로 교육에서는 AI보다 IA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V. 스말로그교육은 스말로그교육 개념 범위, 스말로그교육과 미래사회 적합성을 다루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스말로그교육이 발표자가 제시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새 패러다임이다.

한 단락으로 간략하게 제시한 VI. 결론에서는 “교육 새 패러다임 탐색은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 모습을 그려보고자 하는 노력”이며 이 글이 그 노력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는 발표자의 바람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꿈꾸는 사회,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한 발표자의 구상은 생략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다.

### III. 토론

발표자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토론 과제를 제안하는 것은 지면상의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교육의 새 패러다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적절한 방식은 아니라 여겨진다. 이에 따라 본 토론문에서는 발표자의 글을 읽고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를 토론자 나름대로 몇 가지로 범주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1. 발표문에서 상정하는 “교육의 새 패러다임” 논의의 범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새 패러다임은 광범위하게 논의될 수 있다. 교육은 학교에서 뿐 아니라 다양한 맥락과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적어도 출발점은 현재의 공교육, 학교교육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발표자가 제시하는 교육의 새 패러다임인 스말로그교육에서 오전 교육과 오후 교육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오후 교육활동에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교사가 참여하지 않는 교육 활동이라면 이 발표문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발표자가 제안한 지역사회 센터는 프랑스의 방과후 여가센터(Centres de loisirs)와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방과후교육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다. 오후에 학생들이 지역사회로 나가게 하려면 방과후교육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지역사회 활동과 이를 관리할 조직에 대해서도 보다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을학교,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과 연계시킬 수 있지만, 마을학교의 질적인 다양성,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시 경험한 바와 같이 지역별 체험처의 양적, 질적 차이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된 것일 수 있겠지만 변화를 위한 ‘의미의 공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목적

코로나 상황은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운영 방식, 면대면 대면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발표자도 빌 게이츠의 말을 인용하며 제시하고 있듯이 온라인 교육 경험을 통해 학교, 교사의 필요성과 역할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발표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목적, 학교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이다. 전인교육, 학습자 맞춤형 교육,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교육, 취약계층을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이다.

첫째, 전인교육. 발표문에는 전인교육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대신 “단순히 교과내용 학습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지적체를 포함한 전인교육,” “학습 동기 유발, 지식전달이 아닌 고급역량 육성,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비롯한 전인교육”으로 표현하고 있다. 전인교육의 의미는 2008년 설립된 전인교육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를 참고할 수 있겠다. 전인교육학회에서도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의 진정한 목표인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성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공존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쟁을 통한 성공과 발전, 물질과 명예를 위해 지식을 더하고 쌓는 것으로 이루어져왔던 기존 교육의 틀을 벗어나 헌신과 배려, 포용력과 소통의 능력, 그리고 지혜와 창의력을 갖춘 큰 의식의 세계시민,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http://humancompletion.org/>)

둘째, 학습자 맞춤형 교육(개별화교육)이다. 발표문에는 “온라인학습 환경 차이를 철저히 점검하여 맞춤형 지원체계,” “학습동기 유발을 비롯한 학습 원리에 부합하는 개인 맞춤형 교육용 소프트웨어,” “학습자의 수준과 진도에 맞는 내용 제공, 데이터 분석 기반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등 다양한 맥락에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개별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은 코로나 시대 이전부터 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 방향으로 강조되어 왔다.

셋째,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교육이다. 발표자는 재택학습 강점을 활용한다는 맥락에서 “삶과 교육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삶이 곧 배움의 과정임을 깨닫고,” “담임교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취약계층 학생들의 삶을 챙기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과 삶의 관계는 학교는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곳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재현하는 곳이라는 듀이 철학에서부터 교육의 주요 목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넷째,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이다. 발표자는 특히 취약계층을 포함한 온라인학습 약자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토론자가 보기에 “학습과 성장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기는 마찬가지이다. 학생교육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교육,” (프랑스),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유네스코)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새 패러다임 탐색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과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발표자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꿈꾸는 미래,” “우리가 꿈꾸는 교육과 학습”은 교육의 목적,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는 일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 3. 학교자치, 자율 역량 구축

코로나 시대 학교가 쟁겨야 할 핵심 사항으로 발표자는 “전인교육 방향 마련, 학생과의 지속적인 소통 방법 마련 및 온라인 소통 역량 강화, 온라인 학습 약자의 학습 지원책 마련, 취약계층 자녀를 위한 급식시스템, 교직원의 스트레스 및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포함한 학교자치기구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이에 덧붙여 학부모들이 교육당국에 무엇을 하라고 제안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주장하였다. 학부모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1990년 중반부터 학교단위경영제, 학교자율화가 강조되어 왔고 보다 최근에는 학교자치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자치, 자율 역량에 있어서 학교 간 격차가 있을 뿐 아니라 학교 자율성 발휘를 어렵게 하는 요인(교장 역량, 법적, 제도적 한계 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실질적인 개선이 없다면 발표자가 제안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의 역할 강화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 4. 교사의 역할

발표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사의 역할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발표자는 “교사의 핵심 역할은 학습 동기가 부족한 학생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포함한 학습 약자들을 돕는 것임이 더 뚜렷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취약계층, 온라인학습 약자들이 교사의 지원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사의 역할을 이와 같이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교사는 특정 학생 집단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수학습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의 디지털 교육 전문가 이수인 대표가 “셋째 줄을 읽어주는 것보다 학교에 못 오게 된 극빈층 아이들이 굶지 않게 밥을 챙겨주고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여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분명해졌다고 하기는 어렵

다. 이수인 대표의 말이 적절한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취약계층 학생들의 밥을, 삶을 직접 챙겨주어야 하는가? 삶을 챙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사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학생들이 질 높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적용하고 에듀테크 활용법을 익혀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가 학생 학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적절한 학습수준에 도달하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는 취약계층 뿐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밥을 굶거나 삶의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학생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의 지원을 받도록 ‘연결’ 해주어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사의 역할, 교사 전문성이 무엇인가는 다양한 사회적·교육적 요구를 고려하되 교육과 교사의 본질적 역할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5. 학생의 참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에서 학생의 역할과 관련하여 발표자는 크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전국고등학생연합회 등 최소 고등학생 학생들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학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생 대표를 통해서 교육에 대해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도록 하자는 것, 둘째, 교사들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모아 정리하여 제시하자는 것이다. OECD 교육 2030에서 학생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고, 프랑스 등 유럽 국가 중에서도 고등학생회가 학생교육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거나 학교 교육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발표자의 제안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학생 대표의 참여 논의에 앞서 또는 이와 함께 유럽 국가들에서 어린 시절부터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의 강의평가를 예로 들어 교사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학생 반응을 정리하자는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대학의 강의평가가 가진 문제점, 그리고 대학의 강의평가와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수업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것을 같은 수준에서 볼 수 있는가,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평가(반응을 보는 것)하는 것이 장려되어야 할 것인가? 교사의 교육적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교육활동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는가? 등 학생 참여를 주장하기에 앞서 검토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 6. 민간 교육기관의 역할

발표문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민간 교육기관, 사교육의 역할에 대한 발표자의 주장들이다. 이는 발표문에서 토론자가 가장 비판적으로 읽은 부분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발표자와 생각을 달리한다. 이는 사교육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의한 것일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토론자는 공교육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사교육기관이 대신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역량을 키우거나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위기 상황에서 공교육이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 특히 온라인학습 약자 교육 부분을 사교육기관이 분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 예산을 마련” 하여 바우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아울러, “에듀테크 산업도 일종의 사교육기관”으로 보고 “(교육부의) 한국형 원격교육 정책자문단에 에듀테크 기업체 대표가 참여하였듯이 교육위기관리단을 구성할 때에는 사교육기관 대표를 참석시켜 이들의 위기대응 역량, 시설, 인력을 국가가 흡수·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학습 격차,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학습 약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발표자가 주장하듯이 사교육을 활용하자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토론자는 발표자가 가정하듯이 사교육기관이 없어야 할 기관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교육기관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며 공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바우처를 제공하여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발표자가 사교육기관이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역할은 일차적으로는 학교에서 수용해야 할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시민사회, 시민단체들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에듀테크 산업을 사교육기관으로 규정하는 것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에듀테크 기업들이 사기업이라고 하여 이들을 사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는가? 사교육 개념 혼란을 우려한다.

## 7. 부각되어야 할 점

발표문에서 학교, 교사, 학생(학부모)간 교육격차 문제, 취약계층 등 온라인학습 약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로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암흑상자 속에 가려져 있던 학교 간, 교사 간 교수학습의 차이, 교육격차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받는 교육의 내용과 질을 ‘비교’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학교와 저 학교의 교육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학부모들이 온라인 개학에 불만족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학교의 관심 정도에 따라 교육 편차 발생”이다. 지역별, 계층별 교육격차 문제는 온라인 교육으로 새롭게 부각된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 교육 문제 중 하나였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 발표문은 이 점을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발 표

비대면 원격수업 시대, 초등교사의 전문성

추 광 재 | 강원 횡성초등학교 교사



2020 KSSEE Annual Conference  
2020 한국초등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비대면 원격수업 시대, 초등교사의 전문성

추광재(강원 동화초등학교)

## I.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 19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미래가 강제로 와버린 지금, 교육 현장의 모습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 코로나 이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교실에서의 수업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배움의 공간이 교실이 아닌 가정으로, 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면대면 수업들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어가고 있고, 학생들이 오감(五感)을 동원하여 교과를 배우던 수업의 프레임이 시각과 청각만 열어놓으면 되는 제한된 프레임으로 변해가고 있다. 코로나 19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던 학교교육의 프레임을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빠르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더해져 학교 현장에 많은 고민거리와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교육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질문거리들을 만들어 주고 있다. 실례로 유네스코가 발표한 ‘코로나19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휴교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능력 저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의 심화 등의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변화를 강제하는 두 가지 요인(코로나 19와 4차 산업혁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초등교육 현장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교육 전반 및 현장의 변화에 따라 초등교사에게 새롭게 요구되거나 더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전문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대답은 필연적이며, 필사적이다. 이러한 질문과 고민을 안은 채 많은 국가들이 원격학습(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 중단없이 학교교육을 실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온라인을 활용한 원격 수업 방법을 구안하고, 자료들을 개발하

고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하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 수업의 대체로 여겨졌던 온라인 수업이 이제는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넘어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 새로운 교육 플랫폼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과거와는 또 다른 시선에서 ‘미래 초등교실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에 따라 미래 초등교사가 갖추어야 할 ‘초등교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대면 수업의 보완적 역할로서 등장한 원격 수업이 ‘With Covid19’와 새로운 미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면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수업 프레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의 시선’과 코로나 19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면수업과 함께 발맞출 수 있다는 ‘대안으로서의 시선’으로 ‘미래 초등학교 수업과 그에 따른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 두 시선을 통해 뉴 노멀 시대(코로나 19와 새로운 미래)의 비대면 원격 수업에 대해 재조명하고, 이에 따라 과거 초등교사에게 요구되었던 전문성과는 별도로 요구되는 미래 원격수업 시대에 부응하는 ‘초등교사의 전문성’의 특징이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 II. 비대면 원격 수업을 바라보는 두 시선

### 1. ‘가능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비대면 원격수업

비대면 원격수업은 90년대 이후 온라인 환경의 발달과 새로운 교실 환경에 대한 요구로 인해 이러닝과 블렌디드 러닝 등이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수업의 또 다른 플랫폼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이 가진 한계성과 효과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교실 현장에 쉽게 정착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거꾸로 수업이나 공동교육과정 등 수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그리고 소규모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격수업이 최근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이러닝(온라인 수업), 가상 수업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그리고 이러한 원격수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디지털 교실에 대한 장밋빛 기대, 미래 AI 시대에 발맞춘 학교 현장의 혁신 등이 미래 수업의 모습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으로는 인식되면서 초등 교실에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격 수업이 지닌 단점과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들은 그리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비대면 원격 수업(온라인 수업)이 만들어내는 문제들을 ‘완벽한 수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든 수업이 가진 본질적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비대면 원격수업을 ‘미래 수업의 모습’으로 그려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출현으로 인해 원격 수업이 거의 전 교실에서 시행되면서 과거 이러닝을 포함한 비대면 원격수업이 안고 있었던 문제들을 되짚어볼 여유도 없이 원격수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비대면 원격 수업의 실행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원격수업<sup>1)</sup>이 야기하는 폐해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쏟아지고 있다. 학습 몰입감의 감소, 학력 격차의 심화, 부모의 SES에 따라 달라지는 온라인 학습 환경의 차이, 수업의 질 저하, 교사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전문성 차이에 따른 학습의 질 차이 등 ‘비대면 원격 수업의 환상’을 깨뜨리기에 충분할 만큼의 단점과 문제점들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비대면 원격 수업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 즉 ‘살아있는 경험’이 아닌 ‘죽은 경험’, ‘수업이 지닌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안된 것이 대면수업과 비대면 원격 수업을 혼합한 ‘블렌디드 러닝’이다. 블렌디드 러닝이 비대면 원격 수업이 지난 한계와 문제들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원격 수업이 지닌 장점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Reay(2001)에 따르면, 블렌디드 러닝은 기존 오프라인에서의 대면 수업과 비대면 원격 수업에서 활용되는 테크놀로지 요소들을 결합하는 것만이 아닌 여러 매체, 기술, 학습 방법을 혼합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총체적인 방법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환경의 장점을 통해 학습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견했다. Reay 외에도 Fox(2002), Thorne(2003), Smith(2001), Bersin(2004), Graham(2006) 등 많은 외국 학자들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했으며, 국내에서도 블렌디드 러닝에 관한 메타분석이 나올 정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긍정적인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수업 역시 원격 수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과 한계들, 그리고 비대면 원격 수업에 익숙하지 않는 교육 환경 등으로 인하여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선택이 아닌 강제된 강요에 가깝다. 그렇다고 불평만하고 그 자리에서 안주만 하고 있을 순 없다. 강제된 변화지만 상황에 적합한, 그리고 보다 질 높은 수업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이다.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교실에서 비대면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의도하고 계획된 형태의 모습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교실에서 줌(zoom) 등의 비대면

1) 쌍방향 원격수업, 과제제시형 원격수업, 콘텐츠 제시형 원격수업 등이 구분이나 E-learning, M-learning, U-learning 등

원격수업 도구를 활용하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대면수업 대체제로서의 비대면 원격수업을 가능케하는 토대로, 경험으로 축적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뉴노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앞서 제기된 원격 수업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비대면 원격수업’의 시선에서 보다 확장된 시선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이 아니어도 로봇과 인공지능, 뇌과학 등으로 인간과 기술의 결합이 심화되는 AI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능성의 시선’으로서의 비대면 원격수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예기치 못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실 수업이 살아있는 생명체로써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한 또 다른 가능성, 그리고 미래 수업의 변화를 이끌 ‘가능성’으로써 비대면 원격 수업은 또 다른 가치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네르바 학교’와 같이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비대면 원격수업은 미래 교실에서 활용될 에듀테크의 모습으로 대면수업의 많은 부분을 대체할 ‘가능성’의 시선으로 미래 초등교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 교실에 서있을 초등교사가 갖추어야 할 또 다른 전문성이 무엇인지, 더 강조되어야 할 전문성이 무엇인지 ‘가능성의 시선’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 2. ‘대안의 시선’으로 바라본 비대면 원격수업

미래사회에 대한 희망섞인 예측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소개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선부른 가설과 예측은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교육도 이와 다르지 않다.

비대면 원격 수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강요된 선택이었다. 앞서 언급한 취약 계층의 학력 저하로 인한 교육 불평등의 심화 문제, 수업의 질 저하 등 비대면 원격 수업이 가진 적지 않은 문제들을 해소하지 못한 채 받아들여야만 했던 준비되지 않은 수업 방식이었다. 즉 사회 변화에 따른 수업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에서의 문제들을 해소할 방안들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맞이한 비대면 원격 수업은 에듀테크의 발달로 인해 달라질 미래 수업의 ‘가능성’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가까운 미래, 괄목할만한 AI 기술이 수업에 활용되면서 수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나 어디까지나 수업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도구들은 교사의 교수 행위에 의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 효과성과 효율성은 담보되지 않는 것은 물론 무용한 기계나 장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강제된 선택이었지만 우리의 관심은 ‘대안’으로서 시선으로 비대면 원격 수업을 바라보고, 대면수업의 대안으로서 비대면 원격 수업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학생들의 학습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비대면 원격 수업 활용 방안을 탐색하는데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면수업의 ‘대안으로서 비대면 원격 수업’ 시선으로 바라본 ‘초등교사의 전문성’의 성격은 대면 수업에서 요구되던 전문성 외에 비대면 원격수업을 위한 별도의 전문적 요소의 탐색을 통해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III. 비대면 원격수업 시대, 두 시선으로 마주한 초등교사의 전문성

### 1. 비대면 원격수업과 ‘초등교사 전문성’ 재정립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 우선해야 할 질문은 ‘초등교사가 수행하는 일(교직)’은 전문적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지면 다음으로 ‘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초등교사의 전문적 행위와 자질,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초등교사만의 특별한 전문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과거 초등교사의 전문성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와 같은 논의 방식을 통해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통념으로써의 전문성에 관한 일반적 특성을 먼저 제시한 후, 초등교사의 행위와 일의 성격에 비추어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규정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강조되거나 새롭게 변해야 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을 추가함으로써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정의하는 논의 방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교사 전문성’에 관한 앞선 논의 방식은 본래의 의도와는 별도로 초등교사가 하는 일에 대한 위상 및 교사가 수행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격하시키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박남기, 2000; 유한구, 2001).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일반적인 교직 전문성의 범주 안에서 의미를 밝힘으로써 초등과 중등교사와의 전문성 경계가 모호해지고, 가르치는 내용의 수준이나 가르치는 학생의 수준으로 전문성의 정도를 이해하려는 사회적 통념이 어느 정도 자리잡는데 도움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초등교육의 특성과 초등교사의 교육 행위로부터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도출해 내지 않는다면 초등교사가 수행하는 교육 활동의 중요성을 폄하하거나 전문성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초등교육의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학생 특성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중등교사들도 초등교육을 담

당할 수 있다는 인식, 과거 교육 정책들도 이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초등교사의 전문성’ 또는 ‘초등교육의 전문성’ 관련 논의에 있어서 ‘초등교사’만의 전문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전문성의 일반적 특성으로부터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초등교사의 교육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특성을 ‘전문성’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없이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바라보면 비대면 원격수업의 시대, 초등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드러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과거에 정의되었던 초등교사의 전문성의 특성에 비대면 원격수업을 위해 추가로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교수행위를 위한 교과 내용 및 방법 지식, 특정 기술이나 역량 등)’과 ‘전문적 태도(인격 등)’의 내용을 더하면, 이것이 곧 ‘비대면 원격수업의 시대, 초등교사의 전문성’이 되는 것이다. 요즘 각종 미디어나 담론들에서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요구되고 있는 원격 수업을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 원격 수업의 자원 탐색 능력 및 원격 수업과 관련된 효과적인 에듀테크 도구들의 활용 기술, 원격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재구조화 능력(원격 수업 설계 역량 등), 디지털 불평등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 역량, 원격 수업에 대한 흥미 및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학습 전략 역량 등이 원격수업 시대에 갖추어야 할 초등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것이다.

## 2. 비대면 원격수업의 시대; 두 시선에서 바라본 초등교사의 전문성

가. ‘가능성의 시선’에서 바라본 초등교사 전문성의 요소와 특징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초등교사의 교육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특성을 ‘전문성’으로 규정하고, 코로나 19 이후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교차하는 현재의 초등학교 교실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미래 원격수업이 대면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비대면 원격수업을 위해 초등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등교사의 전문성 관련 논의들은 그 내용이 주로 교사의 역할 및 직무에 집중되어왔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및 재구성, 수업 방법, 수업 기술(skill) 및 관련 도구 활용, 학생평가, 생활교육(생활지도), 그리고 행정 업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성 요소들은 초등교사만의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초등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 요소이며, 오랜 기간 동안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내용으로 현장에서 군림해 왔다. 이런 배경에는

교사의 전문성을 규정하는 ‘전문적 지식’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 교직의 전문지식은 전달된다는 것, 교사의 학습은 교직의 전문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서경혜, 2009). 이러한 관점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비약적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마주하게 되는 ‘가능성의 시선’에서 바라본 비대면 원격 수업 시대,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명료하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초등교육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교육방법도 진화했다. 서책에만 의존했던 단조로운 수업환경에 학습 경험의 변화를 몰고온 시청각교육은 TV와 영상기술 때문에 가능했다. 디지털 기술은 수업의 장면을 교실이 아닌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했다. 인쇄기술없이 근대 학교의 출현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디지털 기술은 지금의 대면수업의 장면을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바꾸어줄 ‘또 다른 가능성’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대면 원격수업 시대에서의 초등교사의 전문성은 과거 서책, TV 등의 영상 도구 등에서 벗어나 줌이나 구글 클래스나 가까운 미래 구현 가능한 텔레프레즌스(Telepresence; 일종의 홀로그램)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각종 원격 수업 도구의 활용 역량, 디지털을 활용한 원격 수업용 콘텐츠 개발 역량, 원격수업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원격 수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수업 방법 및 기술 역량 등이 그 대답이 될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을 위한 각종 연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원격 수업을 위한 정보과학기술 활용 역량 강화, 원격 교육을 위한 수업 방법과 콘텐츠 및 자료 개발에 집중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과학기술이 발전으로 인하여 교실에 들어오는 각종 수업 관련 도구들이 바뀔 때마다 교사들은 늘 새로운 도구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해왔고 기존 수업 방식에 새로운 도구들을 접목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기울였다. 새로운 도구들이 ‘새로운 수업, 더 나은 수업’의 모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OHP를 활용한 수업,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 온라인을 활용한 수업 등 불과 몇 년 사이에 교실에서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수업도구가 실제 교실의 모습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 했지만 수업의 질적 측면에서 그 효과성은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 강제된 원격수업이든, 미래 교실의 모습으로서의 원격수업이든, 과거의 이런 양상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격수업을 위해 투입되는 다양한 수업 관련 도구나 테크놀로지(에듀테크)의 활용 기술과 역량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격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초등교사에게 요구된다. 이 능력이 원격수업 디자인 역량이다. 수업에 있어 원격 수업 도구와 테크놀로지(에듀테크) 역시 연필, 종이, 교과서와 같은 수업을

위한 도구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 그 자체가 전문적 지식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원격수업을 위한 정보과학기술 도구 등을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적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다. 단순히 방법적인 역량을 뛰어넘는 초등교사들이 성공적인 비대면 원격수업을 위한 다양한 에듀테크 등의 도구들을 초등교육의 본질적 목적(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활용할 수 있는 확고한 인식과 태도가 내재된 ‘전문적 지식’ 이어야 한다. 단순 사용자가 아니라 초등교육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내용에 맞게 적절한 도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초등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으로서의 전문적 지식’의 범주 안에 함의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성의 시선’에서 보면, 비대면 원격수업은 대면수업의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미래 초등 수업에 있어서 오히려 수업의 주된 플랫폼이 되고 대면수업이 비대면 원격수업의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비대면 원격수업과 향후 원격수업은 대면 수업이 주가 되는 교실의 모습에서 원격수업이 주가 되는 변환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성의 시선’에서의 ‘초등교사 전문성’은 교육적 상상력이 가미된 비대면 원격수업 디자인 역량(설계 및 활용 능력과 함께 데이터 기반 학습자 진단 역량, 개별화 학습 설계 역량, 온라인을 통한 공동체 참여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등)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학생 개인별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학생의 다양한 사고와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원격 수업 역량, 개별 학생의 내적 자각과 학생 맞춤형 역량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이버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학습자 진단, 온라인 가정 방문(원격 수업 도구를 활용한 학부모, 학생 상담 등), 효과적인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능력 등이 이에 해당된다. EBS의 강의, 유튜브 등의 다양한 원격 강의를 통해 시공간의 제약없이 어느 곳이든 배움의 장소가 되고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지금, 앞으로 미래 원격수업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미래 비대면 원격수업의 모습을 아직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는 없지만 정보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의 모습에 발맞춘 초등교사의 전문성의 요소와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OECD의 주요국(영국, 호주, 싱가포르, 일본)에서도 미래 사회에 초등학교 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초등교사의 전문성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미래 교실의 모습을 지금의 학교모습과는 다른 교육플랫폼(비대면 원격수업 등)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교사 전문성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OECD에서 제시한 미래의 초등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토대

로 미래 원격수업시대, 초등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성에 대해 재구성해 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I-1> ‘가능성의 시선’에서 바라본 초등교사 전문성의 요소 및 특성

미래 초등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 <sup>2)</sup>	초등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 요소	특성
비판적 사고	전문적 가치와 태도	최신 테크놀로지 지식과 기술의 습득 및 유지 반성적 사고 및 자기 비판적 사고(ICT통합, 21세기 기술의 습득 및 신장)
문제해결	초등교육 및 교육과정에 관한 전문 지식과 이해	초등학생에 관한 학습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교수법 개선(학습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원격수업 계획과 과정, 원격 수업 관리 및 평가, 원격수업 플랫폼 이해)
의사소통과 협력	효과적인 원격 의사소통을 위한 개인적 전문 기술	디지털 기술, 반성적 기술, 교육학적 기술, 의사소통 기술, 공학적 기술, 혁신적 기술, 촉진적 기술, 자기관리 기술
창의력과 상상력	전문적 발달과 평생 학습	교육적 상상력,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콘텐츠 자료의 공유, 연수
시민 의식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	공감, 잠재력 개발에 대한 헌신
디지털 소양	디지털 기술, 코딩 능력	스마트기기 활용 기술, 원격 수업의 이해(장점과 단점), 온라인 예절
리더십과 책임감	학생에 대한 애정, 열정	학습자의 개성, 학생주도성과 책임감
개인적 성장	개별화 맞춤형 학습 능력	개별 학생의 특정한 학습 요구에 따른 차별화된 학습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공정성을 보장하는 초고의 자율성과 신뢰
글로벌 인식 및 다문화 교육	포용력, 평등, 자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	다양한 가치 인정

나. ‘대안의 시선’에서 바라본 초등교사 전문성의 요소와 특징

비대면 원격 수업을 위해 새롭게 갖추거나 강조해야 할 ‘대안의 시선’에서 바라본 ‘초등교사의 전문성’의 특징은 무엇일까?

초등교사가 수행하는 일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치는 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내용의 수준이나 방법적인 면에서 크게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이를

2) 미국의 21세기 학습 파트너십(www.P21.org)은 학생들이 미래의 삶과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성취해야 할 21세기 역량을 12가지로 제시함. 21세기 역량은 창의성과 혁신,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협력, 정보 처리 능력, 미디어 활용 능력, ICT 활용 능력, 유연성과 적응성, 자기 주도성, 사회적·상호 문화적 기능, 생산성과 책무성, 리더십과 책임을 포함.

반증한다. 초등교사가 아니어도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가정에서, 학원에서, 과외 등을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과거 초등교사 부족 상황에서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짧은 연수기간을 통해 초등 교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접근도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 교실을 위해 앞으로 갖추어야 할 초등교사의 전문성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질문이 있다. ‘초등교사의 전문성’이 일반 교사의 전문성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고 그 차이를 ‘초등교사의 전문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다. 이와 관련한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들 대부분이 초등교사만의 전문성을 초등교사가 교육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대신하여 기술하거나, 초등교사가 아닌 일반적인 교사의 자질이나 역할을 규정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가르치는 방법의 숙련성과 효율성, 교과에 관한 지식, 학습자 발달 단계에 관한 지식, 지식을 교실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가르칠 수 있는 교육과정 능력, 그리고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책무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전문성은 모든 교사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학교급에 따라 가르쳐야 할 내용이나 대상에 따른 내용이 다를 뿐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대안의 시선에서 바라본 미래 원격수업시대에 갖추어야 할 ‘초등교사의 전문성’은 이와는 달리 큰 차이가 있다. 가능성의 시선에서 보면 다만 앞서 언급한 ‘초등교육의 본질에 입각한 원격수업 디자인 역량과 관련 역량’만 갖추면 그만일 것이다.

그러나 원격수업이 기존 대면 수업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면대면을 통한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경험은 원격수업에서는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대안의 시선’으로 미래 초등학교실의 원격수업을 그려본다는 것은 원격수업이 대면 수업의 많은 부분을 대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안의 시선’에서 바라본 원격수업은 어디까지나 대면 수업의 보조적 수단일 뿐이다. 특히 초등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대안의 시선’으로 본 최고의 원격수업은 대면 수업이 지닌 문제점이나 한계(시공간의 제약 등)들을 보완해주면서 스스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수업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수업 설계(디자인) 역량은 ‘초등교사의 전문성’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의 최적화된 수업 설계를 위해 초등교사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 원격수업 관련 도구 사용 기술과 관련 에듀테크 활용 능력,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 학생 및 학생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 양질의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능력 및 수정 능력 등이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 원격수업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 원격수업

시대, 초등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요구되는 전문성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초등교육이 지닌 전문적 특성들을 이해하는 일,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자신의 수업에 대한 의심과 회의, 그리고 초등학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각종 이론 및 실제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빠르게 변화하는 초등교육 현장의 변화로 인해 밀려오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이자 본질적인 요소들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여지는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전문성 특성들에 대한 관심과도 맞물려 있다. 예를 들어, 원격수업으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 자칫 비대면수업으로 소홀해질 수 있는 학력 차이를 학생 개인별 피드백의 빈도와 질을 높일 수 있는 능력, 초등학생에게 취약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주기적 점검과 상담 능력, 학습자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처럼 ‘대안의 시선’에서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바라볼 때, 과거처럼 새로운 원격수업 도구를 초등교사가 교수 행위에 활용하는 방법, 원격수업에 적합한 수업 방법 등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러한 모습은 앞서 제시한 과거의 문제를 답습하는 조만간 사라질 새로운 수업 방법으로, 어차피 또 다른 새로움에 밀려날 도구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라지거나 밀려나더라도 그냥 사라지거나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실과 초등교사에게 축적된 경험으로,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의 흔적으로 남기 위해서는 새로움(미래 원격수업)을 근본적인 시선으로 비판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 IV. 나가면서

교사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 2019년, 4차 산업혁명 사회에 요구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프랑스 파리에서 21세기를 위한 교사 전문성 강화 국제 포럼이 열렸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이 포럼에서는 교사 전문성이 교육의 질 향상에 있어 강력한 힘으로 작용함을 강조하면서, 현직교사의 전문성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불과 얼마되지 않아 코로나 19로 인하여 전 세계는 준비되지 않은 비대면 원격수업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야기된 교육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관심은 예전에 비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강조되거나 새롭게 요구되는 교사 전문성에 관한 논의는 이미 과거 연구들을 통해 정의된 교사전문성의 내용에 원격수업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적, 기술적 역량 등을 주로 덧붙이는 것으로 한정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대면 원격수업 시대, 초등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논의도 이러한 양상과 유사하다. 실제 초등학교 현장에서 ICT 통합 능력, 온라인 수업 방법 및 학습 지원 능력, 온라인 콘텐츠 개발 능력 등을 새롭게 갖추어야 할 초등교사의 전문성으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하지만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기술적인 부분들만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대면수업이 지닌 많은 장점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사로부터 배우게 되는 인격, 태도, 공감, 애정, 우정, 협력, 질서 등의 감성과 관계적 가치와 태도들이 그것이다.

원격수업을 바라보는 가능성의 시선과 대안의 시선 모두 미래사회에 바람직한 수업의 모습을 그려내려는 시도이다. 어떠한 시선이든 변화된 지금과 변화될 미래 교실에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탐색하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I시대(지능 정보 사회)를 맞이하여 초등학교 수업의 변화된 모습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과 대면수업의 대안으로서, 보조적 역할로서의 비대면 원격수업의 활성화에 맞춘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현재의 초등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앞으로 우리 초등교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언제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근본적인 물음은 ‘초등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모든 요소들은 학생의 긍정적인 발달(학습)에 관한 모든 것이어야 하며, 새로운 기술의 습득과 활용, 수업 방법은 어디까지나 이를 위한 수단(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초등교사의 전문성 논의에 있어 본말이 뒤바뀌는 우를 범하고 있는지 않은지 자문해보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또한 습득된 초등교사의 전문성이 교사들의 전문적 안목과 판단에 의해 창의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자율성이 부여되고 있는가?’에 있어야 한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도 초등교사의 본질은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일이며, 언제나 그랬듯이 초등교사의 전문성이 초등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박남기(2000). 초등교직의 전문성 문제와 확보 방안. 한국초등교육학회. 초등교육연구. 13(2). pp.239-254.
- 서경혜(2009). 교사전문성 개발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교사학습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pp.243-276.
- 이환기(2001). 수업전문성의 두 측면: 기술과 이해.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원교육연구. 18(1). pp.69-83.
- Bersin, J. (2004). The blended learning book: Best practices, proven methodologies, and lessons learned. UK: John Wiley & Sons.
- Fox (2002). Keeping the blended promise. e-learning, 3(3), 26-30.
- Graham, C. R., Allen, S., & Ure, D. (2005). Benefits and challenges of Blended Learning environments. In M. Knosrew-Pour(Ed.). Encyclopedia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Hershey, PA: IdeaGroup.
- Reay, J. (2001). Blended learning-a fusion for the future. Knowledge Management Review, 4(3), 6.
- Thorne.K.(2003). Blended Learning:How to Integrate Online andTraditionalLearning. London:KoganPage.

## 기타자료

- OECD(2011a), The Future of the Physical Learning Environment: School Facilities that Support the User, CELE Exchange 2011/11
- OECD(2011b), “Learning environments for the 21st century”, in Designing for Education: Compendium of Exemplary Educational Facilities 2011, OECD Publishing, Paris.

2020

한국초등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토론

비대면 원격수업 시대의 generalist

신태중 | 서울 개화초등학교



2020 KSSEE Annual Conference  
2020 한국초등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비대면 원격수업시대의 generalist

신태중(서울개화초등학교)

원격수업에 있어서 초등교사가 고유하게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두고, 가능성의 시선과 대안의 시선으로 살핀 발표자의 글을 유심히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겪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겪을 일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원격수업을 무려 일상이라고 말할 시절이 올 줄은 전혀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전대미문의, 벼락같이 닥친 일상을 지내면서 저는 의도치 않게 원격수업에 대한 많은 감정, 반성, 대안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수업은 왜 망했는지, 이번 수업은 왜 괜찮았는지, 나아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을 잘 해야 하는지 여러 생각을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에는 발표문과 비슷한 부분도,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억들을 실마리 삼아 토론문을 꾸려갈까 합니다. 외람되지만 이 토론문은 초등교사인 제 개인의 경험과 생각에 주로 기대겠습니다. 아직 원격수업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기준 문헌으로 널리 확인할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격수업에 대한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논의하기 위해선 먼저 전문성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교사의 전문성을 개념화하려 했던 문헌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제 문해력이 부족한 탓인지는 몰라도 그러한 문헌들을 읽을 때 마다, 적어도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논하기에는, 전문성의 의미를 세심하게 가름하거나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호하게 전문성을 논의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영단어에 빗대어 전문성의 의미를 상세하게 갈라보겠습니다. 그 후, 이 의미 구분에 따라 초등교사의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수업 맥락과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연관해 보겠습니다.

전문성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대체로 어떠한 영역에서 보통 사람이 흔히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수행 능력’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뜻 자체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러한 뜻풀이에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뼈대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영역’ 이고, 다른 하나는 보통

이상의 ‘수행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필요조건을 잘 구분하지 않고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혼동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specialist’와 ‘expert’의 번역어가 모두 ‘전문가’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들의 차이를 엄밀하게 인식하지 않고 같은 말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학술 문헌에서조차 이 둘의 의미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일들이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논하기 어렵게 합니다.

expert의 뜻에는 보통 이상의 ‘수행능력’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전문가보다 숙련가라고 해야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는 달리 specialist의 뜻에는 특정 ‘영역’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의미와 1대1로 대응하는 우리말을 찾을 수 없어 일단은 ‘영역 특수 숙련가’라고 뜻을 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expert는 specialist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 됩니다. 그렇다면 expert의 영역에서 specialist를 제외한 나머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곳에 generalist로서의 expert가 있습니다. 이를 ‘영역 일반 숙련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보다는 ‘통섭 숙련가’ 또는 ‘통합 숙련가’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사를 흔히 ‘generalist’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말에는 교육가가 다루는 영역을 ‘교과’나 ‘내용학’의 영역과 동일시하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을 비판하기 전에 일단 그대로 받아들여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specialist인 교사란 특정 교과나 내용학 지식을 깊이 알고 교육하는 이를 일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generalist란 여러 교과나 내용학 지식을 두루 알고 교육하는 이일까요? 그것으로는 expert가 될 수 없습니다. generalist로서 expert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교과의 산술합 이상이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초등교육의 고유한 맥락 또는 구조와 연관이 있습니다.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정의하거나 개념화하기 위해선 교사 일반적인 특성이 아니라, 초등교육에 고유한 맥락에 해당하는 특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한 초등교사, 또는 초등학교 교육에 고유한 수업 또는 교육과정 맥락 또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등학교 교육은 교과, 시수, 시량의 벽이 없거나 얇습니다. 이를 초등교육의 유연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초등학교 교육에서 교사는 자신의 교과 영역을 공유할 동료(동학년)들과 협력하기 쉽습니다. 이를 초등교육의 협력 용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학급 담임 교사가 해당 학급의 주 교과 지도교사가 된다. 이를 초등교육의 총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을 잘 할 수 있는 generalist로서의 초등교사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첫째, 초등교육의 유연성에 따라, 초등교사의 전문성이 교과, 시간, 시수, 시량의 벽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넘나드는 방식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 꾸러미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교사, 학급 맥락에 최적화된 수업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교사를 장려합니다. 교과, 시수, 시량의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초등교육의 맥락은 이러한 방향에서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초등교사는 비교적 쉽게 교과 통합 프로젝트 수업을 구상하고 계획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학습 활동을 두고 학생에게 시간이 모자라거나, 넘친다면 좀 더 융통성있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수업 활동이 날씨와 맞지 않다면 시간표를 조절하여 적절한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둘째, 초등교육의 협력 용이성에 따라, 초등교사의 전문성은 개별 교실을 넘나드는 방식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동료교사와의 협력적 수업은 공간 및 자원의 한계를 돌파하는 수단이 되거나, 수업의 양상을 질적으로 바꾸어 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맥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초등교사는 자신과 같은 교육 문제를 공유하는 동료들을 근처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소통 방식을 통해서도 쉽게 자원과 대안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초등교육의 총괄성에 따라, 초등교사의 전문성은 교육과정 각론 외의 영역을 교과지도와 연관시키는 방식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주요 관심사, 또는 주요 문제 가운데 하나는 학급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지냅니다. 그 시간 동안 교사는 학생의 교과 학습만이 아닌, 학생의 생활 전반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학년의 경우 교사는 밥 먹기, 옷 입기, 놀기, 공책 쓰기 등과 같은 기본 생활 양식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고학년의 경우 친구들과끼리 편 가르치지 않고 사이 좋게 지낼 수 있는 학급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초등교사들은 이러한 일들을 잘 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고안하고 공유하고 배우고 구사합니다. 이러한 일은 종종 교과 학습과 통합됩니다. 학생들의 상담 문제를 수업과 관련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들을 살펴보면 모두 주어진 상황을 하나로 꿰어낼 실마리를 찾아내는 역량을 전제합니다. 다양한 조건 사이의 연관성을 찾거나 만들어 교육적으로 조직해 내는 능력,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generalist로서 초등교사가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성입니다.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generalist 또는 general에 대한 어감은 전문성과 거리를 둡니다. 흔히 품고 있는 전문가에 대한 인상은 그저 ‘보통 이상의 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이기 보다는, ‘보통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특수한 영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

문입니다. 마침 소설가 장정일씨의 공부라는 책에 좋은 비유가 될 것 같은 말이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일본에서는 제너럴이 '일반'이라고 번역되는 순간, '일반 대중', '일반직' 등 수준 낮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불행한 오해가 발생하지만, 제너럴은 '대장', '장군'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하급 지휘관은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만을 바라보면 되지만, 장군이 되면 군 전체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제너럴인 것이다. 장군은 제너럴에 해당하는 군사지식을 갖추어야 한다.(장정일, 2006:56)

실제로 영어에서 장군을 general로 부르게 된 것은, 서로 다른 여러 병과를 통합적으로 지휘하여 그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장군을 우리는 역사의 장면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generalist로서의 expert는 결코 형용모순이나 말장난이 아닙니다. 전체를 조망하고,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여, 서로 다른 요소들이나 이미 있는 요소들을 교육적으로 조화하는 능력, 즉 generalist이자, bricoleur<sup>1)</sup>인 모습에 초등교사의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이제야 지금까지 논한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원격수업과 연관하여 보겠습니다. 저는 좋은 원격수업이 단순하게 정보화 도구 활용 역량, 교육과정 문해력의 최대치를 각각 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나름대로 정보화 도구를 어렵지 않게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또한 20년의 교직 경력 동안 좀처럼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몇 가지 수업 묶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엔 좋은 원격수업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일하게 준비한 수업들은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하며, 부끄럽게 끝났습니다.

이러한 환원주의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엮어내고 조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맛있는 키위와 가장 맛있는 된장을 한데 모아 비빔다고 반드시 맛있는 요리가 탄생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서로 잘 어울릴 수 있을 만한 요소를 발견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조율해 주어야 합니다. 제 생각엔 원격수업의 국면이 그러합니다. 본격적이고 장기적인 비대면 원격수업은 지금껏 누구도 겪어보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렇다 할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갑작스레 시작하였습니다. 무엇이 효과적이거나 효율적인지, 무엇이 어울리고 어울리지 않는지, 무엇이 저학년에게 적절하고 고학년에게

적절한지 제대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 제대로 비벼지지 않은 재료와도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최적화된 수업을 찾는 일이 교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원격 통신과 수업을 교육적으로 조화하는 능력이 초등교사에게만 요구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원격수업을 하려는 모든 교사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초등교사에게 이러한 국면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고유한 대안이나 가능성의 양상이 있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것은 위에서 말한 초등교육의 고유한 맥락, 또는 초등교사가 처한 고유한 맥락에서 비롯됩니다.

초등교육의 유연성은 구상해 볼 수 있는 원격수업의 지평을 넓힙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더라도 다른 교과 시간, 시수, 내용, 활동의 중복을 걱정하지 않은 채로, 오히려 이러한 겹침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원격수업의 양상을 다양하고 융통성있게 펼쳐낼 수 있습니다.

초등교사에게 이미 익숙한 협력 용이성은 원격수업의 효율과 효과를 높힙니다. 초등 교사 커뮤니티들, 동학년 모임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원격 수업 아이디어 및 자료들은, 구조적으로 협력이 쉬워 공유 문화가 이미 자리잡은 초등 교사 집단이 얼마나 민첩하게 낯선 위기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총괄성은 원격수업을 논하는 장에서 종종 간과하는 관리 및 운영의 측면을 교사로서 하여금 늘 인식하게 합니다. 최근 생산되기 시작하는 원격수업 관련 문헌들을 보면 교육과정 및 수업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펼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원격 수업에서 좋은 수업 계획과 실천 못지않게,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관리와 운영의 측면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원격수업에서 그저 좋은 수업 주제, 구조, 활동, 자료를 조직하여 제시한다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습을 보장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원격수업의 국면에서 우리가 상실한 가장 큰 부분은 수업의 합리성보다는 교사 및 동료들의 정서적 관계와 촉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학생의 시간 관리, 참여도 및 집중력 유지, 수행 과정에 대한 성찰을 제대로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저는 요즘 이러한 요소를 잘 관리하여 수업과 엮어내는 일에 원격수업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초등 담임 교사는 학급 운영과 수업 관리를 함께 고민하고 통합할 수 있습니다.

토론문이 너무 길어진 것 같아 황급히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죄송하게도 이 글은 충분한 숙성의 기간을 거친 것은 아닙니다. 발표문을 보고 떠오른 바를 일상의 기억과 엮어 성급하게 적은 낱것에 가까운 생각들입니다. 게다가 저는 경험적 자료에 근거해서 현재 대부분의 초등교사가 전문적 역량을 얼마나 발휘하고 있는지 입증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개념의 수준에서 초등교육의 고유한 맥락 때문에 어떠

1) 브리콜뢰르, 이미 있는 조건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는 재주꾼. 변통가

한 전문성이 초등교사에게 가능한지 설명해 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실증적인 근거나 문헌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 토론문에는 시간을 두고 공부하여 발전시키거나 고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generalist로서의 직관적인 역량을 어떻게 명료화하고, 지식화하여, 교사 양성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아직 부족한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초등교사에게 고유한 전문성의 영역이 있으며, 그러한 영역에 통합 역량이 포함되며, 이러한 통합 역량이 원격 수업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고유한 방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중심 생각만은 유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문헌>

장정일(2015). (장정일의) 공부.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발 표

코로나19가 드러낸 교육 불평등 실태와 과제

박미희 | 경기도교육연구원 전문 연구원

2020 KSSEE Annual Conference  
2020 한국초등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코로나19가 드러낸 교육 불평등 실태와 과제

박미희(경기도교육연구원 전문연구원)

### << 요약 >>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 실태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의 초등학교 400개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교육의 여건, 과정, 학생의 정신 건강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온라인 학습 환경과 여건이 열악하였으며,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과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가정 배경이 좋을수록 보호자가 온라인 학습에 참여하고 학업을 지도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도 더 많이 지원하고 있어 학생 간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주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컸다. 교원들은 학습 격차를 우려하고 있었으나, 학교 차원에서 학습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지원은 부족하였다. 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의 차별적인 실태는 교육 격차를 넘어 교육 불평등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존의 정책 지원 방식으로는 현재의 교육 문제를 감소시키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학습 결손과 교육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하였다.

주제어 : 코로나19, 비대면 수업,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

## I. 서론

코로나19(COVID-19)라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전세계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재난은 보건 의료, 정치, 사회, 외교, 교육 등 전 영역에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감염의 위험은 모든 계층에게 동일하지만 감염으로 인한 피해와 부담은 불평등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비정규직, 대인관계 서비스 종사자,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의 환자와 노동자, 불법 이민자, 흑인, 히스패닉 등 취약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이들이 감염에 더 노출되고 있다(경향신문, 2020. 04. 27.; 손미아, 2020). 사회의 취약한 집단과 사회적 약자들이 재난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감염의 위험은 사회에 내재해 있는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존 머터(J.Mutter)는 재난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같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각 집단이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재난은 자본 소유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자본이 부족한 이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므로써 불평등을 더 심화시킨다. 그는 역사적인 재난 사건의 피해를 분석함으로써 재난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는 재해가 일어난 사회의 시스템이나 불평등, 부패 정도 등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 즉, 재난은 자연적이지만, 재난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사회적’이라 할 수 있다(J.Mutter, 2016). 재난은 그 사회의 사회구조적 문제와 연결되어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불평등하게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

재난의 불평등은 교육에서도 주요 이슈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학교가 폐쇄되거나 등교가 지연되면서 야기되는 학습의 공백과 그로 인한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이다(김경애, 20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0. 7. 7.; 시사IN, 2020.04.14.; 전국교육노동조합, 2020). 원격 수업 상황에서 학부모의 학습 보조나 사교육 지원, 가정에서의 인터넷 속도 등 가정 배경에 따른 차이가 학생 간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학교와 지역의 돌봄 기관이 폐쇄되면서 등교하지 않는 날 돌봄이나(경향신문, 2020.7.2.), 지역 아동센터나 복지관도 이용이 어려워 저소득층 자녀의 결식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시사IN, 2020.06.18.). 더불어 재난 시기 일상의 변화와 불균형은 아동청소년의 정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도 지적되고 있다(정익중, 2020; 현진희, 2020).

그 동안 교육 격차와 관련한 연구들은 계층이나 지역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투입, 과정뿐 아니라 교육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김경근, 2005; 이두휴, 2011). 특히 교육 여건과 과정의 격차는 가정배경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로 인한 차이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궁지영·김위정·김양분, 2012). 이에 일련의 연구자들은 학교가 이러한 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구하였다. 방과 후 학교 참여, 교사와 학생의 관계,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수준, 학생 중심 수업과 같은 학교의 요인들은 학생 간 교육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양분 외, 2010; 류방란·김성식, 2006; 박현정 외, 2013; 박희진·남궁지영, 2019, 백병부·박미희, 2015).

그런데, 코로나19는 교육 격차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학교의 교육적 기

능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더불어 가정에 돌봄에 교육까지 부담이 가중되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자본이 자녀의 학습 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져 기존의 교육 격차가 더 심화될 계연성이 존재한다. 재난이 장기화되면 경제적 악화로 계층 간 사회적 불평등도 심화되어 취약계층 아동은 불평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김선숙·조소연·이정애, 2020).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가지 않는 날 가정에서 학생들의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생들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한 교육 연구는 비대면 상황에서 학교의 수업 운영 방식과 실태, 교원의 수업 운영 및 지도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김대용·최진혁, 2020; 김세기, 2020; 백병부, 2020; 이성희 외, 2020; 이의재·제성준·윤현수, 2020; 최형미·이동국, 2020), 정책 이슈나 언론 이슈에 관한 담론 분석 연구(김상미, 2020; 신정철 외, 2020), 코로나 이후의 미래 교육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연구(손지희, 2020; 장래혁, 2020)가 주를 이룬다. 격차의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계보경 외, 2020; 탁진규, 2020)는 실증 자료의 부족으로 격차 발생에 대한 사회적 혹은 학교 구성원의 인식이나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재난 상황에서 가정 배경이 어떻게 교육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결과 학교교육의 격차가 어떤 지점에서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기에는 미흡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떠한 여건 속에서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가정과 학교의 대응과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준비 없이 도입된 온라인 수업으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여건의 학생에게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 작업은 가정 배경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넘어 배경에 따라 교육이 질적인 차별을 보이는지 고찰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재난 시기에 나타나는 교육 실태는 그 동안 내재해있던 불평등 구조를 드러내며 누구에게 그러한 구조가 더 불평등하게 경험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교육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의 기초자료로써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소재 학교의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1차적으로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400개교를 무선 표집하여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400개교의 학교에 학생, 교사, 보호자 전체를 대상으로 2020. 7. 15 ~ 7. 27. 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학생의 경우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조사 대상 학년을 특정하였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낫선 교육환경 속에서 접하게 된 1학년 신입생을 포함하고 싶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의 온라인 설문 참여 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3학년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초등학교의 3학년, 4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1> 연구 대상자의 주요 배경 변인별 분포

		구분	빈도(명)	비율(%)	계(명)
학생	가정의 경제적 수준	잘 산다	2,346	27.2	8,621 (100%)
		보통이다	5,974	69.3	
		못 산다	301	3.5	
낮 시간 보호자 거주 여부	보호자 함께 있음	3,580	41.5	8,621 (100%)	
	보호자 없음	5,041	58.5		
학부모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4,781	15.4	12,845 (100%)
		중	15,433	49.7	
		하	10,828	34.9	
	코로나 가정경제 영향	심각한 영향	2,781	21.7	12,845 (100%)
		어느 정도 영향	7,363	57.3	
		별로 영향 없음	2,701	2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정	5,645	43.9	12,845 (100%)	
	외벌이 가정	7,200	56.1		
교사 교육경력	5년미만	231	16.6	1,391 (100%)	
	5년 이상~10년 미만	228	16.4		

	구분	빈도(명)	비율(%)	계(명)
담당업무	10년 이상~15년 미만	186	13.4	1,391 (100%)
	15년 이상~20년 미만	244	17.5	
	20년 이상~25년 미만	239	17.2	
	25년 이상	263	18.9	
	담임교사	1,037	74.6	
	비담임교사(교과담당, 부장교사, 수석교사)	233	16.8	
	비담임교사(보건, 사서, 상담, 영양)	121	8.7	

### 2. 조사 도구

설문지는 비대면 수업 상황을 중심으로 투입-과정으로 나누어 항목을 구성하였다. 1) 교육 격차 실태는 원격 수업 여건, 학습 과정과 이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교육 지원, 학생의 정서 영역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각 영역 내 설문은 각 언론 자료와 코로나19 관련 각종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교 교육 현장에 대한 보고 자료를 조사하여 일차적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이후 초안 설문에 대해 학교 현장 교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설문지를 완성하였다.

<표2> 설문지 문항 구성

구분	하위영역	문항내용	조사대상
온라인 학습 환경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기기가 낡아 방해를 받은 적이 많다.	학생
		나는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공부한다.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때 인터넷 속도가 느려 어려움을 겪는다.	
학습 과정	교수 학습 상황	나는 온라인 수업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다.	
		나는 온라인 수업 시간에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그때마다 SNS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선생님께 질문한다.	
	학생역량	학교 온라인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해결 방법	
		학교 온라인 수업 및 과제를 도와주는 사람	
가정 교육	돌봄	디지털리터러시	학생
		자기주도학습능력	
		가정경제상황별 평일 등교수업 하지 않는 날에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	

1) 교육 격차 관련 연구 전통에서 지적하는 학생의 학업성취나 상급학교 진학, 사회적 지위 획득과 같은 교육의 결과 지표는 현재로는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연구 도구로 상정하지 않았다.

구분	하위영역	문항내용	조사대상
지원	학교 교육	평일 등교 수업 하지 않는 날에 시간 보내는 사람	보호자
		보호자는 학교 일정 공지를 확인하고 챙겨주신다	
		나의 보호자는 온라인 학습 및 과제에 관심을 가지신다	
		아동이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과제는 제때 하고 있는지 등 학습 상태를 확인한다.	
		온라인 수업 시간에 아동의 학습 및 과제를 옆에서 지원한다.	
	사교육	나는 아동의 온라인 학습/교육 활동을 지도하는 것이 어렵다.	보호자
		온라인 수업 보충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학습 이외에 돌봄 위한 사교육비 증가	
		사교육(학원, 과외, 온라인강의 등 유료학습) 시간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증가	
학교 교육 지원	교육 격차 교원 인식 및 취약계층 지원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	교사
		현재 가장 지원받고 싶은 부분	
		온라인 수업 관련한 취약 학생 지원 여부	
		온라인 수업 관련 취약 학생 지원 방식	
	코로나19 이후 돌봄이나 가정여건 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발생 시 대응 방식	학생	
돌봄지원	학교의 긴급돌봄교실 운영		
학생 정서 및 심리		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나의 미래가 불안하다	학생
		나는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 배경에 따라 교육 실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하여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조사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학생의 가정배경은 학생들이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잘산다’, ‘보통이다’, ‘못산다’에 응답한 문항을 활용하여, ‘잘 산다’고 응답한 집단을 ‘상’, ‘보통이다’에 응답한 집단을 ‘중’, ‘못 산다’에 응답한 집단을 ‘하’로 구분한 후 활용하였다. 학부모의 경우에도 학부모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상, 중, 하로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최종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교육 실태에 차이가 있는지 빈도 분석, 교차분석과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sup>2)</sup>. 통계처리는 SPSS 23.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2) 본 연구는 학교급에 따라서도 교육 실태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전체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 분석 결과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 Ⅲ.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 교육 실태 분석

### 1. 온라인 수업과 교육 실태

#### (1) 온라인 수업 여건의 격차

2020학년도 1학기 동안 대면수업은 1/3이하 등교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온라인 개학이 준비 없이 추진되면서 정부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기를 대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런데, 언제든 온라인 수업에 접속할 수 있고 학습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으려면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디지털기기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수업 접근성면에서 중요하다.

교육의 접근성 차원에서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가 있는지 학생에게 조사하였다. 74.2%의 학생이 자신만의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전용 디지털기 보유율에 큰 차이가 없었다<sup>3)</sup>.

<표 3>은 온라인 수업 참여시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가 낡아 학습에 방해를 받은 경험이 많은지 살펴본 것이다. 낡은 기기로 인해 온라인 수업에 방해를 받은 경험이 많다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인 하 집단은 학생의 28.9%가 응답한 반면, 중 집단은 13.4%, 상 집단은 12.5%가 응답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온라인 수업 참여에 사용되는 디지털 기기의 성능에 차이가 있었으며, 자신만의 디지털 기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기기의 노후화로 인해 학습에 방해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에서 온라인 수업을 위해 취약계층과 경제적 수준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 지원을 해주었지만 디지털 기기 사양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73.6%, 중 74.6%, 하 71.4%로 나타남



<표 3> 온라인 수업에 참여 시 디지털기기 노후로 인한 학습 방해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상	1,538 (65.6%)	515 (22.0%)	234 (10.0%)	59 (2.5%)	2,346 (100.0%)	
중	3,304 (55.3%)	1,871 (31.3%)	688 (11.5%)	111 (1.9%)	5,974 (100.0%)	168.556 ***
하	117 (38.9%)	97 (32.2%)	67 (22.3%)	20 (6.6%)	301 (100.0%)	
전체	4,959 (57.5%)	2,483 (28.8%)	989 (11.5%)	190 (2.2%)	8,621 (100.0%)	

\*\*\* 겹 , \*\* 겹 , \* 겹

온라인 수업을 듣는 장소는 학생의 교육 여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유용한 지표라 할 수 있다. <표 4>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 온라인 수업을 듣는 장소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살펴본 것이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하인 학생의 약 15.9%는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학습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인 학생은 6.3%, 상인 집단은 4.5%가 응답하였다. 이는 등교수업 하지 않는 날 대다수의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에 참여(97.1%)한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온라인 수업 환경에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였다.

<표 4> 온라인 수업 참여 시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학습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상	1,661 (70.8%)	580 (24.7%)	92 (3.9%)	13 (0.6%)	2,346 (100.0%)	
중	3,444 (57.6%)	2,154 (36.1%)	327 (5.5%)	49 (0.8%)	5,974 (100.0%)	228.276 **
하	110 (36.5%)	143 (47.5%)	37 (12.3%)	11 (3.7%)	301 (100.0%)	
전체	5,215 (60.5%)	2,877 (33.4%)	456 (5.3%)	73 (0.8%)	8,621 (100.0%)	

\*\*\* 겹 , \*\* 겹 , \* 겹 \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때 인터넷 속도가 느려 어려움을 겪은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표 5>참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많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터넷 속도로 인해 방해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하인 집단은 35.5%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중인 집단은 19.9%, 상인

집단은 17.9%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여 하 집단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컸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나 환경에 거주하는 학생 등 가정 배경에 따라 학습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 온라인 수업 참여 시 인터넷 속도가 느려 어려움을 겪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상	1,298 (55.3%)	627 (26.7%)	339 (14.5%)	82 (3.5%)	2,346 (100.0%)	
중	2,702 (45.2%)	2,081 (34.8%)	1,000 (16.7%)	191 (3.2%)	5,974 (100.0%)	149.625***
하	85 (28.2%)	109 (36.2%)	79 (26.2%)	28 (9.3%)	301 (100.0%)	
전체	4,085 (47.4%)	2,817 (32.7%)	1,418 (16.4%)	301 (3.5%)	8,621 (100.0%)	

\*\*\* 겹 , \*\* 겹 , \* 겹

(2)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 과정

코로나19로 대면 수업보다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날이 더 많아진 상황에서 가정 배경에 따라 온라인 학습 과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6>의 결과는 가정 배경에 따라 ‘온라인 수업 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한’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 내용 이해도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살펴보면 큰 차이를 보인다. 중 집단에서는 17.8%, 상 집단에서는 12.6%이 온라인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여 하 집단에서는 38.9%의 학생이 응답하여 다른 집단과 차이가 컸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열악한 학생이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온라인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상	1,198 (51.1%)	852 (36.3%)	246 (10.5%)	50 (2.1%)	2,346 (100.0%)	
중	2,189 (36.6%)	2,722 (45.6%)	892 (14.9%)	171 (2.9%)	5,974 (100.0%)	302.122
하	54 (17.9%)	130 (43.2%)	82 (27.2%)	35 (11.6%)	301 (100.0%)	***
전체	3,441 (39.9%)	3,704 (43.0%)	1,220 (14.2%)	256 (3.0%)	8,621 (100.0%)	

\*\*\* 꺾 , \*\* 꺾 , \* 꺾

<표 7>은 온라인 수업 시간에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으면 그때마다 SNS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선생님께 질문하는지 학생들에게 조사한 결과이다. 가정의 경제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가정의 경제수준 하 집단이 21.9%로 가장 응답률이 낮았으며, 다음으로 중 25.0%, 상 29.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상호작용 활동에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sup>4)</sup>.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열악한 학생은 수업 중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를 해결하거나 보충하지 못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7> 온라인 수업 중 질문이 생겼을 때 선생님께 문의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상	848 (36.1%)	816 (34.8%)	513 (21.9%)	169 (7.2%)	2,346 (100.0%)	
중	1,957 (32.8%)	2,526 (42.3%)	1,221 (20.4%)	270 (4.5%)	5,974 (100.0%)	62.142***
하	123 (40.9%)	112 (37.2%)	56 (18.6%)	10 (3.3%)	301 (100.0%)	
전체	2,928 (34.0%)	3,454 (40.1%)	1,790 (20.8%)	449 (5.2%)	8,621 (100.0%)	

\*\*\* 꺾 , \*\* 꺾 , \* 꺾

이에 온라인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가정배경별로 살펴보았다(<표 8> 참조). 실제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하인 집단은 수업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11.0%)가 많았다. 보호자로부터 도움

4)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보기 위해 학생들에게 선생님께서 온라인 수업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질문에 즉각 피드백을 해주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하, 중, 상의 순으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아졌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다.

을 받아 문제를 해결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48.2%였다. 이와 달리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의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가 57.2%였고,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3.3%, 중 집단의 경우 56.9%가 보호자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4.5%였다. 온라인 수업으로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제약이 있는 가운데,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은 수업을 더 잘 따라가지 못함에도 이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표 8> 학교 온라인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의 해결 방법

구분	담당교과/담임 선생님께 질문	교육관련 기관(학원/공부방)도움	보호자로부터 도움	형제자매로부터 도움	혼자 해결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감	기타	전체	
상	300 (12.8%)	46 (2.0%)	1,341 (57.2%)	146 (6.2%)	360 (15.3%)	78 (3.3%)	75 (3.2%)	2,346 (100.0%)	
중	754 (12.6%)	87 (1.5%)	3,401 (56.9%)	374 (6.3%)	900 (15.1%)	268 (4.5%)	190 (3.2%)	5,974 (100.0%)	46.346***
하	41 (13.6%)	4 (1.3%)	145 (48.2%)	21 (7.0%)	42 (14.0%)	33 (11.0%)	15 (5.0%)	301 (100.0%)	
전체	1,095 (12.7%)	137 (1.6%)	4,887 (56.7%)	541 (6.3%)	1,302 (15.1%)	379 (4.4%)	280 (3.2%)	8,621 (100.0%)	

\*\*\* 꺾 , \*\* 꺾 , \* 꺾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로 온라인 수업 및 과제를 도와주는 사람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주로 보호자가 학교 수업 및 과제를 도와준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혼자해결 한다는 응답은 줄어들었고 보호자가 도와준다는 응답이 다소 많아졌으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표 9> 학교 온라인 수업 및 과제를 주로 도와주는 사람

구분	담당교과/담임 선생님	학원/공부방 선생님	보호자	형제자매	혼자해결	기타	전체	
상	127 (5.4%)	32 (1.4%)	1,274 (54.3%)	150 (6.4%)	689 (29.4%)	74 (3.2%)	2,346 (100.0%)	
중	299 (5.0%)	82 (1.4%)	3,370 (56.4%)	320 (5.4%)	1,746 (29.2%)	157 (2.6%)	5,974 (100.0%)	11.296
하	14 (4.7%)	7 (2.3%)	155 (51.5%)	19 (6.3%)	95 (31.6%)	11 (3.7%)	301 (100.0%)	
전체	440 (5.1%)	121 (1.4%)	4,799 (55.7%)	489 (5.7%)	2,530 (29.3%)	242 (2.8%)	8,621 (100.0%)	

\*\*\* 꺾 , \*\* 꺾 , \* 꺾

(3) 학생 역량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자기주도학습 능력은 온라인으로 학습하는데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학생 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표 10〉 참조). 디지털 리터러시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안정임·서윤경, 2014; 양길석·옥현진·서수현, 2020)와 같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이 디지털 리터러시<sup>5)</sup> 평균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기주도학습 능력<sup>6)</sup>에서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 수준도 높아졌다. 이는 가정의 형편이 어려운 여건의 학생은 가정의 학습 환경의 열악함에 더하여 개인의 역량적 차이까지 중첩되어 온라인 학습에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10〉 학생 역량

구분	디지털리터러시			자기주도학습		
	N	M	SD	N	M	SD
상	2,346	3.03	0.61	2,346	2.87	0.62
중	5,974	2.89	0.54	5,974	2.70	0.57
하	301	2.67	0.65	301	2.43	0.65
전체	8,621	2.92	0.57	8,621	2.73	0.60
		82.000*** (상>중>하)			112.822*** (상>중>하)	

\*\*\* 겹 , \*\* 겹 , \* 겹

2. 가정의 교육 지원 실태

(1) 학교 교육 활동 지원

2020학년도 1학기는 감염위기 단계별로 등교수업에 차이가 있었고, 학교별로 등교

5) 디지털리터러시 역량은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디지털기구나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거나 다양한 앱이나 플랫폼을 통해 학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 중 이해가 잘되지 않는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다’, ‘온라인 수업 중 어려운 학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을 평균하여 사용한 것이며, 신뢰도는 .768이었다.

6) 자기주도학습능력은 ‘나는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즐겁다’, ‘나는 해야 할 공부나 숙제가 있으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 ‘나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여러가지 자료나 방법을 활용해서 알아낸다’의 문항을 평균하여 사용한 것이며, 신뢰도는 .700이었다.

방식과 일정도 상이하여 학교에서 학부모를 통해 학사일정 및 학교 관련 공지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가정에서 일정부분 학습을 하게 되면서 자녀의 학교 교육 활동을 챙겨야 하는 등 가정에서도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온라인 학교교육 활동 지원에 차이가 있는지 그 실태를 살펴보았다.

〈표 11〉에 따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보호자(학부모)가 학교 일정에 대한 공지를 확인하고 챙겨준다는 응답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보호자(학부모)가 학교의 일정이거나 공지를 전혀 확인하거나 챙겨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하 집단이 18.3%로 다른 집단보다 다소 많았다.

〈표 11〉 보호자의 학교 일정/공지 확인 및 챙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상	112 (4.8%)	259 (11.0%)	971 (41.4%)	1,004 (42.8%)	2,346 (100.0%)
중	258 (4.3%)	707 (11.8%)	3,163 (52.9%)	1,846 (30.9%)	5,974 (100.0%)
하	16 (5.3%)	39 (13.0%)	154 (51.2%)	92 (30.6%)	301 (100.0%)
전체	386 (4.5%)	1,005 (11.7%)	4,288 (49.7%)	2,942 (34.1%)	8,621 (100.0%)

\*\*\* 겹 , \*\* 겹 , \* 겹

〈표 12〉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생은 보호자가 온라인 수업이나 과제에 관심을 가져준다고 인식하였다. 관심이 없다에 응답한 비율은 하 집단이 27.9%로 상 21.9%, 중 20.8%보다 약간 많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습 및 과제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보호자의 온라인 학습 및 과제에 대한 관심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상	172 (7.3%)	341 (14.5%)	1,155 (49.2%)	678 (28.9%)	2,346 (100.0%)
중	322 (5.4%)	918 (15.4%)	3,386 (56.7%)	1,348 (22.6%)	5,974 (100.0%)
하	28 (9.3%)	56 (18.6%)	158 (52.5%)	59 (19.6%)	301 (100.0%)
전체	522 (6.1%)	1,315 (15.3%)	4,699 (54.5%)	2,085 (24.2%)	8,621 (100.0%)

\*\*\* 겹 , \*\* 겹 , \* 겹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온라인 학습 이해도 및 과제 제출을 더 잘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과제는 제때 하고 있는지 등 학습 상태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경제 수준이 높은 상 집단은 10.5%, 중 집단은 12.4%인 것과 비교하여 하 집단은 16.5%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그 응답률이 다소 높아졌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습에 관심도 많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3> 학생(자녀)의 온라인학습 이해도 및 과제제출 등 확인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상	29 (1.5%)	172 (9.0%)	1,120 (58.6%)	589 (30.8%)	1,910 (100.0%)
중	64 (1.0%)	753 (11.4%)	4,222 (63.8%)	1,575 (23.8%)	6,614 (100.0%)
하	64 (1.5%)	650 (15.0%)	2,752 (63.7%)	855 (19.8%)	4,321 (100.0%)
전체	157 (1.2%)	1,575 (12.3%)	8,094 (63.0%)	3,019 (23.5%)	12,845 (100.0%)

\*\*\* 겹, \*\* 겹, \* 겹

다음으로 자녀의 온라인 수업 시간에 자녀의 학습 및 과제를 직접적으로 옆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14>에 따르면 상 집단이 61.3%로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다음으로 중 집단 59.5%로 높았고, 하 집단은 56.1%로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다소 낮았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적극적으로 자녀의 학습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4> 학생(자녀)의 온라인 수업 시 학습 및 과제를 곁에서 지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상	185 (9.7%)	555 (29.1%)	827 (43.3%)	343 (18.0%)	1,910 (100.0%)
중	520 (7.9%)	2,157 (32.6%)	3,011 (45.5%)	926 (14.0%)	6,614 (100.0%)
하	406 (9.4%)	1,489 (34.5%)	1,890 (43.7%)	536 (12.4%)	4,321 (100.0%)
전체	1,111 (8.6%)	4,201 (32.7%)	5,728 (44.6%)	1,805 (14.1%)	12,845 (100.0%)

\*\*\* 겹, \*\* 겹, \* 겹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가정에서 교육을 일정 부분 담당하게 됨에 따라 보호자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학부모에게 자녀의 온라인 학습/교육 활동을 지도하는 것이 어려운지 조사하였다. <표 15>는 자녀의 온라인 학습 지도에 대한 부담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것이다. 분석 결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에서는 44.6%, 중인 집단에서는 51.6%, 하인 집단에서는 64.5%가 자녀의 온라인 학습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어려울수록 자녀 온라인학습 지도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온라인 수업 활동 지원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로 지도가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 비대면 학습에서는 가정에서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보호자가 학습관리 및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자녀가 학업을 수행하는 데 더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15> 학생(자녀)의 온라인학습 지도의 어려움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상	252 (13.2%)	806 (42.2%)	635 (33.2%)	217 (11.4%)	1,910 (100.0%)
중	553 (8.4%)	2,651 (40.1%)	2,597 (39.3%)	813 (12.3%)	6,614 (100.0%)
하	194 (4.5%)	1,339 (31.0%)	1,987 (46.0%)	801 (18.5%)	4,321 (100.0%)
전체	999 (7.8%)	4,796 (37.3%)	5,219 (40.6%)	1,831 (14.3%)	12,845 (100.0%)

\*\*\* 겹, \*\* 겹, \* 겹

(2) 자녀를 위한 사교육 지원

2020학년도 1학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으로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스스로 온라인 수업을 하기 어려운 학생의 학습 결손 문제와 낮 시간 보호자가 부재하여 돌봄의 공백에 대한 우려가 하나의 이슈였다. 돌봄과 학습의 결손을 매우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각 가정의 자녀에 대한 사교육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표 16>은 돌봄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였는지를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돌봄을 위한 사교육비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늘어나

자, 낮 시간 보호자 부재로 인한 돌봄에 대한 부담이 저소득층에게 더 컸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6> 학습 이외에 돌봄 위한 사교육비 증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상	404 (21.2%)	990 (51.8%)	354 (18.5%)	162 (8.5%)	1,910 (100.0%)
중	1,180 (17.8%)	3,497 (52.9%)	1,448 (21.9%)	489 (7.4%)	6,614 (100.0%)
하	587 (13.6%)	2,216 (51.3%)	1,075 (24.9%)	443 (10.3%)	4,321 (100.0%)
전체	2,171 (16.9%)	6,703 (52.2%)	2,877 (22.4%)	1,094 (8.5%)	12,845 (100.0%)

\*\*\* 겹 , \*\* 겹 , \* 겹

온라인 수업 보충을 위한 사교육비(유료 보습/보충학원)가 증가하였는지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로 분석하였다. <표 17>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41.4의 학부모는 온라인 수업 보충을 위한 사교육비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상 집단 37.7%, 중 집단 39.7%, 하 집단 45.7%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사교육비가 증가에 대한 응답률이 더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이 더 많이 사교육에 투자하였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상 집단이 이미 사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비용 증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교육(학원, 과외, 온라인강의 등 유료학습) 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표 17>에서 살펴보았다.

<표 17> 온라인 수업 보충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상	298 (15.6%)	892 (46.7%)	505 (26.4%)	215 (11.3%)	1,910 (100.0%)
중	863 (13.0%)	3,124 (47.2%)	1,986 (30.0%)	641 (9.7%)	6,614 (100.0%)
하	424 (9.8%)	1,922 (44.5%)	1,434 (33.2%)	541 (12.5%)	4,321 (100.0%)
전체	1,585 (12.3%)	5,938 (46.2%)	3,925 (30.6%)	1,397 (10.9%)	12,845 (100.0%)

\*\*\* 겹 , \*\* 겹 , \* 겹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하 집단 중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은 24.9%로 나타나 중 집단(16.2%)

및 상 집단(12.5%)와 비교하여 다소 차이를 보였다. 사교육 시간별 결과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모든 항목의 응답률도 높아졌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좋은 가정에서는 사교육을 통해 학습 결손을 보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 배경에 따른 사교육 실태는 학교의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 될 경우 학습 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표 18> 하루 평균 사교육(학원, 과외, 온라인강의 등 유료학습) 시간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이상~2시간미만	2시간이상~3시간미만	3시간이상~4시간미만	4시간 이상	안함	전체
상	413 (17.6%)	710 (30.3%)	523 (22.3%)	250 (10.7%)	156 (6.6%)	294 (12.5%)	2,346 (100.0%)
중	957 (16.0%)	1,822 (30.5%)	1,326 (22.2%)	605 (10.1%)	297 (5.0%)	967 (16.2%)	5,974 (100.0%)
하	44 (14.6%)	77 (25.6%)	53 (17.6%)	29 (9.6%)	23 (7.6%)	75 (24.9%)	301 (100.0%)
전체	1,414 (16.4%)	2,609 (30.3%)	1,902 (22.1%)	884 (10.3%)	476 (5.5%)	1,336 (15.5%)	8,621 (100.0%)

\*\*\* 겹 , \*\* 겹 , \* 겹

사교육(학원, 과외, 온라인강의 등 유료학습)을 받는 시간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증가한 것인지 조사한 결과(<표 19>참조), 늘었다의 경우 상 집단이 29.4%로 다른 집단보다 높아,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사교육 시간이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사교육 시간이 줄었다는 응답률은 하 집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모든 학부모에게 학교 수업 보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실제로 자녀의 사교육 지원에 차이가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을수록 자녀의 사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코로나19 이후 사교육 시간 증가

구분	줄었다	늘었다	이전과 비슷하다	전체
상	383 (22.6%)	497 (29.4%)	811 (48.0%)	1,691 (100.0%)
중	933 (21.7%)	997 (23.2%)	2,361 (55.0%)	4,291 (100.0%)
하	57 (26.0%)	56 (25.6%)	106 (48.4%)	219 (100.0%)
전체	1,373 (22.1%)	1,550 (25.0%)	3,278 (52.9%)	6,201 (100.0%)

\*\*\* 겹 , \*\* 겹 , \* 겹

### 3. 교육 격차에 대한 교원의 인식 및 학교 교육 지원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 속에서 교육 격차, 특히 학습 격차 문제가 중요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학교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중 언어 환경의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습 결손 누적된 학생 등 비대면 상황에서 학습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 (1) 교육 격차에 대한 교원의 인식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교사에게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학교급별로 살펴보았다. <표 20>의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습 격차 문제를 가장 많이 염려하였다. 다음으로는 비대면 수업으로 다양한 온라인 환경에 접속하는 상황에서 학생이 유해한 매체 및 콘텐츠에 접속할 것을 염려하였다.

<표 20> 등교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

학습 격차	학생 일탈 행위	가정 내 방치 및 아동 학대	부정적인 인터넷 환경 노출 및 콘텐츠 접속 여부	기타	전체
746 (53.6%)	67 (4.8%)	223 (16.0%)	339 (24.4%)	16 (1.2%)	1,391 (100.0%)

교사에게 현재 가장 지원받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표 21> 참조), 학생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에 대한 요구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다양한 미디어 활용 방법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간 학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현재 상황 지속 시 가장 지원받고 싶은 부분

수업 기획 및 자료 구성방법	다양한 미디어 활용 방법	효과적인 수행평가 방법	학생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	학생과의 효과적인 생활지도 방법	기타	전체
357 (25.7%)	364 (26.2%)	51 (3.7%)	438 (31.5%)	69 (5.0%)	112 (8.1%)	1,391 (100.0%)

#### (2) 취약계층을 위한 학교의 교육 지원

<표 22>는 학교가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취약 학생들(경제적 어려움, 이중언어 환경, 특수교육대상, 학습결손 누적, 생활교육 집중 필요 등)을 지원하고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 67.6%의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취약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0.2%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모르겠다는 응답비율도 22.1%로 나타나, 학생이 온라인 수업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표 22> 온라인 수업 관련한 취약 학생 지원

지원하고 있음	지원하지 않고 있음	모르겠음	전체
859 (67.6%)	130 (10.2%)	281 (22.1%)	1,270 (100.0%)

취약 학생을 지원하고 있다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표 23>에서 살펴보았다. 원격 학습지원 도우미/돌봄 전담 교사에게 의뢰하는 방식이 가장 많았고, 담임교사의 개별 지원이 다음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원격 학습 도우미와 돌봄 전담교사가 취약 학생을 위한 지원에 많은 부분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8> 온라인 수업 관련 취약 학생 지원 방식(중복응답)

원격학습지원 도우미/돌봄전담 교사에게 의뢰	지자체 기관과 협조	담임교사 개별지원	예산 편성 없이 학교 안 교직원 업무 지정	예산 편성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	교육자원봉사 및 학부모회 협조	전체
564 (65.5%)	106 (12.3%)	390 (45.3%)	110 (12.8%)	168 (19.5%)	28 (3.3%)	861 (100.0%)

### 4. 돌봄

#### (1) 등교하지 않는 날 돌봄

<표 24>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등교하지 않는 날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하였는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기관(학원/독서실 등)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동네 기관(공부방,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sup>7)</sup>.

<표 24> 평일 등교수업 하지 않는 날에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

구분	집 (거주지)	친척집	학교 돌봄교실	교육기관 (학원/독서 실 등)	동네 기관 (공부방, 도서관)	친구집	기타	전체
상	2,030 (86.5%)	32 (1.4%)	32 (1.4%)	105 (4.5%)	14 (0.6%)	36 (1.5%)	97 (4.1%)	2,346 (100.0%)
중	5,414 (90.6%)	66 (1.1%)	63 (1.1%)	165 (2.8%)	29 (0.5%)	51 (0.9%)	186 (3.1%)	5,974 (100.0%)
하	267 (88.7%)	2 (0.7%)	7 (2.3%)	6 (2.0%)	7 (2.3%)	2 (0.7%)	10 (3.3%)	301 (100.0%)
전체	7,711 (89.4%)	100 (1.2%)	102 (1.2%)	276 (3.2%)	50 (0.6%)	89 (1.0%)	293 (3.4%)	8,621 (100.0%)

\*\*\* 겹, \*\* 겹, \* 겹

등교하지 않는 날 학생들은 주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지를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25>와 같다. 보호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한 비율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좋을수록 높았다. 특히, 등교하지 않는 날 보호자 없이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와 함께 있다는 응답은 하 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많았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돌봄의 공백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sup>8)</sup>.

<표 25> 평일 등교수업 하지 않는 날에 함께 시간 보내는 사람

구분	보호자 (부모님)	친척	형제/ 자매	혼자	친구	가족· 친척 외어른	이웃	기타	전체
상	1,414 (60.3%)	96 (4.1%)	429 (18.3%)	167 (7.1%)	121 (5.2%)	65 (2.8%)	1 (0.0%)	53 (2.3%)	2,346 (100.0%)
중	3,389 (56.7%)	294 (4.9%)	1,266 (21.2%)	561 (9.4%)	198 (3.3%)	150 (2.5%)	2 (0.0%)	114 (1.9%)	5,974 (100.0%)
하	156 (51.8%)	13 (4.3%)	61 (20.3%)	48 (15.9%)	10 (3.3%)	5 (1.7%)	0 (0.0%)	8 (2.7%)	301 (100.0%)
전체	4,959 (57.5%)	403 (4.7%)	1,756 (20.4%)	776 (9.0%)	329 (3.8%)	220 (2.6%)	3 (0.0%)	175 (2.0%)	8,621 (100.0%)

\*\*\* 겹, \*\* 겹, \* 겹

7) 낮 시간 보호자 부재 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교육기관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이 보호자가 함께 있는 경우보다 많았다.

8) 낮 시간 보호자의 부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보호자가 부재한 학생들은 주변의 사회적 자본에 도움을 받기 보다 주로 형제자매나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의 돌봄 지원

학교의 긴급돌봄교실 운영 기간에 대해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등교개학 전부터 지속 운영 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7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등교개학 이후 운영(6.8%)이 다음으로 많았다.

<표 26> 학교의 긴급돌봄교실의 운영 기간

등교개학 이전까지	등교개학 이후 운영	등교개학 전부터 지속 운영 중	운영 안함	잘 모름	전체
87 (6.3%)	94 (6.8%)	1,100 (79.1%)	29 (2.1%)	81 (5.8%)	1,391 (100.0%)

학교의 긴급돌봄교실은 몇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9%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는 응답도 40.5%였다.

<표 27> 학교의 긴급돌봄교실 참여 대상 학년

저학년(초1~3학년)	전 학년	잘 모름	전체
563 (40.5%)	778 (55.9%)	50 (3.6%)	1,391 (100.0%)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조사한 결과, 보조인력이 긴급돌봄교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이 76.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나, 부득이한 경우 교사들이 긴급돌봄교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16.4%로 나타났다.

<표 28> 가장 적절한 긴급돌봄교실 운영 방식

교사가 지도	보조인력이 지도	보조인력 채용 운영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교사가 지도	기타	전체
27 (1.9%)	1,062 (76.3%)	228 (16.4%)	74 (5.3%)	1,391 (100.0%)

돌봄교실 업무 담당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43.7%의 교사들이 돌봄교실 업무를 교직원 여러 명이 분담하여 담당한다고 응답하였고, 32.9%는 교직원 1인이 전담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29> 학교의 돌봄교실 업무 담당 방식

학교 교직원 1인 전담 방식	학교 교직원 여러명 분담 방식	지자체 및 마을 교육 자원으로 운영	기타	잘모름	전체
458 (32.9%)	608 (43.7%)	96 (6.9%)	104 (7.5%)	125 (9.0%)	1,391 (100.0%)

돌봄 교실 운영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종일 운영한다는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오후에만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는 응답이 23.6%로 많았다.

<표 30> 학교의 돌봄 교실 운영시간

종일 돌봄	오후 돌봄	오후 및 저녁 돌봄	운영 안함	잘 모름	전체
843 (60.6%)	328 (23.6%)	50 (3.6%)	9 (0.6%)	161 (11.6%)	1,391 (100.0%)

<표 31>은 돌봄이나 가정 여건 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발생 했을 때 학교에서의 지원 방식을 조사한 것이다. 매뉴얼(지침)에 따라 지원(46.9%)하였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 공동체와 협의하여 대응하였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31> 코로나19 이후 돌봄이나 가정여건 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발생 시 대응 방식

매뉴얼 (지침)에 따름	담임교사 및 발견교사 혼자 해결	돌봄/위기학생지원 담당교사와 협력하여 진행	학교공동체와 협의하여 대응	별다른 대처 못함	전체
653 (46.9%)	54 (3.9%)	258 (18.5%)	397 (28.5%)	29 (2.1%)	1,391 (100.0%)

(3) 학생의 정서 상태

재난과 정신 건강에 대한 연구는 재난이 발생하면 개인과 사회는 감염의 전파, 치료제 개발 등에 따라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 중 하나로 불안, 우울, 무감각 등의 정서적 반응을 경험한다고 보고된다(현진희, 2020). 이에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의 정서

및 심리 상태는 어떠한지 조사하였다.

<표 32>의 결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43.8%의 학생이 불안감을 느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로 살펴보면, 하 집단은 55.1%의 학생이 불안하다고 응답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도가 가장 높았다. 반면, 중 집단은 43.5%, 상 집단은 43.1%가 불안감을 느꼈다. 이는 재난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정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2>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상	581 (24.8%)	754 (32.1%)	606 (25.8%)	405 (17.3%)	2,346 (100.0%)
중	963 (16.1%)	2,412 (40.4%)	1,807 (30.2%)	792 (13.3%)	5,974 (100.0%)
하	35 (11.6%)	100 (33.2%)	113 (37.5%)	53 (17.6%)	301 (100.0%)
전체	1,579 (18.3%)	3,266 (37.9%)	2,526 (29.3%)	1,250 (14.5%)	8,621 (100.0%)

\*\*\* 겹 , \*\* 겹 , \* 겹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는 날이 많아지면서 돌봄의 공백으로 혼자 집에서 보내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학생들의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표 33>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에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은 하 집단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중 집단이 18.3%로 다음으로 많았고, 상 집단이 15.6%로 가장 적었다.

재난이 주는 스트레스는 동일하지 않으며, 특히, 가정 배경이 열악한 학생이 더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앞선 분석 결과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열악한 하 집단의 경우 보호자 없이 혼자 보내거나 형제자매끼리만 보낸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고립된 환경이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sup>9)</sup>.

9) 낮 시간 보호자의 부재 여부에 따라서도 분석한 결과, 낮 시간에 보호자가 없는 학생들이 보호자가 함께 있는 학생보다 행복감을 덜 느끼고, 불안과 우울감도 높았다.



<표 33> 학교에 가지 않는 날 혼자 남겨진 기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상	1,246 (53.1%)	734 (31.3%)	228 (9.7%)	138 (5.9%)	2,346 (100.0%)
중	2,344 (39.2%)	2,536 (42.5%)	802 (13.4%)	292 (4.9%)	5,974 (100.0%)
하	75 (24.9%)	121 (40.2%)	61 (20.3%)	44 (14.6%)	301 (100.0%)
전체	3,665 (42.5%)	3,391 (39.3%)	1,091 (12.7%)	474 (5.5%)	8,621 (100.0%)

\*\*\* 겹 , \*\* 겹 , \* 겹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학생 간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격차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 학습에서의 여건, 과정으로 나누어 교육 실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교육 여건에 차이가 있었다. 가정 환경이 열악할수록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학습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서 학습을 하였다. 학습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 속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았다. 동일하게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학습 환경의 질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비례하여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학습 과정에서도 차이를 낳고 있었다.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안 좋을수록 온라인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학생이 많았다. 모르는 내용이 있음에도 이들은 선생님이나 보호자의 조력을 받기보다는 혼자 해결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개인의 열악한 학습 환경과 돌봄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라 해석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보호자의 지원과 지도에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좋을수록 학교 일정 확인, 온라인 수업 및 과제에 대한 관심과 챙김, 수업 이해도 및 과제 제출 상태를 확인하는 등 온라인 수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나아가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을수록 보호자가 온라인 수업 및 과제를 옆에서 함께 하면서 직접적으로 학습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더욱이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안 좋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자녀의 온라인 학습과 교육 활동을 지도하는 것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가정에서

의 학습지도가 어려운 조손 가정의 학생이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학생의 경우 학습에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상황에 따라 교육에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교육적 책임이 가정에게도 맡겨진 상황에서 가정의 여건과 보호자의 관심과 지도가 학생의 학습 환경과 학습 과정, 학습력에 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온라인 학습에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자기주도학습능력도 선행연구(안우환, 2010; 안정임·서윤경, 2014; 양길석·옥현진·서수현, 2020)와 같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학습 결손이 기초학습 부족으로 연계될 수 있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학습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가정에서는 학습 결손과 돌봄의 공백을 사교육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안 좋을수록 온라인 수업 보충이나 돌봄을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학습을 지도할 여건과 상황이 열악한 가정에 자녀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가정의 경제 사정이 하인 학생의 응답률이 다른 집단보다 많았다. 또한 경제적 형편이 좋을수록 더 장시간 사교육에 참여하였고, 교육 시간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좋을수록 보호자가 자녀의 학습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습 결손에 대한 우려가 적음에도 오히려 사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어, 교육 격차가 가정의 배경에 따라 더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의 교원들은 학습 격차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약 30%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지원하지 않거나 이들을 위한 지원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지원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원격 수업 도우미나 돌봄 전담 교사에게 의뢰하여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더구나 학습 결손과 돌봄 공백을 메워 줄 수 있는 학교의 지원은 학부모의 영향이 클수록 학교의 수업 방식과 방과 후 활동에도 차이를 가져와 학교의 여건과 교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백병부, 2020; 연합뉴스, 2020. 10. 07). 이는 학교의 교육제도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나아가 재난 시기 발생한 일상의 변화는 학생들의 정서 발달을 저해하고 있었다. 공적 돌봄의 부재로 사회적 관계가 제한된 일상에서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울감이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수록 낮 시간 보호자와 함께 보내지 않을 경우 더 컸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적 관계가 일정 부분 단절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낮 시간에 성인의 보호 없이 홀로 보내는 상황이 아동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런데, 학교의 긴급돌봄교실은 종일 돌봄으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도 다수 존재하며, 소규모 학교의 경우 인적자원 부족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학교도 존재하는 상황이라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심리적 불편감은 학교 적응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김광혁, 2015; 유지애·김옥진, 2018), 학생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돌봄의 부재를 보완해줄 수 있는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학습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온라인 원격 수업이 효과적 이었다는(교육부, 2020b; 정광철, 2020)결과와 다르게,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학습의 질과 여건은 학생의 사회적 배경과 맥락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대면 수업에서의 교육 격차는 온라인 학습 도구 및 환경, 보호자의 학습 보조 여부,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사교육 수강, 학교의 교육적 지원의 차이에 가정 환경이 중첩되어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 교육 속에 내재해 있던 집단 간 교육 격차가 가정의 배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가정과 학교 교육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학생 간 교육 격차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교육 지원은 기존의 접근 방식과 마찬가지로 교육 여건의 부족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 동안 교육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식비, 교복지원, 교육비 감면 등 복지적 지원이나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주였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원 방식도 온라인 수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를 대여해주고, 긴급돌봄 교실 운영하는 것이었다. 디지털 기기의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 하위 50%, 한부모 및 조손, 다자녀의 순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는데, 갑작스럽게 코로나로 실직한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 산정의 기준이 전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어 지원을 받지 못 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학교 교육은 온라인 원격 수업을 통해 일률적으로 교육활동을 실시하여 개별 학생마다 처한 환경이 다름을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겪는 학업의 어려움은 이와 같은 제한적 지원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온라인 개학 및 등교 개학 이후 단위학교로 송부된 가이드라인과 지침에 따르면(교육부, 2020a; 경기도교육청, 2020), 취약 계층과 학습 결손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은 단위학교에서 자율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컨대, 이중 언어 학생의 학습 자료 번역 지원이나 기초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은 단위학교에서 자율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올해 학교는 방역과 안전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면서 외부 강사의 출입을 제한하였고, 이로 인해 취약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복지프로그램이나 학생상담 프로그램 등도 축소하면서 지원에 제약이 컸다. 온라인 개학으로 기존의 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 되었음에도,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진단도 코로나19이전과 동일하게 5월에 시행되었다. 각 단위학교들도 한글미해독 학생이나 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미희·정용주, 2020). 또한 돌봄의 부재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돌봄 교실의 운영도 온종일 돌봄보다는 한정적 시간 안에만 운영되는 학교가 많았다(이정연 외, 2020). 코로나19 시기 학교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여건 속에서 수업진도를 나가고 평가를 하고 방역에 신경 쓰느라 학생들의 개별적인 어려움과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기존의 정책 지원 방식으로는 현재의 교육 문제를 감소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다양한 학습 여건에 놓인 학생들이 유의미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가정 내 자원이 부족한 학생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입시에 지장이 있는 고학년 부터 우선적으로 등교를 하도록 조치를 취한 우리나라와 달리, 가정에서 스스로 학습하기 어려운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부터 순차 등교를 실시한 덴마크의 사례(한국교육개발원, 2020)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하게 만든다. 최우선적으로는 빈곤한 취약가정에 공적 돌봄과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과 상반기에 이미 발생한 학습 결손과 기초학습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2020a). 개학전후 코로나19 대응 관리지침 및 지원 안내. 2020. 03.27.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교육청(2020b). 등교수업 대비 감염예방관리 및 학교교육활동 안내. 2020. 05.15. 경기도교육청
- 경향신문(2020.7.2.). ‘코로나가 환기시킨 공교육의 존재 의미…학교가 준 건 지식 그 이상이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7020600005#csidxa177222faced51bb4127b59bcf2712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7020600005#csidxa177222faced51bb4127b59bcf27124)
- 경향신문(2020.04.27.). ‘코로나 시대의 4계급...당신은 어디에 있나’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4271033001#c2b](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4271033001#c2b) 2020. 10. 20에 인출.
- 계보경·김혜숙·이용상·김상운·손정은·백송이(2020). COVID-19에 따른 초·중등 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 분석: 기초 통계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교육부(2020a).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2020.04.07. 교육부 보도자료
- 교육부(2020b).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20.05.04. 교육부보도자료.
- 김광혁 (2015). 빈곤이 아동 청소년의 학업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발달단계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3(4), 227-242.
-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경애(2020). 재난의 불평등, 교육의 형평성. 코로나 시대, 학교의 재탄생. 학이시습. 113-130.
- 김대용·최진혁(2020). 코로나-19로 인한 특수교육 온라인 학습 실태 및 온라인 학습 인식 조사. 특수교육학연구. 55(2). 85-108.
- 김미정(2020). 초등긴급돌봄 감염병 대응 현황과 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슈분석 제163호(20-08).
- 김상미(2020).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교육에 관한 국내 언론보도기사 분석.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1(6). 1091-1100.
- 김선숙·조소연·이정애(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동과 권리, 24(3). 409-438.
- 김양분·이재경·임현정·신혜숙(2010). 학력격차의 변화 추이 및 해소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남궁지영·김위정·김양분(2012).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 1-3주기 초·중·고등학교 종합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류방란·김성식(2006).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박미희·정용주(2020). 코로나19와 교육: 학교 자치에 주는 시사점.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13.
- 박현정·정동욱·이진실·박민호·조성경(2013). 서울시 초·중등교육의 교육격차 구조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1(4). 149-174.
- 박희진·남궁지영(2019). 학업성취 변동 종단 분석: 교육격차 완화 요인 탐색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9(4). 65-88.
- 백병부(2020). 등교수업 한달, 학교는 무엇이 달라졌나?.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09.
-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20. 07.07). 코로나19 원격수업 장기화로 제기되는 ‘교육격차 심화’ 해결을 위한 <3대 영역·7대 과제> 발표 자료집.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손지희(2020). 코로나19 이후 한국교육시스템. 진보평론. 84. 74-93.
- 시사IN(2020.04.14.). 학교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45> 에서 2020. 7. 9 인출
- 시사IN(2020.06.18.). 학교를 왜 가야 하나 답해야 하는 시간.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27> 에서 2020. 7. 2 인출
- 신정철·김청택·박혜연·이수민(2020). 코로나-19에 관한 여론 추이에 따른 교육정책의 참여자, 양상 및 이슈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8(3). 77-100.
- 안우환(2010).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학생 가정배경의 영향력 분석. 교육실천연구. 9(3). 1-18.
- 안정임·서윤경(201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의 세부요인 분석: 세대와 경제수준을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2(2). 69-78
- 양길석·옥현진·서수현(2020). 우리나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의 정의적 특성과 가정 변인 간의 관계. 교육논총. 40(1). 199-222.
- 연합뉴스(2020.10.07.). “코로나로 교육불평등 확대...사립초 수업일수 공립초의 2배”.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7040800530>에서 2020. 10. 27 인출
- 유지애·김옥진(2018). 우울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9(3). 241-273.
- 이두휴(2011). 도시와 농촌간 교육양극화 실태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1(2). 121-148.
- 이성희·한아름·김영미·이민정(2020).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을 위한 온라인 음악

콘텐츠 활용실태와 교사인식. 한국육아지원학회 학술대회지. 133-137.

이의재 · 제성준 · 윤현수(2020).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고등학교 경력  
체육 교사가 겪는 온라인 수업 실천의 어려움과 극복 전략 탐색.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20(14): 339-362

이정연 · 박미희 · 소미영 · 안수현(2020). 코로나19와 교육 : 학교구성원의 생활과 인  
식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슈페이퍼 2020-08.

장래혁(2020). 코로나19가 보여준 정보화 시대의 명암(明闇)과 미래교육. 브레인. 81.  
42-44.

정광철(2020). COVID-19상황에서 국가 교육의 대처와 미래의 교수-학습에 대한 시사  
점. 2020 서울국제교육포럼: 교육의 뉴노멀을 말하다 자료집. 36-46.

정익중(2020). 코로나19 전후 아동 일상변화와 행복. 2020 제17차 아동복지포럼: 코  
로나19가 바꾼 일상변화와 아동행복 자료집. 13-37.

최형미 · 이동국(2020). COVID-19에 따른 중등 교사의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 탐색. 학  
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6). 1047-1071

한국교육개발원(2020). 교육 분야 COVID-19 대응 동향 리포트: 국외 교육 분야 전반  
대응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현진희(2020).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교육정책포럼, 제323  
호. 한국교육개발원.

John C. Mutter(2016). 재난불평등: 왜 재난은 가난한 이들에게만 가혹할까. 장상미  
(역). 동녘.



토론

코로나19가 드러낸 교육 불평등 실태와 과제에 대한 토론

김성식 |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2020 KSSEE Annual Conference  
2020 한국초등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코로나19가 드러낸 교육 불평등 실태와 과제에 대한 토론

김성식(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교육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온라인 학습 상황과 부모의 교육지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취약 계층에 대한 학교의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 연구는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발생한 온라인 학습 상황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를 보다 확대시키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기에서는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좀 더 논의해볼 수 있는 사항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1.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가 확대되었는가?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사실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가 실제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증폭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존재하는 교육 격차가 그대로 나타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전의 유사한 조사에서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는 상당 수준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오프라인 등교 수업에서의 일반적인 학습 실태와 이해도를 함께 조사하여 온라인 상황과 비교했다면 어떠하였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와 함께 가정의 교육 지원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 외에도 맞벌이 여부나, 낮 시간 보호자 거주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학습 이해도 및 과제제출 등 확인, 온라인 수업 시 학습 및 과제를 곁에서 지원 등의 항목은 경제적 수준보다는 보호자 학습 시간에 같이 있어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코로나19라는 긴급재난 상

황으로 인한 교육 격차의 상황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2.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의 확대 요인은 무엇인가?

온라인 원격수업 상황이 가정의 경제 수준 측면에서 취약한 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렇지만 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온라인 원격수업 환경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기회의 격차를 확대시키는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진전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취약계층이 온라인 원격수업 환경에서 불리해지는 이유를 단순히 디지털 기기와 학습 환경의 불충분, 가정에서 보호자의 학습 지원 부족 등으로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학교 교육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로 불평등한 사회계층의 영향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 학교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방학이나 휴가 기간 동안 계층 간 학력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일련의 연구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Heyns, 1976; Entwisle & Alexander, 1992; Downey et al., 2004). 이런 연구결과들은 지금과 같은 온라인 원격수업 상황에서 교육격차의 발생이 디지털 기기 차이나 지원의 문제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점에서 온라인 원격수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교수학습 상황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원격수업에서 흔히 나타나는 상호작용이 없는 일방적인 내용의 제시, 학습이 뒤쳐진 학생에 대한 교사의 개별적 관심 부여 제약 등과 같은 교육 내적 요인이 학교 밖의 교육격차를 학교 내의 학습 기회의 격차로 전환시키는 매개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온라인 학습 환경 보장과 지원만으로는 교육 격차의 심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반대로 어떤 장애요인들은 대면 교실수업 상황보다 온라인 상황에서 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만약 취약계층의 학습을 악화시키는 교육적 요인을 기술 지원으로 온라인 상황에서 개선할 수 있다면 오히려 온라인 원격수업은 가정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학습과 돌봄 지원을 보장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온라인 원격 수업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습 기회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은 모든 면에서 예전의 방식으로 접근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하였고

그 결과 의도하지 않게 새로운 해결책이 발견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 불평등과 관련하여 학교교육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시의성 있고 의미 있는 조사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와 관련하여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발표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참고문헌>

- Heyns, B.(1978). *Summer Learning and the Effects of Schooling*. New York: Academic Press.
- Entwisle, D. R. and K. L. Alexander(1992). Summer Setback: Race, Poverty, School Composition and Math Achievement in the First Two Years of Schoo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7:72-84.
- Downey, D. B., P. T. von Hippel, and B. Broh(2004). Are Schools the Great Equalizer? Cognitive Inequality during the Summer Months and the School Yea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613-35.

2020

한국초등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발 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초등교육과정 운영 사례 및 과제

김세영 | 경기 곡정초등학교 교사

2020 KSSEE Annual Conference  
2020 한국초등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초등교육과정 운영 사례 및 과제

김세영(경기 곡정초등학교 교사)

### 《 요약 》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온-오프 병행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 과정을 기술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A초의 2학년 교사들이 2020년 2월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 교육과정 내용을 특정 시기별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이들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달라진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탄력적으로 반응했으며 교과 교육과정을 다루는 데 있어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교육과정을 효율적, 상황적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였고, 교과 내용보다는 교과 기능을 강조하며 이를 중심으로 온-오프 병행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또한 학생의 학습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이들의 행위는 온-오프 병행 교육과정 설계자들에게는 하나의 범례가 될 것이며, 교육과정 개발자에게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시사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제어 : 블렌디드 러닝, 교육과정 실행, 코로나-19

### I. 서론

필자는 교직에 있는 동안 세 번의 전염병을 경험했다. 2009년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학교는 감염병 교육, 발열 체크 등으로 분주했고, 2학기 때 계획했던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모두 취소하는 것으로 감염병에 대응했다. 그 당시 학생의 전면 등교중지는 없었지만, 몇몇 학생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되면서 등교 거부에 따른 출석인정이 문제로 떠올랐고, 이 문제도 그해 겨울 학생들의 백신 접종과 함께 사그라들었다. 2015년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에도 학교는 메르스 예방 교육으로 대응했고,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의 모니터링 속에서 학사 일정을 운영해나갔다. 그러나 이때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등교를 중지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의견이 강했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장의 판단하에 5일 정도의 임시휴업을 택했다. 학교가 임시휴업을 택하긴 했지만 교육과정 운영상 영향을 줄만 한 정도는 아니었기에 메르스라는 이슈도 발병 환



자의 감소와 함께 차츰 수그러졌다.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돌아왔고, 방학 일수를 축소하는 것으로 임시휴업의 공백을 메웠다.

그러나 2020년 올해 발생한 코로나 19는 이전 감염병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그리고 있다. 4차에 걸친 학교 휴업 명령, 온라인 개학으로의 학사 일정 시작, 학생 등교 시 3분의 1 이내 등교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연속되면서 학교는 이전 감염병 때와는 다른 교육과정 운영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수업 플랫폼, 수업 형태 등 모든 것이 바뀌면서 많은 교사들이 새로운 플랫폼에 적응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업을 제작하는데 열을 올렸고,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대해 서로 공유하며 코로나 19 상황에 대응해나갔다. 이들은 원격교육에 필요한 기술들을 빠르게 습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동시에 코로나 19 시대의 교육 모습, 교육 불평등, 새로운 교육과정 등에 대해 고민했다. 특히 필자가 속한 학교는 초등학교였기에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의 사회성 발달과 더불어 구체적 조작을 통한 수업 방식이 많은 타격을 받았고, 이에 교사들은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방식에 대한 논의와 함께 원격수업<sup>1)</sup> 개선에 대해 탐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 교육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모두 이런 것에 대해 고민했을 것이다. 교육 관련자들은 각자가 속한 위치에서 교육에 대한 전망, 방향 등 그들의 의견을 펼치면서 코로나 19 상황과 이후의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했을 것이다. 또한 언택트 시대라는 코로나 19 시대에서 그들이 수행한 교육적 사례를 공유하며 코로나 19 시대의 교육 방법에 대해 모색했을 것이다.

코로나 19 시대의 교육에 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이 시대의 교육적 고민, 교육에 있어 앞으로의 과제, 실제 수행한 사례, 새로운 교육 도구 구축 등 여러 연구자들이 현재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교육에 대해 활발히 논하고 있다. 이들이 보인 선행 연구를 국제연합전문기구, 국내, 국외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국제연합전문기구는 범세계적 차원에서 코로나 19 교육 현황 및 앞으로의 교육 과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UNESCO(2020a)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전 세계 학교 등교중지 상황 및 재등교에 관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며, 과거 전염병 상황에서 학교의 대처 방법,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UNESCO가 수행한 다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사태를 헤쳐나가기 위한 교육에서의 9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제시

1) “원격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인쇄매체, 방송매체, 통신매체, 정보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일방향/쌍방향, 면대면/비대면, 실시간/비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정순원, 2020: 58)” 을 의미한다. 온라인 수업은 원격수업 종류 중 하나로, 본 논문에서는 원격수업을 주 용어로 사용하되, 온라인이라는 구체적인 방식의 명사가 필요할 때 온라인 수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고 있다<sup>2)</sup>(UNESCO, 2020b). OECD(2020)는 NRC(National Research Council: 미국 국립연구소)(2012)가 제시한 21세기 기술과 지식을 기반으로 이 기술들을 함양할 수 있는 원격 교육 소스 목록을 구축함으로써 학교의 원격수업을 지원하였다. UN(2020)은 코로나 19 시대의 세계 교육 상황 및 교육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는데, 철저한 코로나 19 방역으로 학교 재개, 교육비 확보, 불평등 확산, 소외된 집단에 대한 관심, 학교 및 교사의 준비도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교육계도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9월 10일 기준,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총 37개로,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 19 시대의 교육 및 특정 교육에 대해 논한 글들이 있었다(김홍섭, 2020; 김서진, 문영, 2020; 박민규, 2020; 박중열, 2020; 오재호, 2020a, 2020b; 이용길, 2020; 장래혁, 2020; 조은순, 2020). 다음으로 코로나 19에서의 원격수업 상황 및 사례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국의 교육적 대처 방안을 기술한 연구(Byun, Slavin; 2020), 원격수업 실태 및 유형 분석 연구(김세기, 2020; 이영희, 박운정, 윤정현, 2020),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및 현실 상황 등을 기술한 사례(김승환, 천성민, 2020; 도재우, 2020; 방인자, 2020; 양동석, 조건상, 유은혜, 2020; 이의재, 제성준, 윤현수, 2020) 등이 이에 속한다.

이뿐만 아니라, 원격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원격교육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 연구들도 있었으며(김현주, 2020; 이종만, 2020; 정혜옥, 2020; 정혜령, 우영희, 2020; 정희연, 윤지원, 2020),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특정 교육 방법 및 프로그램을 소개한 연구들도 있었다(김경태, 2020; 김윤옥, 윤소영, 설양환, 2020; 박성영, 2020; 서희철, 박유민, 조영주, 2020; 이상민, 2020; 이은적, 2020; 홍도은, 2020). 이밖에도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특정 교육의 필요성을 논한 연구(우옥영, 2020; 이진현, 2020), 언론기사를 통해 원격교육의 키워드를 분석한 연구(김상미, 2020), 원격수업과 관련하여 법적 보완 및 개선점에 관해 논한 연구(정순원, 2020), 코로나 19 상황에서 문제로 떠오른 학교 돌봄과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연구(정익중, 2020; 최아라, 2020) 등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코로나 19를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2) ① 교육에 있어 공동선의 강조, ② 교육권의 확장(지식·정보로의 접근성, 학습연령 확대), ③ 교사의 전문성 및 협력 강화, ④ 학생, 청소년, 어린이의 참여와 권리 증진, ⑤ 학교가 제공하는 사회적 공간의 보호, ⑥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교육 리소스 및 개방형 액세스 디지털 도구 지원, ⑦ 교육과정에서 과학적 리더십 강조, ⑧ 국내외 공교육 자금조달 보장, ⑨ 현재의 불평등을 종식 시키기 위한 글로벌 연대

국외 연구 역시 국내 연구와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교육 전망 및 방향에 관련된 연구로는,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교육 전망에 대해 논의한 연구(Daniel, 2020) 학생의 기본 교육과 관련하여 핀란드 교육 방향에 대해 논한 연구(Iivari, Sharma, Ventä-Olkkonen, 2020), 스페인 교육 상황을 통해 교육 방향성 및 정책에 대해 탐구한 연구(Azorin, 2020)가 있었다. 사례 연구 역시 많이 수행되었는데, 이중 가장 인상 깊은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술한 연구물로, 여기에는 온라인에서의 교수 전략, 공동체와의 협력, 예비교사 교육의 대안 및 방법, 디지털 도구, 불평등 이슈 등 다양한 주제에 맞춘 133명의 현장 이야기 담겨 있다(Ferdig et al., 2020). 또한 각 나라별로 코로나 19 관련 사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인도네시아 초등학교의 원격수업 실태에 관한 연구(Aliyyah et al., 2020; Fauzi, Khusuma, 2020), 조지아의 원격교육 실태에 대한 연구(Basilaia, Kvavadze, 2020), 필리핀의 원격교육 준비 상황에 관한 연구(Alea et al., 2020), 이스라엘의 예비교사 원격교육에 대해 기술한 연구(Donitsa-Schmidt, Ramot, 2020), 중국의 온라인 교육 실태 및 학생 역량에 대해 탐구한 연구(Zhou et al., 2020; Xie, Yang, 2020), 독일의 원격교육 실태에 대해 탐구한 연구(Kerres, 2020; König, Jäger-Biela, Glutsch, 2020), 인도 대학에서의 원격교육 실태를 탐구한 연구(Jena, 2020), 무들(MOODLE: 오픈 소스 전자학습 플랫폼)을 이용한 인도네시아의 블렌디드 학습 사례(Rachmadtullah et al., 2020) 등이 이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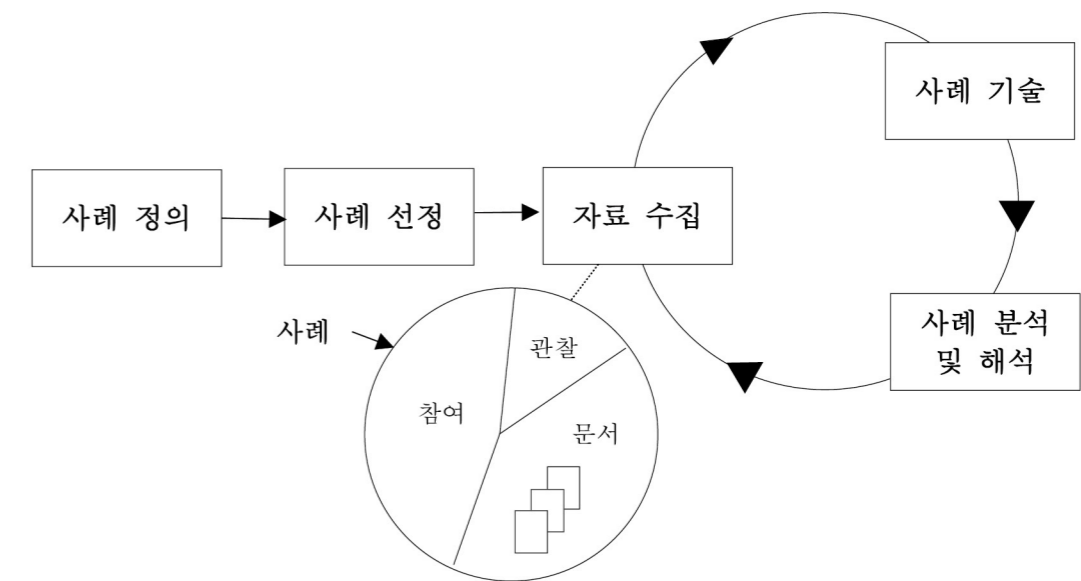
이밖에도 코로나 19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특정 교육 정책의 긍정성에 대해 탐구한 연구(Abidah et al., 2020), 코로나 19 동안 20개 나라의 대학 교육 대응 방식에 대해 탐구한 연구(Crawford et al., 2020) 원격교육을 하는 교수자를 위한 조인을 기술한 연구(Sandars et al., 2020) 등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본 연구도 코로나 19라는 특정 주제 안에 있다는 점에서 위의 많은 선행 연구들과 맥을 함께 한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을 기술하고 논한 사례 연구와 유사하다. 본 연구는 갑자기 발생한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온-오프 병행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 과정을 기술하였다. 즉,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통해 새로운 수업 형태를 만들어간 그 실재를 구체적으로 그려낸 것이 본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한 초등학교 2학년 교사들의 온-오프 병행 교육과정 설계 과정을 기술하는데 집중하였으며, 이차적으로는 이 사례로 토대로 교사가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휘한 교육과정적 행위에 대해 논하였다.

## II. 연구방법: 질적 사례연구

본 연구는 코로나 19라는 특정 상황에서 특정 학교의 교사들이 보인 특정 교육 행위를 ‘보는 것’이다. 여기에서 ‘본다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경험에 대한 공명을 일으킬 만큼 구체적이고 생생한 것이다. 즉, 독자는 그곳에 있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공유하는 경험이란 코로나 19 상황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실행한 온-오프 교육과정 설계 경험이다. 이런 맥락에서 질적 사례연구는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질적 사례연구는 ‘실제적인 예’에 대한 세밀하고 맥락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그곳에 존재한다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질적 사례연구는 특정한 일시적이고 공간적인 경계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제공하며, 현상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풍부케 함으로써 독자의 경험을 확장시키고, 잠재적으로 독자의 경험에 변형을 일으키기도 한다(VanWynsberghe, Khan: 2007).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사례연구를 연구방법으로 삼았으며, 질적 사례연구 중에서도 특정 사례 자체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본질적(intrinsic) 사례연구’와 연구하는 현상을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점에서 ‘서술적(descriptive) 사례연구’ 방식을 택했다(Merriam, 1988; Stake, 1995).

질적 사례연구를 하는데 있어 특정 방법이나 절차는 없으나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



[그림 II-1] 질적 사례연구의 절차(김세영, 2012: 44에서 재구성)

질적 사례연구의 시작은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사례를 확실하게 정의하면서부터 이루어진다. 사례를 정의한다는 것은 특정 상황, 특정 현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며, 보고자 하는 사례를 경계 지음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라는 특정 상황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통해 어떻게 온-오프 병행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나가는지에 집중하였으며 이것이 곧 사례 정의에 해당된다.

연구해야 할 사례가 명확해지면, 그 다음 절차는 연구 사례를 가장 잘 드러낼 최적의 사례를 고르는 것이다. 어떤 일을 직접 겪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특정한 일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사례 대상자가 되는 방식을 취했는데, 연구자는 그가 속한 장 안에서 사례와 관련된 상황과 실태를 두텁게 기술하였다. 즉, 연구자가 사례 대상자와 동일시되면서 사례와 관련된 내부적 상황을 밀도 있게 그려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사례 정의와 사례 선정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가 곧 사례 대상자가 되면서 연구자가 속한 학교의 특징은 사례를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 19는 각 지역별로 발생 현황이 달랐고, 이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사항도 달라졌기 때문에 학교의 위치 및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사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연구자가 속한 학교는 경기도 대도시에 위치한 A초등학교로, 2011년에 개교한 신설학교다. 총 56학급(초등55, 특수1)에 학생 수는 1534명이며, 교원 수는 총 77명이다. A초등학교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속한 초등학교 2학년의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했는데, 2학년의 경우 각 반 학생 수가 약 29명이며, 10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례가 선정되면 그 사례로 한정된 범위 안에 일어난 것들이 곧 연구 자료로 뒤따라온다. 본 연구에서 주 사례 대상자는 연구자와 연구자가 속한 2학년 교사들로,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8월 31일까지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사례 대상자임과 동시에 연구 진행자로 동학년 교사들을 관찰함과 동시에 2학년 교육과정 설계 행위에 참여하였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 지침을 접함과 동시에 학년 교육과정 문서를 생성하기도 했다.

<표 II-1> 자료 수집

형태	자료 및 참여 내용
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학년도 2학년 □반 학급 교육과정 문서</li> <li>· 2020학년도 2학년 교육과정 문서</li> <li>· 2020학년도 2학년 □반 학급 교육과정 운영 일지</li> <li>· 2020학년도 2학년 동학년 협의록</li> <li>· 2020학년도 1학기 주간학습안내(총 17주)</li> </ul>
참여·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학년도 2학년 □반 학급 교육과정 운영</li> <li>· 2학년 동학년 협의회 참여(약 주 3-4회: 비정기적)</li> </ul>

· 2학년 온-오프 교육과정 설계 참여(약 주 1-2회)
· 2학년 전문적학습공동체(총 4회)

자료가 수집되면, 사례 기술과 분석 및 해석이 연이어 진행된다. Stake(2006)가 사례연구는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를 기술하며, 분석 및 해석하는 일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듯이, 본 연구 역시 자료 수집에서부터 분석 및 해석까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이 작업은 순환적이며, 회귀적이었다.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하고 생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1차 사례 기술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한 온-오프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내용은 이를 더욱 두텁게 기술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자료 수집을 통해 사례는 다시 기술되었다.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 본 연구가 상정한 초점화된 이슈에 가깝게 사례가 진술되었으며, 진술된 사례는 반복적 읽기와 사례 대상자와의 공유를 통해 수정·보완되었다.

### III. 온-오프 병행 초등교육과정 설계의 실제

서술적 사례연구의 경우, ‘사례 정의’라는 경계 짓기, 즉, 일종의 한계 명확히 하기에 따라 그 안에서 사례가 기술된다. 여기에서 사례는 서술하고자 하는 뚜렷한 관점에 따라 그것이 지니고 있는 특성, 상황과 함께 자연스럽게 기술된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라는 특정 상황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온-오프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하였으며, 이때 시간적 기준은 사례를 변이시키는 가장 큰 축이 되었다. 교육부는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다른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내놓았고, 교사들은 이에 반응하며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변화를 주었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코로나 19 상황의 교육과정은 크게 1) 코로나 19 상황 전, 2) 학교 휴업 명령 기간, 3) 온라인 개학, 4) 온-오프 병행 수업, 5) 2학기 교육과정 설계라는 질적 변화를 겪었다. 1~4번이 외부적 지침에 따른 교육과정 상의 변화라면, 5번은 1~4번을 모두 겪은 교사가 1학기 성찰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찾은 질적 변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시간을 중요한 축으로 삼아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 행위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어떻게 교육과정을 전개해나갔는지 그 사례를 기술하였다.

#### 1. 코로나 19 상황 전: 2월

1월 20일, 코로나 19 국내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지만 2월 중순까지의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A초 교사들은 어느 때와 같이 한 해의 교육과정 운영을 설계하였다.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된 이들의 일들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그 첫 번째는 성취기준 분석이다. 이들은 수업 및 프로젝트 수업 구상, 평가 계획 수립 등을 위해 2학년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을 교과별로 분석하였다. 국어, 수학, 통합교과, 안전한 생활의 성취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교과서와 연결하여 성취기준이 교과서 단원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가르칠 시기는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선행되는 일이었다. 교사는 교과서와 연계하여 가르칠 수도 있지만 교과서에서 벗어나 가르칠 수도 있으며, 이때 교과별 성취기준은 하나의 기준으로 작동하기에 성취기준 분석은 학년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설계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일이었다. 특히 이는 학생평가와 연계되어 학생으로 하여금 일 년 동안 드러내야 할 행위로 작동하기에, 이에 걸맞는 학습경험을 설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었다.

학년 성취기준 분석이 끝나고, 두 번째로 학년에서 해야 할 프로그램 등 굵직한 수업을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A초에서는 장소를 기반으로 한 교육(place-based curriculum)을 전 학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2학년 교사들은 학교 옆에 흐르는 하천을 중심으로 교과 성취기준을 재조직하였다. 각 교과 성취기준들은 주로 교과라는 테두리 안에서 발현되지만, 특정 프로그램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되어 발현되기도 한다. 교사들은 하천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교과 경험을 최대한 추출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만들면서 특정 장소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세 번째로는 각 학급별로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교사들은 일 년 동안 꾸준히 실천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각자 개발했는데, 이 중 연구자가 개발한 것은 ‘1인 1주제 학습’이었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은 통합교과를 통해 주제 중심 통합 학습을 경험하고 있지만, 연구자는 학생들이 일 년 동안 하나의 주제를 스스로 이해-탐구-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 즉, 학생들이 한 가지 주제를 꾸준히 탐구함으로써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주제를 다양한 교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경험을 주고 싶었다. 학급 프로그램 방향이 이렇게 결정되고 나면, 학급 교육과정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이외에 ‘1인 1주제 학습’이라는 새 영역이 생긴다. 이 영역은 교육과정 편제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과정 실행 상에는 나타나는 영역이다. 교사는 이 영역에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적절히 녹여 내리며, 이 과정에서 관련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최대한 반영한다.

코로나 19 상황이라는 특정 상황이 없는 경우, A초 2학년 교사들은 보통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다룬다. 그들에게 주어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교과 안에서 다루기도 하지만 다양한 조직 방식으로 다루기도 하는 것

이 그들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학생과 만난다면, 혹은 특정 사회적 이슈와 만난다면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다시 그것과 관련을 맺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 학년도의 계획을 세우는 2월에는, 교사가 발현코자 하는 교육 활동을 설계하는 것으로, 학교의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고 있었다.

## 2. 학교 휴업 명령 기간: 3월 2일~4월 19일

2월 말부터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2월 23일, 교육부는 1차 휴업 명령을 내렸고 학교는 3월 9일로 개학을 연기하게 되었다. 이후 3월 2일, 개학이 3월 23일로 추가 연기되면서 학교는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도록 요구 받았다. 학교가 휴업 상황이므로 수업일수로 산입되진 않으나, 계속된 학사 일정 연기로 인하여 학생들에게는 가정에서 학습할 만한 과제가 필요했다. 3월 6일, 학교는 A초 교사들에게 EBS 온라인 클래스와 e-학습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학급 온라인 학습방을 열도록 하였고, 교사들은 자유롭게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선택하였다. 3월 9일, 학생들은 학급 온라인 학습방에 가입하여 안내된 학습활동을 수행하였고, 교사는 학급 게시판을 이용한 학습 안내 및 소통, 교과 관련 자료 제시 등으로 온라인 학습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A초는 플랫폼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성을 느꼈고, 논의 끝에 플랫폼이 e-학습터로 통일되었다.

2학년 교사들은 e-학습터를 사용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학급 관리 차원에서는 로그인 접속 방식이다 보니 저학년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이, 학습 차원에서는 단편적인 콘텐츠 나열로 학습이 유기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다.

A교사: 학교가자닷컴<sup>3)</sup>은 따로 접속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e-학습터가 저학년에겐 안 맞긴 해요.

B교사: 저도 그래서 아예 학교가자닷컴을 따로 학부모들께 안내해주었어요.

C교사: 학교가자닷컴처럼 로그인 없이 학습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돼.

D교사: e-학습터에 있는 학습 내용이 너무 짧고 단편적인 것이 많아서... 그리고 저학년은 학습 기능을 꾸준히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뭔가 다시 생각해야 돼.

E교사: 사실 2학년 애들은 독서 많이 하고, 문장 많이 써보고 이런 게 중요

3) 현직 교사들이 직접 만든 초등학교 온라인 학습 사이트로, 3월 초부터 학년에 따른 학습 내용을 매일 제공하고 있음.

하잖아?

(2020.03.18. 동학년 협의 중)

2학년 교사들은 학급 관리 차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로그인 없이 접속 가능한 형태로 플랫폼을 변경하였는데, 구글 사이트로 구현했다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공지 시스템 앱이 모든 학부모들에게 익숙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것으로 최종 플랫폼을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2학년 교사들은 2학년 학생들에게 보다 유용한 형태로 학습을 제공할 필요를 느꼈고, 그 학습 내용은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기본 기능이자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어야 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다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2학년 교사들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기능 및 역량을 중심으로한 장기 반복형 성취기준과 특정 내용을 중심으로한 단기 집중형 성취기준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국어의 ‘느낌과 분위기를 살려 그림책, 시나 노래,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듣는다’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성취기준인 반면, 슬기로운 생활의 ‘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는 특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성취기준이다. 이들은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 장기 반복형 성취기준, 즉, 기능 중심의 성취기준을 이 시기에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또한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된 성취기준도 최대한 추출하여 이를 기반으로 학습활동을 개발하였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추출한 학습활동은 온라인 학습활동의 기본 토대가 되었다. 특히 2학년 교사들은 모든 학습내용을 콘텐츠로 제공하는 방식보다도 하나의 콘텐츠를 보고 연결하여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제시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위의 학습활동은 온라인 학습의 구심점으로 작동했다.

기능 및 상황 중심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반복 제시하는 것으로 학습 형태를 잡긴 했지만,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학생들이 기능을 습득하되, 그 습득 소재가 단기형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연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교사들은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한 학습활동을 다시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연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통합교과 주제와 관련된 성취기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는데, 주지하다시피, 초등 1-2학년군 통합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는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8개의 주제를 교과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2학년에는 나(몸과 꿈), 가족, 마을, 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추출한 독서 및 독서 관련 활동과 통합이 가능했다. 교사들은 국어의 독서 활동을 제시하되, 그 내용을 통합교과의 주제와 관련된 책으로 정함으로써 국어와 통합교과를 동시에 다루는 방식을 택했다.

**활동 1. 동화책 읽기**

우리 몸을 구석구석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몸에 어떤 구멍이 있는지 살펴봐요.

1) ‘우리 몸의 구멍’ 동화책 읽기

[https://www.youtube.com/embed/GFpSpu9Xsz0?ab\\_channel=%EA%B8%B8%EB%B2%97%EC%96%B4%EB%A6%B0%EC%9D%B4](https://www.youtube.com/embed/GFpSpu9Xsz0?ab_channel=%EA%B8%B8%EB%B2%97%EC%96%B4%EB%A6%B0%EC%9D%B4)

2) 동화책을 읽고, 내 몸에 있는 구멍 중에 하나를 그려보기

(준비물: 종이, 색연필, 사인펜, 연필)

3) 여러 구멍이 하는 일 중 하나 적어보기

예시) 귀: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요, 입: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4) 더 읽어보면 좋은 책: ‘입이 똥꼬에게’

<https://www.youtube.com/watch?v=FKuokCPID5Y>

**활동 2. 나의 몸 움직이기**

1) 우리 몸의 구멍을 생각하며, ‘뽕뽕 응가 제조하기’

[https://www.youtube.com/embed/oj-ZWXBzXBQ?ab\\_channel=%ED%95%91%ED%81%AC%ED%90%81\(%EC%9D%B8%EA%B8%B0%EB%8F%99%EC%9A%94%E3%83%BB%EB%8F%99%ED%99%94\)](https://www.youtube.com/embed/oj-ZWXBzXBQ?ab_channel=%ED%95%91%ED%81%AC%ED%90%81(%EC%9D%B8%EA%B8%B0%EB%8F%99%EC%9A%94%E3%83%BB%EB%8F%99%ED%99%94))

<표 III-1>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심 학습활동 개발

기준	교육과정 성취기준	학습활동
기능 중심	[2국02-03]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2국02-04]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2국02-05]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닌다. [2국05-02]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한다.	·독서 ·독서 관련 활동
	[2국03-02]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쓰기
	[2즐01-03]나의 몸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놀이를 한다.	·가정 신체놀이 및 활동
상황 중심	[2바01-02]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2바06-01]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생활한다. [2안01-09] 공중위생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생활에서 실천한다.	·건강 수칙 ·코로나 19 및 감염 관련 건강 수칙

이와 더불어 바른 생활과 안전한 생활은 코로나 19 관련 수칙 및 행동 요령과 연계하여 제시 가능했다. 따라서 바른 생활과 안전한 생활의 활동들은 서로 다른 활동들로 제시되기보다 매일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방법을 택했는데, 구체적으로, 매일 5분씩 다양한 건강 수칙 및 코로나 19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2학년 교사들은 수학의 경우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으로 학습활동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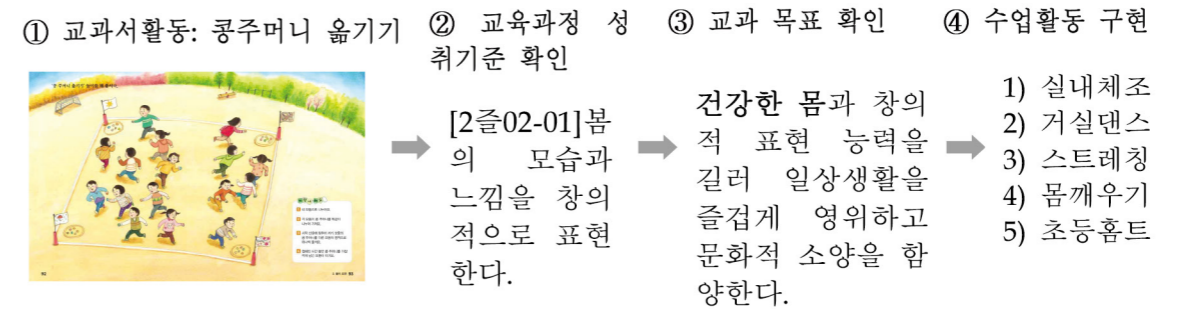
학교 휴업 명령 기간 동안 2학년 교사들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사용한 방식은 온라인 학습에 적합한 성취기준 형태를 찾는 것이었다. 비록 수업일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학생들이 한 해 동안 학습해야 할 것과 관련한 것이 제시되어야 했고, 교사들은 그것을 교과 기능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이 시기에는 교과 기능과 관련된 성취기준이 학습활동으로 변안되었다. 또한 교사들은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연결시켰다. 학생들이 특수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과 관련된 모종의 앎이 필요하다. 이 앎은 현 상황과 밀접하기에 지금 바로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앎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코로나 19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배치하는 것으로, 즉, 특수한 상황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사용하였다.

3. 온라인 개학: 4월 20일~5월 26일

코로나 19 상황이 크게 나아지진 않았지만 학사일정을 계속 연기할 수는 없었다. 이에 교육부는 3월 31일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였고, 4월 9일 고3, 중3을 시작으로 연구자가 속한 초등 2학년은 4월 20일에 개학하게 되었다. 1학기 학사일정이 시작되면서 학습활동은 기존과 같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것들을 모두 다뤄야 했고, 초등 2학년이기에 EBS 방송과도 연계해야 했다. 초등 1, 2학년은 실질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루 두 번 전국적으로 EBS 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원격수업의 일부를 대신했고, 학교는 EBS 방송과 연계하여 2-3차시의 학습을 제시해야 했다. 따라서 가장 첫 번째로 EBS와 연계하여 교육과정 내용을 작성해야 했고, EBS 방송은 교과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A초 교사들은 교과서 흐름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다뤄야 할 시기가 정해지긴 했지만 이 시기에 교사의 교육과정 성취기준 사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먼저 2학년 교사들은 원격수업에 적합한 형태로 학습활동을 변안해야 했다.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은 학교라는 배경을 상정하고 기획된 것들이기 때문에 교사는 교과서 활동들을 그대로 가져올 수 없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형태로의 수정이 불가피했는데 교사들은 이 때 교육과

정 성취기준을 사용했다. 교사들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소극적 혹은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원격수업을 만들었는데, 소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성취기준 내에서 수업활동을 만들었으며,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성취기준을 넘어 교과 목표 차원에서 수업활동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즐거운 생활에는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콩주머니 옮기기 활동이 있다. 이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일정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원격수업으로 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 때 교사들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확인했으며, 성취기준과 교과 목표를 동시에 두고 이 둘을 아우르거나 혹은 교과 목표에 가깝게 수업활동을 만들기도 하였다.



[그림 III-1]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적극적 해석 방법

다음으로 A초 교사들은 교과 기능 혹은 기능 중심의 성취기준에 집중했다. A초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과별로 배운 기능을 최대한 여러 교과를 통해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EBS를 통해 어떤 특정 내용을 배울 때에도 동시에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EBS 수업 안에 특정 기능의 활동들을 배치하였다. 즉, 학생들이 EBS 수업을 보고 나서 한 문장으로 배운 내용 정리하기,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 적기 등의 활동을 하도록 제시하였는데, 이 때 교사들은 국어 성취기준으로부터 관련 기능들을 추출했다.

이밖에도 교사들은 온라인 학습을 제시할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꾸준히 성취해야 할 것을 매일 제시하였으며, 교과 간 통합의 방식으로 원격수업을 만들었다. 이들은 학생들이 통합교과의 주제에 대해 탐구할 때 그 표현양식을 국어로부터 가져오으로써 통합교과와 국어를 통합하였으며, 바른 생활과 안전한 생활을 통합하여 건강수칙을 다룸으로써 청결, 안전, 공중예절 등을 다루기도 하였다. 이들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수업으로 구현하는데 있어 기존의 40분이라는 표준 체제를 무너뜨리고, 교과 통합을 통해 80분 집중 형식으로 제시한다든가, 매일 제시함으로써 5-10분의 분산 형식을 따르기도 하였다.

상황형·장기형 성취기준 매일 배치 (안전, 코로나19)		수업 내용	과수	오늘의 과제
4. 20. (월요일)	1	국어 - 안전 교육(계단 사고 예방) - 손 씻기 - 1. 시를 즐겨요 (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기) - 알게된 점, 느낀 점, 더 알고 싶은 것 등을 적어보기 - 1.세 지리 수 (90보다 10만큼 더 큰 수 알아보기) - ebs방송 (9:30-10:00)보기	국어 6-11쪽	교과서 1. 수학책 10-11쪽 풀고 확인 총합상 1. 창제 : 2학년들 실은 일, 다짐 쓰기 2. 국어 : 알게된 점, 느낀 점, 더 알고 싶은 것 등을 쓰기 3. 오늘 읽은 책 제목 쓰기 링크 (새학년 다짐) https://www.youtube.com/watch?v=I INI3adJa6v https://www.youtube.com/watch?v=0 sFy_BIHxg (2학년별예발) https://youtu.be/aYTVSUzIw00
	2	수학 - 수학책 10-11쪽 풀고 확인하기 - 새학년 다짐 생각해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I INI3adJa6v	수학 8-11쪽	링크 (2학년별예발) https://youtu.be/aYTVSUzIw00
	3	창제 - https://www.youtube.com/watch?v=0 sFy_BIHxg - 2학년별예발 https://youtu.be/aYTVSUzIw00 - 알쓸달콤 나 (나에 대해 이야기하기) 8-9쪽 사진 보며 문장으로 말하기 (메시)아기가 간식을 먹어요. - 내 사진을 보면서 가족과 함께 이야기 하기	미술 8-13쪽	과제제시형/ 대체형

[그림 III-2] 원격수업 학습지도안

결과적으로 2학년 교사들은 이전 학교수업과는 다른 학습지도안을 만들어냈다. 수업은 5분, 10분, 80분 등으로 그 형태가 다양해졌으며, 학습주제를 달리하여 매일 다른 활동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매일 똑같은 학습활동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수업을 구성하는 활동들은 성취기준에서 추출한 기능을 기반으로 했으며, 학생들은 각기 다른 교과와 내용을 배우더라도 특정 활동으로 이를 재조직 혹은 내면화하며 또 다른 성취기준을 수행했다.

학사 일정이 시작되면서 교사들이 성취기준을 사용한 방식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원격수업에 적합한 형태로 수업을 번안하기 위해 교과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했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그들만의 새로운 활동 형태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원격수업은 기존의 시공간적 제약을 무너뜨렸고 교사들은 학교라는 체계가 지닌 관리적 문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정학습에 적합한 수업형태 및 내용을 찾기 위해 성취기준 뿐만 아니라 교과 목표까지 가져와 활동을 구상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사들은 이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수업에 여러 성취기준을 연결시키고, 교과와 교과를 통합하는 등 교과와 교과의 경계를 허무는 모습을 보였다.

4. 온-오프 병행 수업: 5월 27일~7월 31일

학사 일정이 시작되었지만 등교 수업을 계속 미룰 수는 없었기에 5월 4일 교육부는 고3부터의 순차 등교를 발표하였다. 이에 5월 13일부터 고3 학생의 등교가 결정되었지만 코로나 19 상황의 악화로 인해 다시 일주일이 연기되었다. 최종적으로 초·중·고 1-2학년은 5월 27일부터 등교하도록 결정되었고, A초는 학급 내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반을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등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학생이 하루걸러 등교하게 되면서 온-오프 병행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교사들은 원격수업안을 작성하되 등교 수업과 연계하여 맥락화된 학습경험을 학생에게 제공해야 했다.

먼저 A초 교사들은 온-오프 병행 수업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온-오프 병행, 즉, 블렌디드 러닝의 가장 표준적인 방식은 일련의 학습 과정을 원격수업과 등교 수업에 적합한 방식으로 나눠 각각 구현하는 것이다(경기도교육청, 2020). 예를 들어, ‘동물의 한 살이’ 라는 10차시 학습 과정이 있다면, 앞의 1~4차시는 원격수업으로 구현하되 콘텐츠 중심 및 과제 제시형으로 구성하고, 5~6차시는 주요 개념 확인 및 차후 탐구 학습을 안내하는 등교 수업, 7~10차시는 개인별 탐구학습 실천 및 과제를 수행하는 원격수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이 일련의 흐름이 있는 온-오프 병행 수업 방식이라면 A초 교사들은 온-오프 병행 수업이 일관성 있게 같은 것을 하되, 등교 수업이 진도와 상관없이 학생의 성취를 확인 및 평가하고, 교과의 핵심 기능 및 내용을 다룸으로써 이후 온라인 수업의 기반을 닦는 역할을 하길 바랐다.

<표 III-2> 온-오프 병행 수업 방식

종류	등교 수업	원격수업
주요활동	· 장기형 성취기준 · 성취기준 중심 내용 복습 및 확인 · 교과 기능 및 역량 학습 · 성취기준 기반 교육과정 압축 수업	· 장기형 성취기준 · 성취기준 중심의 활동 재구성 · 교과 기능 및 역량 적용 · 교과통합수업(국어+통합, 통합+안전, 국어+국어 등) · EBS 학습 · 조작성 중심의 과제 제시

A초 교사들은 온-오프 수업 내용 및 방식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온-오프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한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의 코로나 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으로 학생의 등교일이 축소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등교 수업 시 원격수업을 해나갈 보다 핵심적인 것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장기형 성취기준인 독서활동을 통한 관련 성취기준 활동은 온-오프 모두 다 유지함으로써 학생들이 매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다루는 내용은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을 모두 구분하였다. 등교 수업 때에는 주요한 성취기준 내용을 다루고, 교과 기능이나 역량을 학습하는 활동을 주로 했다. 또한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교과서 활동을 압축하여 가장 결정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는데 열을 올렸다. 교육과정을 압축한다는 것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교과서에 제시된 여러 차시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차시를 골라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자율적인 교과서 사용자로서의 교사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A초 교사들은 교과서 차시를 선별적으로 취하는 행위를 통해 등교 수업에서는 핵심적인 차시를 다루고, 원격수업 때에는 원격 형태에 맞는 수업 자료 및 도구를 좀 더 풍성하게 사용하였다. 더 나아가 A초 교사들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가장 적합한 수업활동을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① 성취기준 확인

[2바03-02]가족의 형태와 문화가 다양함을 알고 존중한다.

② 성취기준 구현  
교과서 차시 확인  
(총 6차시)



③ 새 수업활동 설계  
(2차시)



- 활동1. 책 읽어주기
- 활동2. 책에 나온 다양한 가족 찾아보기
- 활동3. 가장 인상 깊었던 가족과 그 이유 말해보기

[그림 III-3] 교육과정 성취기준 기반 교과서 활동 압축 및 수업활동 설계 과정

A초 교사들이 교육과정 압축을 통해 수업활동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징적인 점은

이 과정에서 타 성취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그림 III-3]을 예로 들어 보면, 교사들이 만들고자 했던 수업의 성취기준은 바른 생활의 ‘가족의 형태와 문화가 다양함을 알고 존중한다’ 였다. 그러나 이것을 수업활동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림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사들은 국어의 ‘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닌다’ 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다. 확실히 A초 교사들은 온-오프 병행 수업으로 넘어오면서 장기 반복형 성취기준을 확대·적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기 초,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기 전에 A초 교사들은 독서 및 독서관련활동, 문장쓰기, 건강, 안전, 신체활동을 매일 꾸준히 적용해야 할 학습경험으로 상정하였다. 따라서 이 활동들은 온라인 학습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매일 제시되었는데, 이처럼 꾸준히 제공된 활동들은 곧 하나의 수업 방법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독서 및 독서와 관련된 국어 활동이 수업 방법으로 자리 잡았는데, 교사들은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독서를 통해 수업에 접근하는 태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하는데 있어 독서를 주 수업 방법으로 택했다.

- 장애이해교육: 민수야 힘내(글: 아오키 미치요)
- 생명존중교육: 강아지똥(글: 권정생)
- 학생인권교육: 누가 이상한 걸까?(글: 권정희)
- 진로교육: 점(글: 피터 레이놀즈)
- 환경교육: 플라스틱 섬(글: 이명애)
- 식품영양교육: 김밥은 왜 김밥이 되었을까?(글: 채인선)
- 언어폭력예방교육: 나쁜 말 먹는 괴물(글: 카시 르코크)

1학기 때 이루어진 대부분의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이 그림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으로 진행되었는데, 특정 교육과 관련된 그림책을 활용함으로써 창의적 체험활동과 국어가 동시에 다뤄지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다. 즉, A초 교사들은 수업 소재와 수업 방법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통합 수업을 통해 성취기준을 중첩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A초 교사들이 하나의 수업에 다양한 성취기준을 다루는 모습은 다른 방식으로도 포착되었다. A초는 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에 독서교육을 일정 부분 다루고 있는데, 이들은 독서교육을 할 때에는 국어과의 다른 성취기준을 다룸으로써 성취기준을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 나의 독서 활동: [2국05-03]여러 가지 말놀이를 통해 말의 재미를 느낀다.



- 책에서 낱말 하나를 찾아 재미있는 끝말잇기 놀이하기  
(예시) 책에서 찾은 낱말: 달팽이  
달팽이 -> 이빨 -> 빨대 -> 대나무....

· 나의 독서 활동: [2국02-04]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 ① 인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고 차례대로 정리해 보기
- ②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찾아보기
- ③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여 쓰기

성취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외에 A초 교사들은 성취기준 중에서도 더 핵심적인 성취기준을 고르는 행위를 보였다. 이들은 교과 목표에 기반하여 혹은 자신의 교육 경험에 기반하여, 2학년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필수적인 것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등교 수업 때 많이 적용되었는데 수학의 수와 연산 중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이라든지, 곱셈의 원리 등이 이에 속했다. 이들은 다음 학년 교육내용과 연계하여 2학년 때 꼭 성취해야 할 것들을 골랐고, 이 내용의 대부분은 수학이었다. 수학의 영역 중에서도 위계가 엄격한 수와 연산의 내용이 많이 추출되었고, 등교 수업은 핵심적인 수학 기능들을 다루는 것으로 진행되는 일이 빈번했다.

온-오프 병행 수업이 시작되면서, 교사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성취기준과 만났다. 이들은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에 적합한 수업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 성취기준을 다루었고, 성취기준 중에서도 더 핵심적인 것을 고르고, 교과 목표를 기반으로 성취기준을 생성해내는 등 성취기준을 사용하는데 있어 보다 유연한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습 및 개학 동안 그들이 지속적으로 취한 방식을 더 확장하였는데 장기 반복형 성취기준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교과 내 통합, 교과 간 통합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었다.

## 5. 2학기 교육과정 설계: 8월 1일~8월 31일

7월 31일 방학에 접어들면서 A초 교사들은 1학기 때의 수업을 돌아보고 더 나은 수업을 계획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1학기가 원격수업이라는 갑작스런 수업 형태에 적응하는 기간이었다면, 2학기는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더 성장된 모습이 필요했다. 교사들은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2월의 마음가짐으로, 2월부터의 지난 한 학기 간 그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되돌아보았다.

· 학생의 학습 격차 발생

- 학생 주도보다는 학부모 주도의 수업
- 초기 교육과정 계획 적용의 한계 및 괴리
- 저학년 학생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 도구 적용의 제한
- EBS 진도와 병행: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의 제약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날이 현저히 적었고, 원격수업이라는 새로운 수업형태가 적용되었기에 1학기 교육과정 운영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었다. 먼저 초등 2학년 학생이었기 때문에 원격수업 시 스마트 기기 혹은 온라인 수업 도구를 폭넓게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고, 학습이 학생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고보다 학부모 과제가 되었다는 것도 큰 문제였다. 무엇보다 학기 초 계획했던 여러 학생 중심 프로젝트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점이었고, 학습 격차가 있다는 것, EBS 진도를 따르다 보니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문제였다. 논의 끝에 2학기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도록 결정하였다.

-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힘을 주자
- 1, 2학기 통합적으로 성취기준을 운영하자
- 학생 개인 프로젝트를 실시하자
- 등교일까지 EBS 진도에 연연해하지 말자
- 등교일의 새로운 학습 루틴을 만들어내자

2학기 교육과정 방향이 정해지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교육과정을 학생에게 돌려주자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교사의 소유물이었고, 교사는 성취기준을 통해 수업활동을 만들었다. 그러나 학생의 학습이 중심이 되려면 학생이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만나야 했고, 교사의 안내 속에 학습활동을 만들어보는 경험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학생이 주도하여 원격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온-오프 병행 수업을 기획하였다. 구체적으로, 등교 수업 시 학생은 교사와 함께 원격수업 때 자신들이 할 학습 계획을 세운다. 먼저 이번 주에 배울 내용에 대해 교사와 함께 파악하고, 꼭 해야 할 공통적인 학습 활동은 같이 하되, 자신이 다른 활동으로 변경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변경하여 원격수업의 계획을 세운다. 이는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격수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한 두 개의 학습경험을 자신에 맞게 바꾸는 것으로 학습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이 활동이 익숙해지면 학생은 주도적으로 원격수업 계획을 세우며 스스로 학습하는 힘을 기른다. 온-오프 병행 수업의 운영 틀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등교 수업의 모습도 달라졌는데, 등교 수업은 원격수업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하나의 루틴이 되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교과 기본 기능을 좀 더 단단히 다지고, 등교 시 배운 교과 기

본 학습을 원격수업에 좀 더 용이하게 적용하기 위해 교과별로 기본 학습 활동을 구축하였다. 국어와 수학은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학습 활동을 추출하였으며, 통합교과 의 경우 통합교과가 제시하고 있는 교과 역량 및 기능을 주제에 따라 활용하는 측면 도 있었기에 교과 목표, 역량, 기능을 중심으로 기본 학습 활동을 목록화했다.

<표 III-3> 국어 2학기 성취기준 기반 활동

성취기준	관련 단원	기본 학습 활동
[2국02-03]글을 읽고 주요 내용을 확인한다. [2국02-04]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2국02-05]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닌다. [2국03-02]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2국05-02]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 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한다.	1. 장면을 떠올리며 4.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요 9. 주요 내용을 찾아요 11. 실감나게 표현 해요	• 독서록 쓰기
[2국03-04]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 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2. 인상 깊었던 일 을 써요	• 인상 깊었던 일 쓰기
[2국05-02]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 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한다.	1. 장면을 떠올리며	• 시 읊겨 쓰기 • 노래(동요) 가사
[2국03-03]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 은 글을 쓴다.	6. 자세하게 소개해 요	• 소개하는 글쓰기 (나, 사람, 사물)
[2국03-02]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한다.	8. 바르게 말해요	•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는 글쓰기

또한 등교 수업 시 학생 개인 프로젝트를 다룰 시간도 마련하였다. 연구자는 학기 초 ‘1인 1주제 학습’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2학기에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개인 프로젝트를 발표할 시간을 등교 수업 활동에 포함시켰다.

결과적으로 등교 수업의 활동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 장기형 성취기준: 책 읽고 느낀 점 쓰기(각종도서, 통합교과 및 범 교과 주제 연관 도서)
- 성취기준 중심 확인 및 평가: 지난 1주일 동안 배운 내용 확인, 복습
- 학생 주도의 주간학습계획 작성: 1주일 간의 학습 계획 세우기
- 개인 프로젝트 주제 발표: 개인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발표

등교 수업은 새로운 학습활동을 다루는 것보다 원격수업을 이끌어어나가는 것으로 운영 방향이 결정되었으며, 주1회 등교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기본 계획을 세웠으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등교 횟수에 따라 수업 활동을 변경하기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경험을 최대한 주자는 것이 2학기 교육활동의 핵심이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를 위해 통합교과의 운영 방식도 새롭게 바꾸었다. 1학기 때에는 통합교과 운영 시 학생들이 성취기준에 적합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학습꾸러미를 제공하거나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번안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2학기 때에는 통합교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인 동네, 가을, 나라, 겨울을 학생 스스로 탐구하도록 계획했는데, 동네라는 주제는 학생들이 살고 있는 곳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자신 주변을 탐구하도록 하였고, 가을과 나라 등은 학생 개개인에 따라 학습경험을 달리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였다. 예를 들어, 나라 의 경우, 학생이 알고 싶은 나라를 하나 정하여 그 나라의 의상, 문화, 음식 등을 학생 스스로 조사하도록 기획하였다. 이 때 학생들은 자신이 정한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을 조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앞서 보였던 교과 기능 중심의 수업 운영, 교과 내, 교과 간 통합도 2학기 교육과정에서 발현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 계획 중이기 때문에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모할지 그 운영 모습을 아직 확정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2학기 교육과정 운영에서 확실한 것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에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오든 학생의 학습력을 길러주겠다는 것이 2학기 교육과정 설계의 가장 큰 특징이다.

#### IV. 논의: 교사들이 행한 교육과정적 일

이전 장에서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교사가 만난 온-오프 병행 교육과정을 교사의 교육과정 성취기준 사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전 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이 보인 교육과정적 일이 무엇인지 해석하였다.

##### 1. 교육과정의 효율적 접근

코로나 19 기간 동안 교사는 이전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따르기도 하고, 새로운 운영 방식을 만드는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보였다. 이들이 보인 것 중 특징적인 것은 교과 내-교과 간 통합, 수업 재료와 수업 방식의 통합, 기능 중심의 성취기준과 내용 중심의 성취기준의 통합 등 다양한 방식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통합은 초등학교에서 종종 일어나는 교육과정 조직 형태다. 그러나 코로나 19 상황에서 이들이 보인 통합의 접근 방식은 조금 달랐다.

보통 초등학교에서의 통합은 학생을 그 접점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초등교사는 여

러 교과를 다루면서 학생을 가르친다. 여기에서 초등교사는 학생들이 여러 내용을 배우는데 있어 연결고리를 만듦으로써 교과가 보다 연계된 형태로 다가갈 바란다. 특히 학생의 내재적 흥미와 교과를 연결시키기 위해 흥미나 특정 주제 등을 표면화하고 여러 교과를 그 안에 담는 방식으로 통합을 사용한다. 학생들에게 일관된 학습을 제공하는 것, 학생의 흥미와 교과를 통합하는 것 등 초등교사에게 통합은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조직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시기 초등교사는 학생과 비대면인 상황에서 통합적 접근을 사용했다. 이들은 기능 중심의 성취기준에 소재를 제공하는 성취기준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중첩-이중적 구조의 교육과정 조직을 만들어 냈다. 또한 내용이 더 부각되는 내용교과와 표현 및 기능이 더 부각되는 기능교과를 적절히 배치함으로써 교육과정을 밀도 있게 그려냈다. 교과 간 통합에서는 교과 기능을 수업 방법으로 전환하여 다른 교과의 수업에 적용했으며, 교과 내 통합에서는 이전에 했던 수업내용을 다음 수업내용의 방법으로 채택한 것이 이들의 방식이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가 통합의 교육적 가치, 즉, 학생의 삶과의 연결을 통해 보다 유의미한 방식으로 교육내용을 제공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통합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이 통합을 택한 이유는 그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기능과 내용을 통합하고, 기능과 기능을 통합하면 하나의 수업은 여러 성취기준을 담을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수업의 경제성, 효율성은 높아진다. 이런 면에서 이 시기의 통합은 Tyler(1949)의 동경험 다목표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압축하여 운영한 것, 교과서에 있는 부차적인 차시들을 삭제하고 핵심적인 차시를 개발한 것 역시 교육과정의 효율적 측면과 연결된다. 이들은 기존과 같은 대면 형식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의 배움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사용하였고, 이것은 교육과정 통합, 압축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 2. 교육과정의 메타학습적 접근

다음으로 A초 교사들이 보인 특징 중 하나는 메타 교육과정 및 메타학습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이다. 메타 교육과정이란 교과 내용을 뛰어넘는 사고와 학습의 기능,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메타 교육과정을 적용할 경우 가르쳐야 할 교과는 순수하게 남게 되고, 가르치고자 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교과가 연결된다(Fogarty, Stoehr, 2008). A초 교사들은 최대한 여러 교과에 기능을 대입함으로써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기능을 사용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교육과정

의 효율적 접근과 연결되기도 하지만, 이것과 별도로 교사들은 기능을 학습내용의 중심으로 여기고 기능을 가능한 한 많이 다루려는 노력을 보였다. 따라서 거의 모든 수업에서 메타 교육과정이 발견되었는데, 국어과 기능 중 하나인 ‘내 생각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기’는 학기 내내 유지되었으며,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기’ 역시 학기 내내 꾸준히 유지되었다.

수업내용으로 메타학습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모습도 빈번히 발견되었는데, 학기 초, 교사들은 온라인 학습 내용을 선정할 때 학생이 익혀야 할 기능, 역량 등에 집중했다. 따라서 장기 반복형 성취기준을 추출했고, 이것을 1학기 내내 대입함으로써 학생들의 기본 기능 함양을 중시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그리고 2학기 때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각 교과별로 익혀야 할 기본 학습 활동을 추출함으로써 등교 수업 때에는 이 활동들을 배우고, 원격 수업 때에는 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을 계획했다. 이들은 소재나 제재 중심의 내용보다는 기능, 역량 중심의 내용에 집중했고, 이를 더 많이 편성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A초 교사들이 보인 이 같은 방식은 초등교육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메타학습이 전경이 되는 방식과 유사하다.

메타학습은 제도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교육의 소임이며, 교과학습은 중등교육의 소임이다. ... 초등교육의 장면에서 교사는 다양한 교과들을 가르치면서 교과의 특정한 내용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학습자들이 그 내용을 겨냥하여 스스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지도한다(엄태동, 2003:61).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차이를 메타학습과 교과학습의 비중으로 설명한 엄태동(2003)은 초등교육의 경우 메타학습이 전경으로 부각되고 교과학습이 배경으로 물러서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 적합하다고 본다. 초등교육은 교과 내용 그 자체에 의미가 있기보다도 학습에 대한 학습이 더 중요하며, 이 맥락에서 교과 학습은 학생이 학습력을 익히고, 익힌 학습력을 발휘하는 소재이자 무대로 작동한다. 이러한 교과 설정이 초등교육에 적합한 방식이며, 이 방식을 따랐을 때 초등교육은 제도교육의 첫 단계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본 것이 그의 접근이다. A초 교사들도 이것과 시각이 유사했다. 이들은 메타학습과 교과학습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교직경력을 통해 이 시기에 제공해야 할 교육이 메타학습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체감적으로 알았다. 이들은 감각적으로 기능 및 역량에 집중했으며, 교과를 배우기 위한 기본 기능을 중점에 두고 온-오프 병행 교육과정을 설계했다.

## 3. 교육과정의 상황적 접근

교사가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전개하는데 있어 상황은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며, A 초 교사들 역시 그들이 처한 상황을 활용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일차적으로, 이들은 상황을 교육적 소재로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전개했다. 교사들은 가장 강력한 상황이었던 코로나 19를 중심에 두고 안전한 생활, 바른 생활 등을 엮어냈으며, 국어의 글쓰기 소재로 삼기도 했다. 이처럼 상황을 교육적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초등교육 운영에 있어 종종 볼 수 있는데, 선거 기간 때 민주주의 교육을 한다거나 올림픽 때 관련 체육 교육에 몰입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특정 상황이 부각되면 학생, 어른 할 것 없이 그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는 관련 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에 교사는 쉽게 수업을 이끌 수 있다. A 초 교사들도 이러한 상황 중심적 교육과정 운영의 장점을 알고 있었고, 이에 코로나 19라는 상황을 수업으로 적극 활용하였다.

이차적으로, 이들은 교육과정에 상황이라는 요소를 설정하여 교육과정을 해석·운영했다. 보통 교육에 있어 중요한 세 요소는 학생, 교사, 교과라 할 수 있다. 교사는 이 세 요소가 만들어내는 삼각형 안에서 각 요소의 균형을 맞추며 어느 시기에는 학생이라는 요소에, 또 다른 시기에는 교사라는 요소에 집중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간다. 그러나 코로나 19라는 시기 동안 교사는 온라인 학습, 온라인 개학, 온-오프 병행 교육과정 등 서로 다른 형태의 교육을 겪으며 세 요소 안에 상황이라는 요소를 다른 세 요소와 동등하게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학기 초 교육과정 계획은 교사와 교과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며,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이 중심이 되어 계획의 빈 공간을 메운다(김세영, 2019). 물론 상황 역시 고려되는 상황이지만 하나 이 세 요소만큼 크게 작동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격수업이 시작되면서 학생의 삶, 관심, 흥미 등 학생 요소가 줄어든 반면, 상황 요소는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교육과정 해석에 있어 기존보다 더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조윤형(2006)은 교육과정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주체 내적 변인과 주체 외적 변인으로 나눈다. 여기에서 주체 내적 변인은 교사와 관련된 것으로 교사의 가치관, 태도, 성향 등이 이에 속한다. 주체 외적 변인은 다시 고정적 변인과 유동적 변인으로 나뉘는데, 고정적 변인이 국가의 교육 정책, 지역 및 학교의 특성 등이라면, 유동적 변인은 교육 주체 간 기대, 학생의 수준 및 성향 등이다. 교사는 매해 그들이 만나는 학생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주체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 19라는 유동적 변인이 생겼고, 이 유동적 변인에 따라 교육부 지침이 그 때 그 때 바뀌었기 때문에 교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Schwab(1973, 1983)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네 가지 공통요소로 교과, 교사, 학생, 환경을 말한다. 그는 교육과정학자가 이 네 가지를 동등하게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말에 기대어보면, 교사는 교육과정학자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하나의 요소이다. 그러나 교사가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때 그는 Schwab(1973)이 말했던 교육과정학자의 위치를 접하게 된다. 이들은 교육과정학자(혹은 교과 전문가)가 네 공통요소를 고려하여 만든 ‘(교과)교육과정’을 주어진 교육과정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해석할 때 교사, 학생, 환경의 관점을 가져온다. 즉, 초등교사는 교과는 주어진 것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세 가지인 교사, 학생, 환경은 자신이 채워 넣는 것으로 해결한다. 앞의 사례에서 교사들은 아직 학생들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의 삶을 교육과정으로 적극 끌어 올 수 없었다. 즉, 원격수업에서 학생이라는 요인은 크게 발휘되기 어려웠다. 반면, 상황이라는 요인이 부각되면서 교사는 상황을 교육과정 해석 및 운영의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하였고, 교과, 교사, 학생, 상황 등을 조율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교사는 교육과정학자의 시선에서 공통요소 중 하나지만,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에서 그 스스로가 중요한 변인이자, 나머지 공통요소를 아울러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 교육과정과 학생의 연결: 학생의 학습력 강화

교사가 코로나 19 시기에 보였던 교육과정 일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사의 교수보다는 학생의 학습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초기에 교육과정과 교수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집중했고, 이것은 교육과정 성취기준 기반 다양한 활동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학생과 연결하는 작업에 더 열을 올렸는데, 2학기에 접어들면서 이들은 학생이 스스로 학습력을 키우고 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온-오프 병행 수업에 있어 등교 수업이 학습력을 키우는 주 수업이라면, 원격 수업은 학생의 학습력을 유지·적용하는 수업이었고, 교사는 이 설계에서 학생을 어떻게 스스로 학습하는 자로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 즉, 원격 수업 기간 동안 교사는 적극적인 교수자에서 학습을 안내하는 안내자로 그들의 역할을 변환시켰다.

코로나 19 이후의 교육에 대해 논한 오재호(2020a, 2020b)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앞으로 교사는 온라인 수업과 교실 수업을 차별적으로 구성하는 종합설계자 역할과 학습자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함(오재호, 2020a: 23)”을 이야기한다. 또한 교사는 지식 전달이나 행정 처리보다 학습을 촉진하는 역할의 비중을 늘려야 함도 말한다(오재호, 2020b). 김홍섭(2020) 역시 코로나 19 이후 교육은 개인 주도의 학습이 주가 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

은 학생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코로나 19 이전에도 학생의 주체적 학습은 논의된 바 있다. OECD(2019)는 2030 학습 나침반에서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로 ‘학생 주체성(student agency)’을 언급했다. 학생 주체성이란 학생이 자신의 삶과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목표를 세우는 능력, 변화를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다(OECD, 2019: 16). 학생은 사회적 맥락에서 그들 스스로 배우고, 자라고, 행동하며, 이때 또래, 부모, 교사 등은 공동주체자(Co-agency)로, 학생과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OECD(2019)는 미래교육에 있어 학생 주체성의 중요성과 함께 학생 스스로 학습력이 있다는 믿음, 공동주체자로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다.

사례에서 교사들은 학생의 학습력에 대한 믿음을 근간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학생에게 학습력이 필요하다는 것과 교사는 학생의 학습력을 길러주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지는 곧 교육과정 운영의 변화로 나타났고, 학생 스스로 무엇을 배워야 할지 인지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교과별 기본 학습 활동 및 역량 등을 강화한 교육과정으로 발현되는 모습을 보였다.

## V.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온-오프 병행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 과정을 주요 시기별로 기술하였다. 교사들은 코로나 19 기간 동안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거쳤고, 그 기간에 맞는 교육과정 조직 방식을 찾아감과 동시에 코로나 19 상황에 적합한 조직 방식을 찾고자 하였다. 그들은 교육과정을 효율적, 상황적으로 다루었으며, 기능 및 역량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이들의 교육과정적 시도는 코로나 19 이후의 교육적 접근 및 방향에 있어 모종의 길잡이가 될과 동시에 몇 가지 시사점을 안겨 준다.

첫째, 현재 에듀테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만큼 새 플랫폼에 있어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 19는 교육 혁신을 앞당겼고, 에듀테크는 아마 새로운 교육의 장을 탄생시킬 것이다. 이에 코로나 19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이 시기의 에듀테크 적용 현황, 교과에 적합한 에듀테크 개발, 학습관리시스템(LMS) 등 에듀테크에 관한 다양한 논의로 그들의 관심을 표출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원격 교육과 스마트 교육 안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행위는 어떠해야 하는지, 즉, 새로운 환

경 속에서 교사는 자신의 교육과정 전문성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새로운 교육의 장에서 교사의 교육과정적 전문성에 대한 논의 및 접근이 필요하며, 이 두 가지 논의가 최소한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교사는 교과서가 지녔던 힘을 에듀테크로 그대로 이항한 채, 에듀테크의 대변인 역할에 머무를 수 있다. 어쩌면 에듀테크는 발달하는데 교사의 교육과정적 능력은 발달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교육적 지체현상에 빠질지도 모른다. 가르치는데 있어 새로운 방식이 들어선 만큼 그에 걸맞는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도 함께 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코로나 19 상황과 함께 컴퓨터 문해력의 중요성이 급속도로 부각되었고, 이는 어쩌면 차기 교육과정에 표면적으로 등장할지도 모른다. 교과 교육과정은 ICT 능력, 컴퓨터 문해력 등과 밀접해질 것이며, 이제까지 미뤄왔던 컴퓨터 관련 기능들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급격하게 밀려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적인 변화 이외에 교과 교육과정 체제에 관한 변화도 필요하다. 온-오프 병행 수업, 온라인 수업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교과 교육과정은 어떤 내용을 지향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과 스스로의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하나의 접근으로 역량이나 기능이 중심이 되는 초등교육과정의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때 교과는 학생이 역량과 기능의 충실한 습득이 될 수 있도록 소재(subject matt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21세기에 필요한 역량과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과는 이것을 배우고 활용하는 무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무 급진적이라면 교과 교육과정을 교과 기능 및 역량으로 재구조화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학생은 교과의 필수 기능을 배우고 이 기능을 다양한 제재 및 소재를 활용하여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교과를 습득할 수 있다. 교과는 내용지식에 관한 무게를 많이 덜어내고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할 수 있으며, 최소한 제도적 교육이 처음 시행되는 초등교육과정에서는 교과 교육과정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모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경험하고 있고, 이 경험을 토대로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교육 종사자로서, 위기도 발견했지만 기회도 발견했고 교육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도 했다. 교육에 있어 교사의 모습, 교과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교육의 본질에 가까워야 하며 미래 변화에 대응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지금은 이것에 대해 깊이 있게 숙고하며, 교육에 있어 뉴노멀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

##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2020). 경기 블렌디드 러닝의 이해. 수원: 경기도교육청.
- 금홍섭(2020).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 과제와 전망. 월간 공공정책, 178, 19-21.
- 김경태(2020). ADDIE모형을 활용한 종묘제례악 원격수업도구 개발. 음악교육공학, 44, 63-85.
- 김상미(2020).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교육에 관한 국내 언론보도기사 분석.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21(6), 1091-1100.
- 김서진, 문영(2020).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예술교육: 언택트 시대의 몸교육에 관한 소고.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8(3), 87-100.
- 김세기(2020). 코로나 19로 인한 초등학교 체육교과 원격수업 실태 분석.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6(2), 145-158.
- 김세영(2012). 초등교육 연구에 있어서의 질적 사례연구. 초등교육학연구, 19(2), 31-57.
- 김세영(2019). 초등교육과정 조직의 특이성 탐구. 초등교육연구, 32(3), 199-221.
- 김승환, 천성민(2020). 코로나19에 따른 대학 교양체육 실기수업의 온라인 수업 운영과 강사의 어려움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81, 9-26.
- 김윤옥, 윤소영, 설양환(2020). 국내 교육대학교들의 온라인 국제교육실습 실행가능성 탐색. Global Creative Leader, 10(2), 133-160.
- 김현주(2020). 외국인 학부생의 비대면 한국어 수업 경험에 대한 탐색: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1(4), 1679-1692.
- 도재우(2020). 면대면 수업의 온라인 수업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장애물에 대한 탐색. 교육문화연구, 26(2), 153-173.
- 박민규(2020).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뉴노멀. 월간 공공정책, 177, 56-60.
- 박성영(2020). 비대면 온라인 실습수업을 통한 효율적 디자인교육 프로그램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중열(2020). 코로나19로 촉진된 대학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고찰. 기계저널, 60(7), 32-36.
- 방인자(2020). 대학 교수자의 온라인 수업 운영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8(2), 203-232.
- 서희철, 박유민, 조영주(2020).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마스크 착용효과 인지를 위한 VR연동 'Wearing a Mask' SW교육 제안.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8(2), 625-628.
- 신서영, 박창언(2020).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교사의 온라인 수업 경험 탐구.

-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8(2), 147-167.
- 양동석, 조건상, 유은혜(2020).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현실과 개선방안.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6(2), 131-144.
- 엄태동(2003). 초등교육의 재개념화. 서울: 학지사.
- 오재호(2020a). 코로나19가 앞당긴 미래, 교육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이슈&진단, 1-25.
- 오재호(2020b). 코로나-19 이후, 교육을 돌아보다. 월간 공공정책, 178, 22-25.
- 우옥영(2020). 신종 코로나-19와 보건교육 기반 예방협력체제의 과제. 정치와 평론, 26, 81-135.
- 이상민(2020). 예비 초등교사 대상 온라인 미술교육 방안 연구. 한국초등교육, 31(2), 181-204.
- 이영희, 박윤정, 윤정현(2020). COVID-19 대응 대학 원격강의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유형 탐색. 열린교육연구, 28(3), 211-234.
- 이용길(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에 대한 사유. 월간 공공정책, 178, 26-29.
- 이의재, 제성준, 윤현수(2020).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고등학교 경력 체육 교사가 겪는 온라인 수업 실천의 어려움과 극복 전략 탐색.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20(14), 339-362.
- 이은적(2020).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의 학교와 미술관 연계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62, 203-225.
- 이종만(2020). 코로나19 원격 교육에서 외로움과 유튜브 과다사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7), 342-351.
- 이준희(2020). 과학과 온라인 수업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식 조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현(2020). 기후변화와 코로나 19 시대, 환경보건교육이 필요한가?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10.
- 장래혁(2020). 코로나19가 보여준 정보화시대의 명암(明暗)과 미래 교육. 브레인, 81, 42-44.
- 정순원(2020). 초중등학교의 원격수업에 관한 법령 현황 및 개선 방안. 한국교육, 47(2), 53-82.
- 정익중(2020).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13, 47-59.
- 정창권, 윤종선(2020). 온라인 실시간 강의의 운영 사례와 교육 효과: 고려대학교 과목을 중심으로. 한국융합인문학, 8(3), 159-179.
- 정혜령, 우영희(2020). 우수 온라인 강의콘텐츠에 대한 원격대학 학습자의 연령별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7), 429-437.

- 정혜욱(2020).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 실태조사와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희연, 윤지원(2020). 한국어 온라인 동영상 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 조사 연구. *인문사회* 21, 11(3), 1305-1318.
- 조운형(2006). 국어과 교육과정 해석의 상황과 양상 연구: 구전설화 제재 활용 단원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0, 169-198.
- 조은순(2020). 코로나 19 이후의 학교교육, *사학*, 159, 4-5.
- 최아라(2020). 코로나19, 아동돌봄 쟁점과 과제. *인문사회* 21, 11(4), 1379-1390.
- 홍도은(2020). 봉산탈춤을 활용한 온라인 예술교육 콘텐츠 설계: 유튜브 콘텐츠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ah, A., Hidaayatullaah, H. N., Simamora, R. M., Fehabutar, D., & Mutakinati, L. (2020). The impact of covid-19 to Indonesian education and its relation to the philosophy of "Merdeka Belajar". *Studies in Philosophy of Science and Education*, 1(1), 38-49.
- Alea, L. A., Fabrea, M. F., Roldan, R. D. A., & Farooqi, A. Z. (2020). Teachers' covid-19 awareness, distance learning education experiences and perceptions towards institutional readiness and challenges. *International Journal of Learning, Teaching and Educational Research*, 19(6), 127-144.
- Aliyyah, R. R., Rachmadtullah, R., Samsudin, A., Syaodih, E., Nurtanto, M., & Tambunan, A. R. S. (2020). The perceptions of primary school teachers of online lear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eriod: a case study in Indonesia. *Journal of Ethnic and Cultural Studies*, 7(2), 90-109.
- Azorín, C. (2020). Beyond COVID-19 supernova. Is another education coming? *Journal of Professional Capital and Community*. <https://doi.org/10.1108/JPC-05-2020-0019>
- Basilaia, G., & Kvavadze, D. (2020). Transition to online education in schools during a SARS-CoV-2 coronavirus(COVID-19) pandemic in Georgia. *Pedagogical Research*, 5(4), 1-9.
- Byun, S., & Slavin, R. E. (2020). Educational responses to the COVID-19 outbreak in South Korea. *Best Evid Chin Edu*, 5(2), 665-680.
- Crawford, J., Butler-Henderson, K., Rudolph, J., Malkawi, B., Glowatz, M., Burton, R., ... & Lam, S. (2020). COVID-19: 20 countries' higher education intra-period digital pedagogy responses. *Journal of Applied Learning & Teaching*, 3(1), 1-20.
- Daniel, S. J. (2020). Education and the COVID-19 pandemic. *Prospects*, 1-6.
- Donitsa-Schmidt, S., & Ramot, R. (2020).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eacher education in Israel in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Education for Teaching*, 1-10.
- Ferdig, R. E., Baumgartner, E., Hartshorne, R., Kaplan-Rakowski, R., & Mouza, C. (Eds.).(2020). *Teaching, technology, and teacher educ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tories from the field*. NC: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mputing in Education(AACE).
- Fauzi, I., & Khusuma, I. H. S. (2020). Teachers' elementary school in online learning of COVID-19 pandemic conditions. *Jurnal Iqra': Kajian Ilmu Pendidikan*, 5(1), 58-70.
- Fogarty, R., Stoehr, J. (2008). *Integrating curricula with multiple intelligences*. CA: Sage.
- Iivari, N., Sharma, S., & Ventä-Olkkonen, L. (2020). Digital transformation of everyday life - How COVID-19 pandemic transformed the basic education of the young generation and why information management research should care?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102183.
- Jena, D. P. K. (2020).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reated by Covid-19 for ODL: A case study of IGNOU.
- Kerres, M. (2020). Against all odds: Education in Germany coping with Covid-19. *Postdigital Science and Education*, 1-5.
- Kong, Q. (2020). Practical exploration of home study guidance for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case study of Hangzhou Liuxia elementary school in Zhejiang Province, China. *Sci Insigt Edu Front*, 5(2), 557-561.
- König, J., Jäger-Biela, D. J., & Glutsch, N. (2020). Adapting to online teaching during COVID-19 school closure: teacher education and teacher competence effects among early career teachers in Germany. *Europ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1-15.
- Merriam, S. B. (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CA: Jossey-Bass. 허미화(역) (1994). *질적 사례연구법*. 서울: 양서원.
-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2). *Education for life and work: Developing transferable knowledge and skills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National Academies Press.
- Rachmadtullah, R., Marianus Subandowo, R., Humaira, M. A., Aliyyah, R. R., Samsudin, A., & Nurtanto, M. (2020). Use of blended learning with

- Moodle: Study effectiveness in elementary school teacher education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 OECD (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OECD learning compass 2030*. Paris: OECD.
- OECD (2020). *Supporting the continua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aris: OECD.
- Sandars, J., Correia, R., Dankbaar, M., de Jong, P., Goh, P. S., Hege, I., ... & Webb, A. (2020). Twelve tips for rapidly migrating to online learning during the COVID-19 pandemic. *MedEdPublish*, 9.
- Schwab, J. J.(1973). The practical 3: Translation into curriculum. *School Review*, 81(4), 501-522.
- Schwab, J. J.(1983). The practical 4: Something for curriculum professors to do. *Curriculum Inquiry*, 13(3), 239-265.
- Stake, R.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홍용희, 노경주, 심종희(역) (2000). *질적 사례 연구*. 서울: 창지사.
- Stake, R. (2006). *Multiple case study analysis*. NY: Guilford Press.
- Setiawan, A. R. (2020). Scientific Literacy Worksheets for Distance Learning in the Topic of Coronavirus 2019(COVID-19).
- Tyler, R. W.(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UN (2020). *Policy brief: education during COVID-19 and beyond*. NY: UN.
- UNESCO (2020a). *COVID-19 education response, preparing the reopening of school*. Paris: UNESCO.
- UNESCO (2020b). *Education in a post-COVID world: Nine ideas for public action*. Paris: UNESCO.
- VanWynsberghe, R & Khan, S (2007). Redefining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6(2), 80-94.
- Xie, Z., & Yang, J. (2020). Autonomous learning of elementary students at home during the COVID-19 Epidemic: A case study of the second elementary school in Daxie, Ningbo, Zhejiang province, China.
- Zhou, L., Wu, S., Zhou, M., & Li, F. (2020). 'School's Out, But Class' On', The largest online education in the world today: taking China's practical exploration during The COVID-19 epidemic prevention and control as an example.



토론

전면적 원격수업 도입의 성과와 한계

이윤미 | 전북 이리동산초 교사



2020 KSSEE Annual Conference  
2020 한국초등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전면적 원격수업 도입의 성과와 한계

이윤미(전북 이리동산초 교사)

COVID-19는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해온 교육의 영역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400만 명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distance learning)을 시행하면서, 학교가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최대 규모의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교사와 학생들은 EBS의 온라인 클래스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e학습터 등을 사용한 콘텐츠 활용 수업, 학급홈페이지나 학급별 SNS 등을 사용한 과제 수행 중심 수업, ZOOM이나 온더라이브 등을 사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을 실시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의 전면적 도입은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수업방식, 수업시간, 등교 시간 등에서 전통적인 표준을 해체하고 뉴노멀(New Normal)을 만들어 냈고, 공학적 차원에서 미래 교육을 크게 앞당겼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초등학교 교사인 필자가 경험하거나 목도한 변화 중의 하나는 대면수업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성취기준, 기능, 역량 등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압축적으로 재조직하거나 새롭게 개발하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는 방식이 한층 강화되는 흐름이다. 발제자의 경우, 전자의 교육과정 실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발제자는 원격수업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성취기준을 사용하여 교육과정을 통합, 압축함으로써 학생의 배움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교과 내용을 뛰어넘는 사고와 학습의 기능, 전략을 추구하는 메타 교육과정 및 학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는 원격수업으로 교육과정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교사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이다. 특히 교육과정의 효율적 접근, 메타학습적 접근, 상황적 접근은 교육과정 실행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상당수의 교사들은 원격수업 체제하에서 교육과정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교사들은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 적응하기에 바빴다. 언론으로 먼저 접하는 갑작스러운 지침들,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대면 수업의 급격한 축

소, 온라인 수업을 만들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학습, 온라인 수업 제작에 드는 많은 시간과 노력, 온라인 수업의 이수율과 완수율 독려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당수의 교사들은 교육과정 재구성은 엄두도 못 냈다. 비대면 수업시간에 교과서 체제에서 벗어난 수업을 실행하기에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디지털 교재와 교수학습 자료가 현저히 부족했다. 특히 교재 차원의 선택권이 협소했기에 국·검정 교과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재구성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많은 교사들은 교과서 내용 중심 수업으로 회귀하였고, 교과서 기반 온라인 수업 자료를 검색하기 바빴다. 또한 활동 수업, 모둠수업, 이동수업, 현장 체험학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 대면 수업에서도 지식을 전달하고 익히게 하는 일방향 수업이 주를 이루었다(최형미, 이동국, 2020).

결국 교육과정 측면에서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 혁신 등의 자발적 운동을 통해 오랜 시간 다져온 '교사교육과정 개발'의 토대가 짧은 시간에 많이 약해졌고, 다시 교과서 중심 주위가 확산된 것이다. 많은 교사들이 긴 시간 동안 교육과정과 수업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왜 이렇게 쉽게 교과서 중심 수업, 지식 전달 수업, 일방향 수업으로 회귀했을까 자문해보았다. '교육과정 혁신의 토대가 약했던 걸까?', '온라인 수업의 한계인 걸까?', '교사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집적되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일까?', '교사교육과정이 교재로 변환되지 못했기 때문일까?', '교사, 학교, 교육청, 국가가 놓쳤던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문점과 아쉬움이 남는다.

사상초유의 전면적 원격수업의 도입은 우리에게 뚜렷한 과제를 남겼다. 발제자가 제안한 시사점에 필자의 의견을 덧붙여서 나아갈 방향을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비상시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일단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량권, 성취기준 재량권을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긴급 상황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침만 기다리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주어야 한다. 또한 발제자가 지적한 것처럼 교과서의 내용 지식을 덜어내고 기능 중심으로 재구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과감하게 투자하여 다양한 디지털 교과서 및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선호하는 자료 공유 플랫폼은 주로 국·검정교과서에 기반을 둔 차시 차원의 자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주가 되는 체제에서는 교과서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원격수업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도 교육과정 재구성, 교사교육과정 개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정적인 온라인 수업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원격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플랫폼은 출석 여부, 이수율, 과제 관리 정도의 기능만 제공하고 있어 상호작용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학습을 촉진하고 사회적 실재감을 높이는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최형미, 이동국, 2020).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플랫폼-줌, 카카오톡 라이브톡 등-은 현재는 무료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윤을 추구할 확률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인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사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밀한 학급당 학생 수'를 꼽았으며, 학습격차 해결과 대면 수업 확대 방안도 역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1순위로 꼽았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0).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는 데다가 원격수업이 장기화되어 등교 일수가 적을 경우 학습격차의 확대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학급당 학생 수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다섯째, 발제자가 지적한 것처럼 공학적 전문성과 교육과정 전문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전문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공학적인 전문성만 발달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장과 배움을 도모하기 어렵다. 이에 교육과정적 능력과 공학적 능력이 함께 발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나아가 교사들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비상시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기 국가교육과정 개발 준비, 각종 지침 및 법령 정비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면수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현행 교육과정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비상시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기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시기에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저해요소로 작용하기 쉬운 각종 지침, 규정, 법령 등을 정비해야 한다. 실제 공교육정상화법, 정보공시법 등은 비상시기 교육과정 운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사들의 교육과정 자율성과 융통성을 침해하는 지침, 규정, 법령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20.9.23.).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 전교조 보도자료.


최형미, 이동국(2020). COVID-19에 따른 중등 교사의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6), 1047-1071.



2020 한국초등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 미래형 수업시대, 초등교육의 전망과 과제

2020. 11. 28(토)  
10:00~16:00

주최  한국초등교육학회